襄陽 浦月里 住居址

2002

江陵大學校博物館
襄　　陽　　郡

【보고서 작성】

원고 : 지현병 · 박영구
도면 : 박영구 · 최영희
사진 : 지현병 · 고동순
편집 : 백홍기

표지사진
전면 : 포월리 4호주거지 출토 공열토기
후면 : 포월리 2호주거지 출토 호형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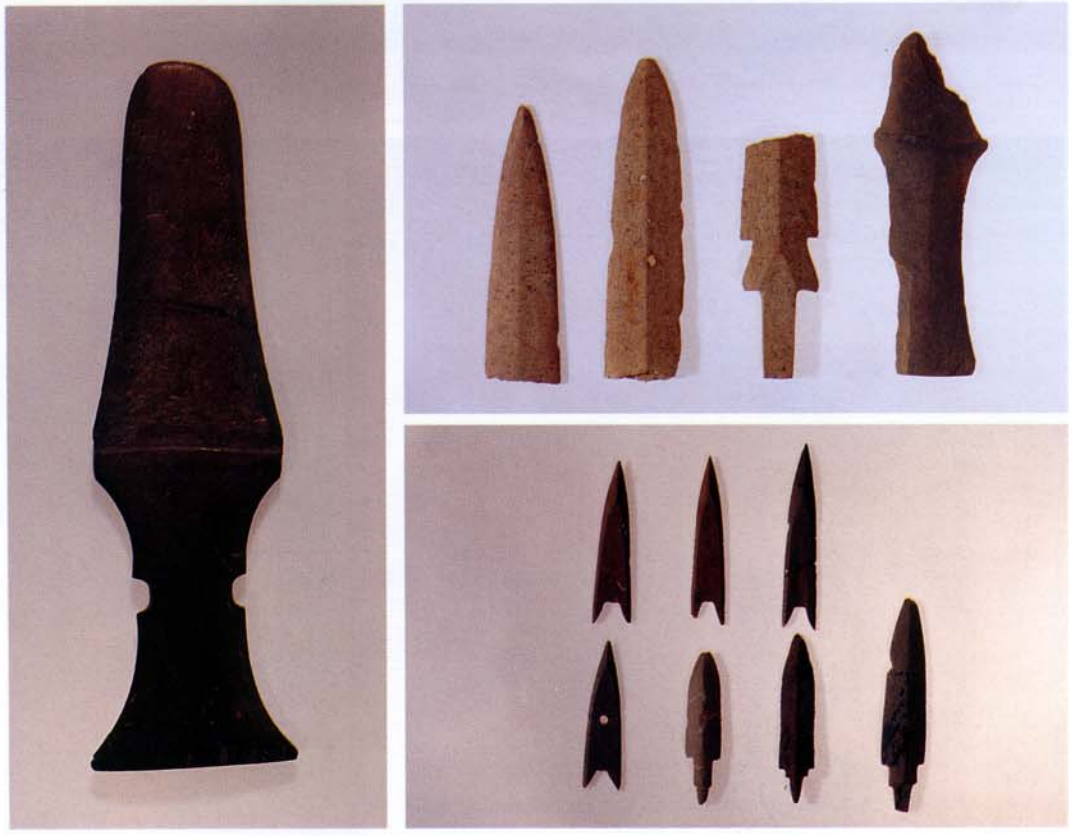
포월리 1호 주거지



포월리 4호 주거지



포월리 주거지 출토 토기



포월리 주거지 출토 석기

目　次

Ⅰ. 머리말 13

Ⅱ. 調査經緯 및 經過 15

Ⅲ. 遺蹟의 位置 및 自然·考古學的環境 16

1. 遺蹟의 位置 16

2. 自然·考古學的環境 16

Ⅳ. 調査方法 및 調査內容 20

1. 無文土器時代 住居址 23

1) 層位 23

2) 遺構와 遺物 24

(1) 1호 住居址 24

(2) 2호 住居址 43

(3) 3호 住居址 51

(4) 4호 住居址 53

(5) 5호 住居址 61

(6) 6호 住居址 65

(7) 7호 住居址 67

(8) 8호 住居址 67

(9) 9호 住居址 69

(10) 10호 住居址 74

(11) 11호 住居址 76

(12) 12호 住居址 79

(13) 13호 住居址 80

(14) 地表採集遺物 84

2. 支石墓 하부구조 92
1) 1호 무덤 92
2) 2호 무덤 92
3. 新羅時代 古墳 94
1) 1호 古墳 94
2) 2호 古墳 94
3) 3호 古墳 94
Ⅴ. 考察 101
1. 住居址 101
2. 支石墓 103
3. 新羅時代 古墳 104
4. 遺物 104
1) 住居址 出土遺物 104
(1) 土器類 104
(2) 石器類 106
5. 編年 및 周邊地域과의 關係 108
Ⅵ. 맺음말 110

그림 목차

〈그림 1〉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 위치도 ····· 17
〈그림 2〉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 주변 선사유적 분포도 ····· 18
〈그림 3〉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조사 현황도 ····· 21
〈그림 4〉 포월리 1호 주거지 실측도 ····· 25
〈그림 5〉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27
〈그림 6〉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0
〈그림 7〉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2
〈그림 8〉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5
〈그림 9〉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7
〈그림 10〉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9
〈그림 11〉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41
〈그림 12〉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42
〈그림 13〉 포월리 2호 주거지 실측도 ····· 44
〈그림 14〉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47
〈그림 15〉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49
〈그림 16〉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50
〈그림 17〉 포월리 3호 주거지 실측도 ····· 52
〈그림 18〉 포월리 3호 주거지 출토유물 실측도 ····· 53
〈그림 19〉 포월리 4호 주거지 실측도 ····· 54
〈그림 20〉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56
〈그림 21〉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57
〈그림 22〉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60
〈그림 23〉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61
〈그림 24〉 포월리 5호 주거지 실측도 ····· 62
〈그림 25〉 포월리 5호 주거지 출토유물 ····· 64
〈그림 26〉 포월리 6호 주거지 실측도 ····· 66

〈그림 27〉 포월리 7호 주거지 실측도 68
〈그림 28〉 포월리 8호 주거지 실측도 70
〈그림 29〉 포월리 8호 주거지 출토유물 70
〈그림 30〉 포월리 9호 주거지 실측도 72
〈그림 31〉 포월리 9호 주거지 출토유물 74
〈그림 32〉 포월리 9호 주거지 출토유물 75
〈그림 33〉 포월리 10호 · 11호 · 12호 주거지 실측도 77
〈그림 34〉 포월리 10호 주거지 출토유물 78
〈그림 35〉 ①~⑧ 포월리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81
⑨~⑪ 포월리 12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36〉 포월리 13호 주거지 실측도 83
〈그림 37〉 포월리 13호 주거지 출토유물 85
〈그림 38〉 포월리 지표채집유물 87
〈그림 39〉 포월리 지표채집유물 89
〈그림 40〉 포월리 지표채집유물 91
〈그림 41〉 포월리 1호 지석묘 실측도 93
〈그림 42〉 포월리 2호 지석묘 실측도 95
〈그림 43〉 포월리 신라시대 1호 고분 실측도 96
〈그림 44〉 포월리 신라시대 2호 고분 실측도 97
〈그림 45〉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석실묘) 실측도 99
〈그림 46〉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석실묘) 출토유물 100

사진 목차

〈사진 1〉 ①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 먼 모습 ····· 113
②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 탐색조사갱 넣은 모습
〈사진 2〉 ① 포월리 1호 주거지 윤곽 나온 모습 ····· 114
② 포월리 1호 주거지 조사 모습
〈사진 3〉 ① 포월리 1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 115
② 포월리 1호 주거지 북벽 홈 모습
〈사진 4〉 ① 포월리 1호 주거지 남벽 기둥구멍 모습 ····· 116
② 포월리 1호 주거지 저장 구덩이 모습
〈사진 5〉 포월리 1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17
〈사진 6〉 포월리 1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18
〈사진 7〉 ① 포월리 1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19
② 포월리 2호 주거지 윤곽 나온 모습
〈사진 8〉 ① 포월리 2호 주거지 조사 모습 ····· 120
② 포월리 2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사진 9〉 ① 포월리 2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 121
② 포월리 2호 주거지 남동벽 기둥구멍 및 저장 구덩이 모습
〈사진 10〉 ① 포월리 2호 주거지 북벽 기둥구멍 모습 ····· 122
② 포월리 2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사진 11〉 ① 포월리 3호 주거지 윤곽 나온 모습 ····· 123
② 포월리 3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사진 12〉 ① 포월리 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24
② 포월리 4호 주거지 조사 모습
〈사진 13〉 포월리 4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 125
〈사진 14〉 포월리 4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26
〈사진 15〉 포월리 4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27
〈사진 16〉 ① 포월리 5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 128

② 포월리 5호 주거지 서벽 기둥구멍 및 저장구덩이 모습
〈사진 17〉 ① 포월리 6호 주거지 조사 모습 ····· 129
② 포월리 6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사진 18〉 ① 포월리 6호 주거지 남서벽 저장 구덩이 모습 ····· 130
② 포월리 6호 주거지 기둥구멍 모습
〈사진 19〉 ① 포월리 7호 주거지 윤곽 나온 모습 ····· 131
② 포월리 7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사진 20〉 ① 포월리 7호 · 3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 132
② 포월리 8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사진 21〉 ① 포월리 8호 주거지 동벽 기둥구멍 및 저장 구덩이 모습 ····· 133
② 포월리 9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사진 22〉 ① 포월리 9호 주거지 추정 노지 모습 ····· 134
② 포월리 9호 주거지 홈 윤곽 나온 모습
〈사진 23〉 ① 포월리 9호 주거지 동벽 이중 홈 나온 모습 ····· 135
② 포월리 9호 주거지 북벽 이중 홈 나온 모습
〈사진 24〉 포월리 9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36
〈사진 25〉 ① 포월리 9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37
② 포월리 10호 · 11호 · 12호 주거지 조사 모습
〈사진 26〉 ① 포월리 10호 · 11호 · 12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 138
② 포월리 11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사진 27〉 ① 포월리 12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39
② 포월리 13호 주거지 조사 모습
〈사진 28〉 ① 포월리 1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40
② 포월리 1호 지석묘 조사 전 모습
〈사진 29〉 ① 포월리 1호 지석묘 조사 후 모습 ····· 141
② 포월리 1호 지석묘 석곽 쌓은 모습
〈사진 30〉 ① 포월리 1호 지석묘 장벽(서벽) 석곽 쌓은 모습 ····· 142
② 포월리 2호 지석묘 모습
〈사진 31〉 ① 포월리 2호 지석묘 단벽(남벽) 석곽 쌓은 모습 ····· 143

② 포월리 2호 지석묘 주검 바닥 시상돌 모습
〈사진 32〉 ① 포월리 신라시대 1호 고분 모습 ····· 144
② 포월리 신라시대 2호 고분 모습
〈사진 33〉 ① 포월리 신라시대 2호 고분 모습 ····· 145
②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석실묘) 윤곽 나온 모습
〈사진 34〉 ①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 윤곽 나온 모습 ····· 146
②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 조사 모습
〈사진 35〉 ①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 조사 후 모습 ····· 147
②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 유물 나온 모습
〈사진 36〉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 유물 나온 모습 ····· 148
〈사진 37〉 ①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 유물 수거 후 모습 ····· 149
② 포월리 유적 지도위원회의 모습
〈사진 38〉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50
〈사진 39〉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51
〈사진 40〉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52
〈사진 41〉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53
〈사진 42〉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54
〈사진 43〉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55
〈사진 44〉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56
〈사진 45〉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157
〈사진 46〉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158
〈사진 47〉 ①~②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159
③~⑥ 포월리 3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48〉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160
〈사진 49〉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161
〈사진 50〉 ①~②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162
③~⑨ 포월리 5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1〉 ①~③ 포월리 8호 주거지 출토유물 ····· 163
④~⑩ 포월리 9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2〉 ①~③ 포월리 9호 주거지 출토유물 164
④~⑤ 포월리 10호 주거지 출토유물
⑥~⑦ 포월리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3〉 ①~⑥ 포월리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165
⑦~⑨ 포월리 12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4〉 포월리 13호 주거지 출토유물 166
〈사진 55〉 포월리 유적 지표채집유물 167
〈사진 56〉 포월리 유적 지표채집유물 168
〈사진 57〉 포월리 유적 지표채집유물 169
〈사진 58〉 ①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석실묘) 출토유물 (금동 관고리 - 보존처리 전) 170
②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석실묘) 출토유물 (금동 관고리 - 보존처리 후)
③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석실묘) 출토유물

Ⅰ. 머리말

한반도 동해안의 중북부지방에 있는 양양군은 태백산맥의 중앙부 정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태백산맥에서 동으로 뻗어내린 크고 작은 많은 구릉이 해안가까지 뻗고 있다. 이들 구릉과 계곡에서 발원하는 하천유역에는 낮은 구릉이 많고 구릉 사이사이에는 약간의 평야지대도 전개되고 있으며 해안선 부근에는 호수들이 발달되어 특수한 지형조건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지형조건을 가진 강원 영동지방에 1990년대 초반 부터 국토종합개발의 일환으로 토지개발, 도로확장공사, 관광지개발농공단지조성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됨과 동시에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인멸되는 실정이다.

포월리 농공단지 지정구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산 59번지 일대로 浦月里 농공단지 지정구역내의 青銅器時代 遺蹟[1]은 이미 확인된 바 있고 동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조각 및 밑동조각과 구멍무늬토기조각, 石器조각등이 지표채집되었으나 매장 유구의 정확한 성격규명은 미흡한 상태였다[2]. 그러던 중 1991년 5월초에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앞서 소나무 굴채과정에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유구단면과 유물등이 출토되어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공사 시행청인 양양군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답사한 결과 동 지역은 청동기시대의 유구가 매장된 지역이므로 반드시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양양군에서는 개발에 앞서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1992년 3월 13일 부터 4월 12일 까지 약 30일 동안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12일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노출된 유구를 수습조사토록 하여 본 박물관에서는 당국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1992년 6월 4일 부터 수습조사에 착수하여 8월 10일 까지 약 2개월간 수습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13基, 支石墓 下部構造 2基, 新羅時代 古墳 3기를 발굴조사하였다.

포월리유적에 대한 조사내용의 일부는 이미 발표된 바 있으나[3] 조사보고서의 간행이 오랫동안 지체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1) 白弘基. 1982,〈江原道 東海岸 地方의 支石墓〉《考古美術》156.

2) 白弘基・池賢柄, 1991.《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文化財研究所・江陵大學校 博物館
白弘基・池賢柄, 1992.《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II》文化財研究所・江陵大學校 博物館

3) 白弘基 , 1992, 〈江原嶺東地方의 無文土器文化〉《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II》文化財研究所・江陵大學校 博物館
白弘基・池賢柄, 1994,〈襄陽郡의先史考古遺蹟〉《襄陽郡의歷史와文化遺蹟》江陵大學校 博物館・江原道・襄陽郡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백 홍 기 (강릉대학교 박물관장)
지 도 위 원 : 고 김 원 용 (한림대학교 교수)
고 김 기 웅 (문화재위원)
김 정 기 (현 문화재보호재단 유적조사 단장)
장 경 호 (현 기전문화재 연구원장)
조 유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조 사 원 : 지 현 병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조사보조원 : 고 동 순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홍 순 욱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신 정 순 (강릉대학교 사학과 조교)
보 조 원 : 류 미 열 (강릉대학교 사학과 4학년)
권 미 숙 (강릉대학교 사학과 3학년)
김 원 국 (강릉대학교 사학과 2학년)

Ⅱ. 調査經緯 및 經過

포월리 농공단지 지정구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산 59번지 일대의 해발 약 22m 높이의 東 - 西로 길게 뻗은 구릉지대로 양양읍에서 속초쪽으로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靑谷橋를 건너 좌측으로 동해주유소 뒤쪽에 위치한 야산으로 구릉의 말단부는 논과 밭으로 연결되어 있고 농공단지 지정구역과 인접한 건너편 구릉 정상에는 고인돌 1基가 자리하고 있다.

浦月里 농공단지 지정구역내의 靑銅器時代 遺蹟은 이미 학계에 소개된 바 있어 이 지역 일대가 청동기시대의 유적지로 추정되던 중 1990년도에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이 지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조각 및 밑동조각과 공열토기조각, 石器조각 등이 지표채집되었으나 매장유구의 정확한 성격규명은 미흡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1991년 5월초에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앞서 소나무 굴채과정에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유구단면과 유물등이 출토되어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공사 시행청인 양양군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답사한 후 이 지역에 대하여 소나무 굴채작업과 아울러 농공단지 조성공사작업 중단을 구두로 건의 하였던 바 양양군의 신속한 대응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

그후 본 박물관에서는 양양군청에 포월리 농공단지 조성예정지역은 청동기시대의 유구가 매장된 지역이므로 반드시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본 대학 박물관의 건의에 따라 江原道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거(1991. 11. 12) 농공단지 설정계획 승인조건으로 유적조사를 선행토록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양양군청의 유적조사 의뢰를 받은 우리 박물관 조사팀은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 해 본 결과 조사 대상 구역은 약 22,000여평으로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지표에서 유물은 채집되나 유구의 매장 상태는 불확실하였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한 구제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기간과 조사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1992년 1월 22일 시굴조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1992년 2월 21자로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1992년 3월 13일 부터 4월 12일 까지 약 30일 동안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12일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시굴조사에서 노출된 유구는 수습조사토록 하여 본 박물관에서는 당국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1992년 6월 4일부터 수습조사에 착수하여 8월 10일 까지 약 2개월간 수습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Ⅲ. 遺蹟의 位置 및 自然·考古學的 環境

1. 遺蹟의 位置

포월리 농공단지 지정구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산 59번지 일대의 해발 약 22m 높이의 東 - 西로 길게 뻗은 丘陵지대로 양양읍에서 속초쪽으로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靑谷橋를 건너 좌측으로 동해주유소 뒤쪽에 위치한다.〈그림 1, 사진 1-①〉 농공단지 지정구역과 인접한 건너편 구릉 정상에는 고인돌 1基가 자리하고 있다. 유적이 있는 丘陵의 말단부는 平野地帶로 연결되고 구릉이 동남쪽으로 전개되어 있는 이 平野地帶는 南大川 下流域 北岸의 沖積平野地帶이다. 南大川 下流域의 南岸에서는 손양면 가평리와 송전리에서 신석기시대[4]와 청동기시대·철기시대유적[5]이 조사된 바 있고 신석기유적으로 유명한 손양면 오산리유적[6]은 송전리의 남쪽으로 連接된다. 그 밖에도 남대천 하류에서는 서면 범부리 고인돌[7], 손양면 밀양리 산포지[8] 등이 알려져 있고, 포월리유적도 이러한 남대천 유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선사유적중의 하나이다. 농공단지 지정구역과 인접한 건너편 구릉 정상에는 고인돌 1基가 자리하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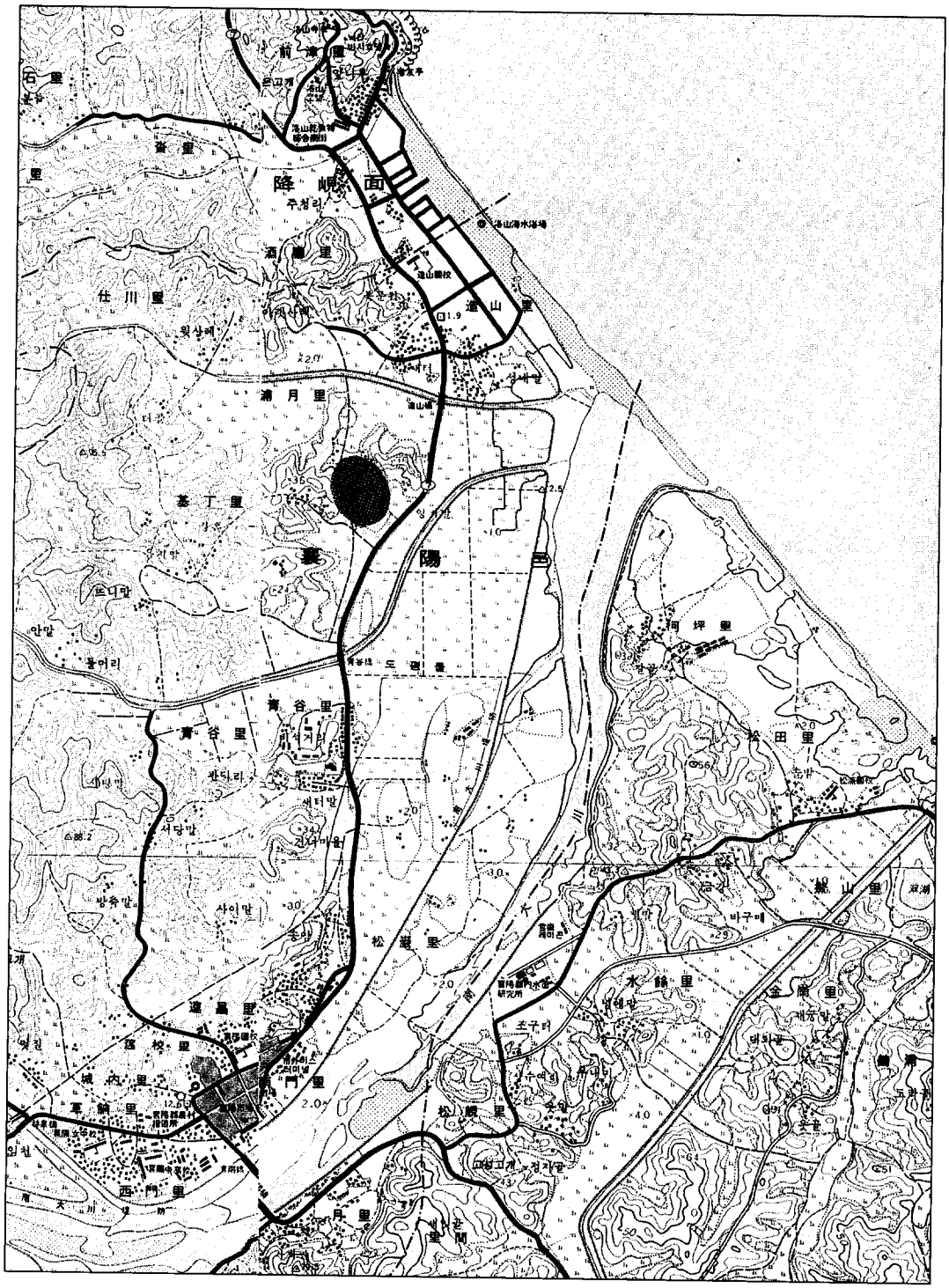
2. 自然·考古學的 環境

양양군은 강원도 동해안의 중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편은 동해와 접하고, 북편은 속초시, 서편은 인제군과 홍천군, 남으로는 평창군, 강릉시 주문진읍과 인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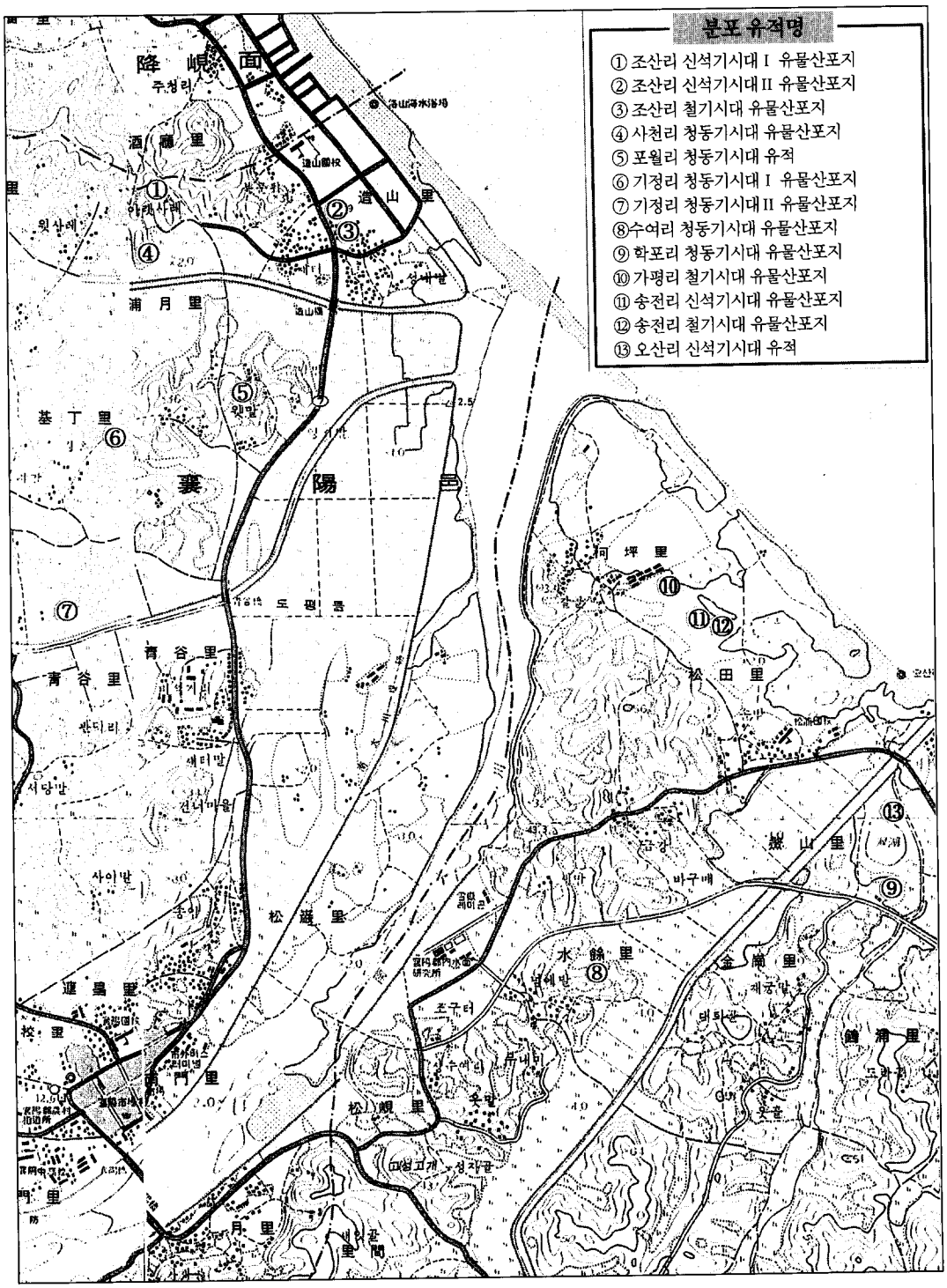
경·위도상으로 보면 동경 128°55″~129°47″, 북위 37°51′34″~38°10′14″사이에 위치하고 있다.[9]

양양지방의 지세는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고 해안산맥이 곳곳에 뻗고 있어서 암석해안이 많으며 그 사이에 모래밭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나 섬은 별로 없다. 암석해안은 대

4)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襄陽 柯坪里》 先史遺蹟發掘調査報告書
5) 白弘基, 1984.〈襄陽郡 柯坪里 住居址 發掘調査報告〉《遺蹟調査報告》第1輯, 江陵大學校 博物館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의 책
6) 任孝宰·權鶴洙, 1984.〈鰲山里遺蹟〉《서울대학교 考古人類學叢刊》제9책
7) 白弘基, 1984.〈江原 東海岸의 支石墓〉《考古美術》156, 한국미술사학회
8) 有光教一, 1938.〈朝鮮 江原道の 先史時代遺物〉《考古學雜誌》28-11 p. 725.
9) 襄陽郡, 1990,《襄州誌》p.159.



〈그림 1〉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 위치도



〈그림 2〉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 주변 선사유적 분포도

개 해안단구 또는 海蝕崖로 되고 沙濱海岸은 화강암 편마암지대에서 운반퇴적된 모래밭이다. 양양군의 총면적은 662.85㎢인데, 그 중 전답이 66.14㎢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야로 산악지대로 되어 있으며 지형은 西高東底形으로 평지는 해안가나 계곡사이의 협소한 평지뿐이다.[9]

양양지방은 대체로 해양성 기후에 속하고 있어 연평균 기온 12°로서 寒暑의 차가 적어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태백산맥에 의한 훤(fouhn)현상으로 연중 60%에 해당하는 남서풍은 그 풍세가 우리나라에 있어 3~4위로 강하여 이른바 襄江之風 이란 말까지 생겼다. 강우량은 연중 약 1,2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지형적인 강우·강설로 晩秋에 출현하는 오호쯔쿠海氣團의 성쇠는 직접적으로 교통과 농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봄이 짧고 가을 기간이 길어서 대관령지대 보다는 약 1개월의 계절이 늦다.

양양군의 해안 평야지대와 내륙 산간지대에는 선사시대의 유적이 다수 분포하는데, 고고학적 조사는 손양면 도화리 구석기시대 유적[11], 오산리 신석기시대 유적[12], 가평리 신석기시대[13]·철기시대유적[14], 현남면 지경리 신석기·철기시대유적[15] 청동기시대유적으로는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양양 지리 유적[16]등이 발굴조사되었다.

한편 지표조사보고된 신석기시대유적으로는 양양읍 조산리유적, 손양면 송전리유적, 남양리유적, 현남면 하광정리유적 등이며[17]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강현면 강선리유적, 양양읍 사천리유적, 조산리유적, 손양면 수여리유적, 학포리유적, 기정리유적, 상양혈리유적등이며 지석묘유적은 양양읍 기정리 지석묘유적, 손양면 금강리 지석묘유적, 수여리 지석묘유적, 범부리 지석묘유적 등이 지표조사 보고되었다.[18] 철기시대유적으로는 양양읍 조산리유적, 손양면 송전리유적, 여운포리유적,

---

10) 襄陽郡, 1990. 앞의 책 p.p. 164~165.

11) 이선복, 1989.《동북아시아 구석기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2) 白弘基, 1978.〈襄陽郡 鰲山里 櫛文土器 遺蹟〉《考古美術》138·139.
任孝宰·權鶴洙, 1984.《鰲山里 遺蹟》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第九册, 서울 大學校 博物館.

13)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襄陽 柯坪里》先史遺蹟發掘調査報告書

14) 白弘基, 1984,《襄陽郡 柯坪里 住居址 發掘調査報告(Ⅰ)》江陵大 博物館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의 책

15) 지경리 신석기유적은 주문진-인구간 7번국도 확장공사구간에서 확인되어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95년 7월부터 96년 1월까지 약 6개월간 조사를 하여 신석기시대 주거지 10개소, 철기시대 주거지 7개소를 발굴하였다.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6,〈주문진-인구간 7번국도 확장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16)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1,《양양 지리주거지》

17) 白弘基·池賢柄, 1994.〈襄陽郡의 先史考古遺蹟〉《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江陵大學校博物館

18) 白弘基, 池賢柄, 1991, 1992. 앞의 책.
白弘基, 池賢柄, 1994.〈襄陽郡의 先史考古遺蹟〉《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江陵大學校博物館·江原道·襄陽郡

손양면 동호리유적[19] 등이다

역사시대 유적으로는 포월리유적에서 북동쪽으로 약 2.5km 거리에 동해신묘[20]가 위치하고, 조산리에는 신라시대 고분군[21]이 존재하며, 이 고분군 남쪽으로 대포성지[22]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북편으로 약 1.6km 지점에는 낙산사와 오봉산성(낙산산성)[23]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손양면 학포리 고려시대 고분군유적[24], 현남면 원포리 고분군유적[25], 후포매리 고분군유적[26] 등이 조사보고 되었다.

이와 같이 양양지역은 한반도의 동북지방과 동남지방의 중간에 위치하고, 북한강 상류와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선사문화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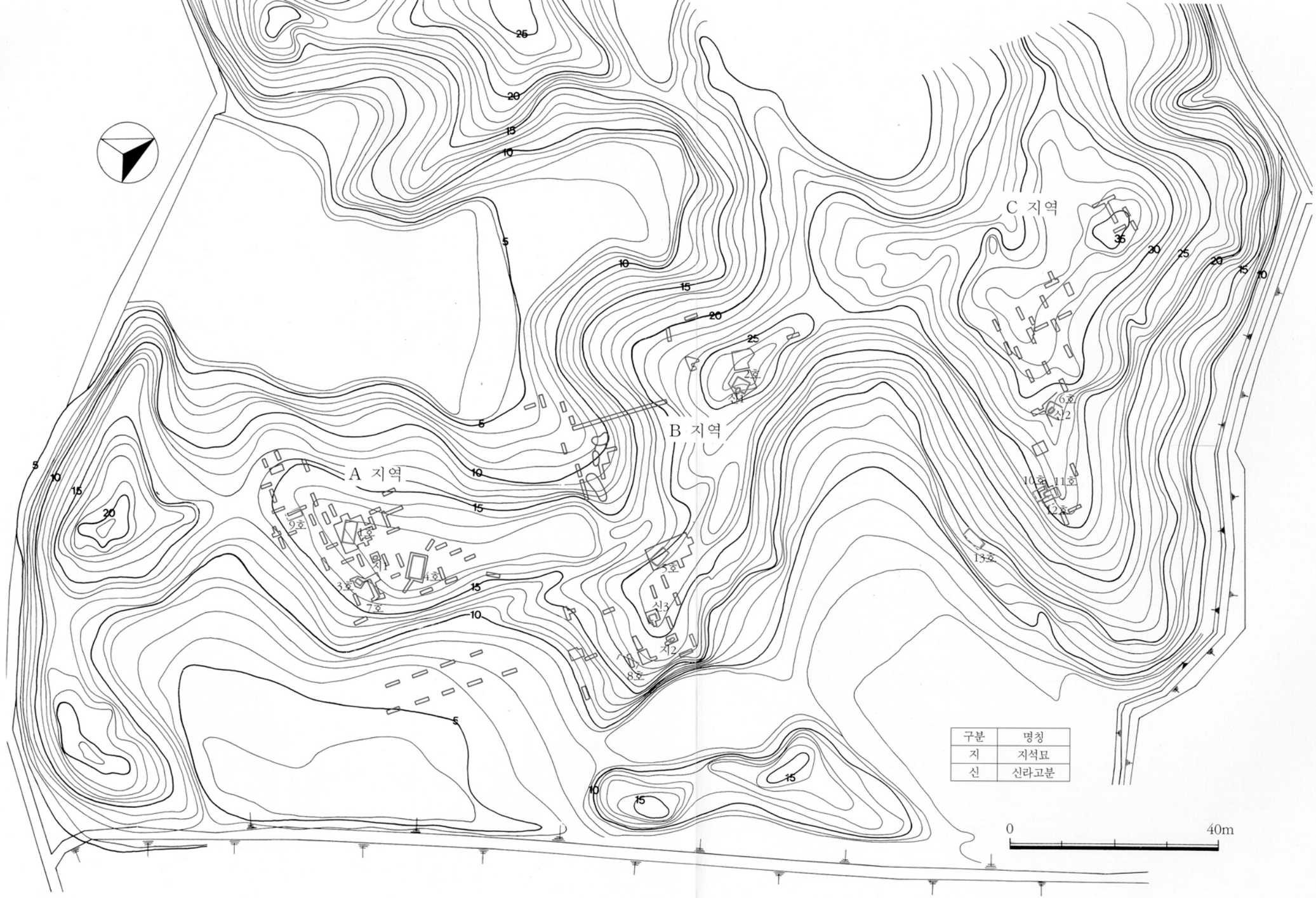
Ⅳ. 調査方法 및 調査內容

포월리 농공단지 지정구역은 東 - 西로 길게 뻗은 구릉지대로 위치적으로 서편에 위치한 구릉을 A지역, 중앙에 위치한 구릉을 B지역, 그리고 동편에 위치한 구릉을 C지역으로 구분하고 전 지역에 10m × 10m 크기의 방안을 설정한 다음 길이 8m × 폭 1m 크기의 시굴 탐색조사갱을 넣어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동 지역에는 많은 양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수목에 대한 보상이 않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하여 소나무가 없는 곳을 찾아 길이 5m × 폭 1m 크기의 시굴 탐색조사갱을 넣어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3 , 사진 1-②〉

조사전 유적지는 공사에 앞서 실시된 소나무 굴채 작업으로 생긴 구덩이와 굴채된 소나무를 운송하기 위하여 중장비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A, B지역은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고, C지역은 거의 전 부분이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

19) 江陵大學校 博物館, 1996.《양양 국제공항 건설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 池賢柄 · 朴榮九, 1999.《襄陽 東海神廟》江陵大學校 博物館
21) 池賢柄 · 高東淳, 1994.〈襄陽郡의 歷史考古遺蹟〉《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22) 지현병 · 전유길, 1994.〈襄陽郡의 關防遺蹟〉《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23) 지현병 · 전유길, 1994. 앞의 책
24) 江陵大學校 博物館, 1996. 앞의 책
25)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3.〈강릉-양양간 7번국도 확장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6) 池賢柄 · 高東淳, 1994. 앞의 책



〈그림 3〉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조사 현황도

조사는 A지역부터 차례로 실시하여 C지역까지 거의 전지역에 대하여 시굴 탐색 조사갱을 넣어 조사한 결과 3개 지역 구릉 능선에서 예외 없이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유구가 노출되었고 고인돌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유구와 新羅時代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되어 편의상 먼저 노출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림 3〉

A지역에서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구는 모두 5基가 노출되었는데 그중 1基는 경사면에 위치하여 장기간 지표에 노출된 관계로 일부 흔적만 남아 있어 시굴조사에서는 제외 시켰으나 그후 5基 모두 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인돌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유구 1基가 노출되어 시굴조사에서는 유구 상면만 노출시켰으나 그후 수습조사에서 마무리 지었다.

B지역은 A. C지역의 중간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구릉으로 도로개설로 인하여 허리가 잘린 형태이다. B지역의 북편 구릉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2基 중 1基는 완전히 파괴되어 바닥 흔적만 남아 있고 1基(2호 주거지)는 이 주거지 상면에서 新羅時代 무덤으로 보이는 유구 1基가 노출되었고 남편 구릉에서는 주거지 2基 중 1基는 어깨선 윤곽까지, 나머지 1基는 일부만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 조사에서 완전히 마무리 지었고 고인돌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유구 1基와 方形무덤 1基도 완전히 발굴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C지역은 동편에 위치하여 구릉의 정상부는 이미 중장비로 삭평 되어 노출된 유구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유구는 능선을 따라 남-북으로 줄지어 5基가 노출되었으나 그중 4基는 완전히 파괴되어 일부 형태만 남아 있고 나머지 1基 또한 남쪽 어깨선과 고인돌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유구 설치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결실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발굴조사에서 노출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A지역에서 5基, B지역에서 4基 중 1기는 흔적만 남아 있고, C지역에서 5基가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주거지 유구는 13基가 노출되어 모두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고인돌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유구 2基와 新羅時代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구 2개소 方形의 돌방무덤 1개소는 연장발굴조사에서 완료하였다. 발굴조사에서 노출된 유구와 유물은 다음과 같다.

1. 無文土器時代 住居址

1) 層位

포월리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노출된 A · B · C구릉은 동-서로 길게 뻗은 구릉지대로 남 · 북쪽

면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구릉의 능선부는 곳곳에 소나무 굴채작업으로 생긴 구덩이와 굴채된 소나무를 운송하기 위하여 중장비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A, B지역은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고 C지역은 거의 전부분이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일부 주거지는 서쪽면과 남쪽면의 깎여나간 부분에서 주거지의 어깨선이 결실된 채 바닥이 바로 노출되고 있다.

주거지의 어깨선은 제 I 층인 표토층(두께 약 15-20cm)을 걷어내자 곧 바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의 어깨가 현재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부에 퇴적된 제II층인 암갈색 부식토층은 두께 약 10~20cm의 두께로 비교적 단순하고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고 무문토기편과 석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제III층은 흑갈색의 숯이 포함된 점토층으로 공열토기편, 무문토기편 및 석기 등이 출토되는 문화층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두께가 얇아지면서 주거지의 바닥과 연결되고 있다.

2) 遺構와 遺物

(1) 1호 住居址 (그림 4, 사진 2~7-①)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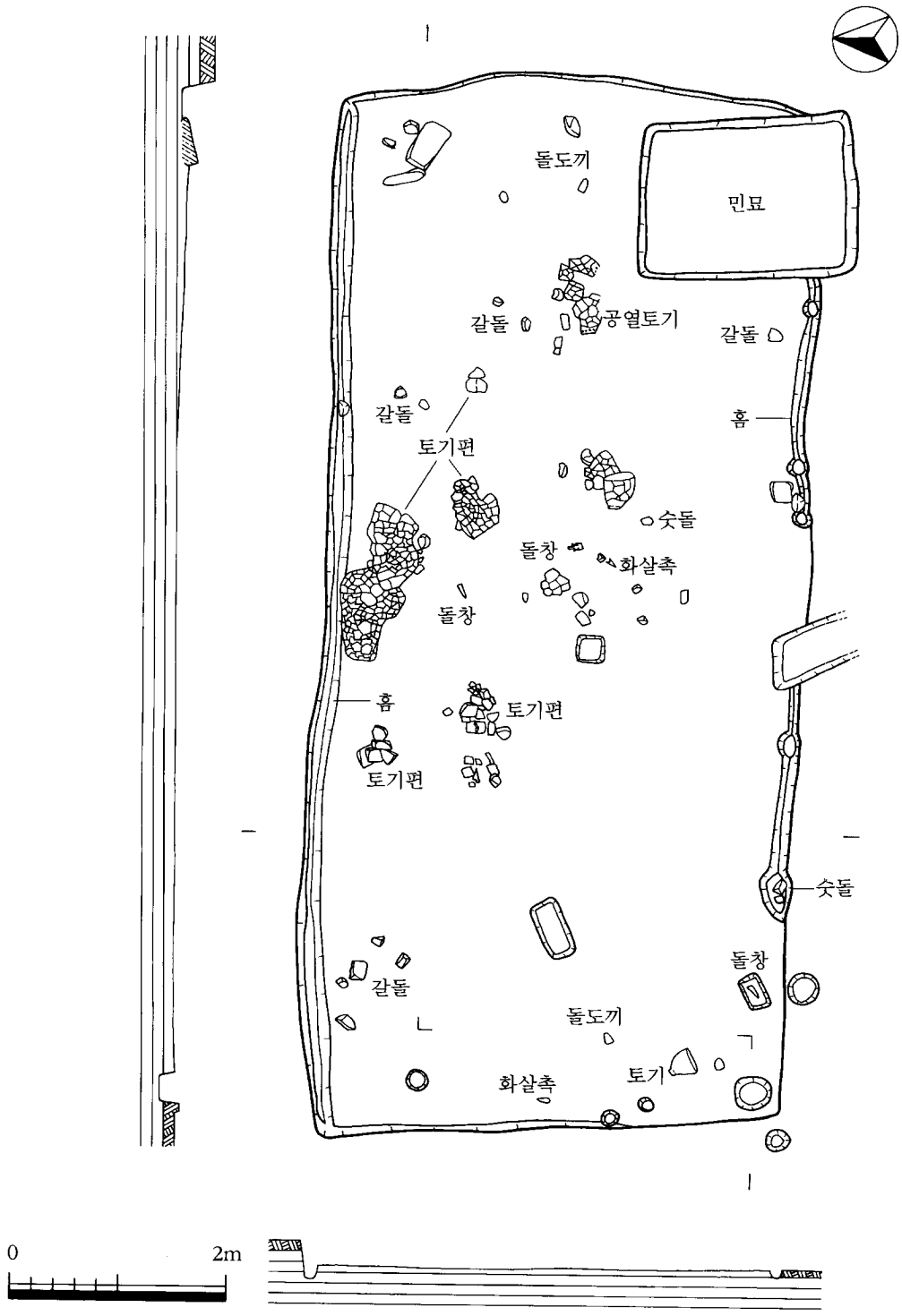
A지역의 능선 상에서 맨 처음으로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구덩이(竪穴)는 풍화 암반층을 파고 설치됐고 평면형태는 長方形으로 北西 - 東南(북 →서 50°)방향이다.

주거지의 어깨선은 북서쪽은 현 지표 하 20cm 깊이에서 나왔고 동남쪽은 약 5cm 깊이에서 노출되었으며 규모는 북서 - 동남의 길이가 9.6m, 폭 4.3m, 수혈 깊이 34cm 이고 면적은 41m²(약 12평)이다.

주거지의 바닥은 약 2~3cm 두께로 고운 점토를 깔았고 북서쪽의 가장자리는 어깨밑에서 약간의 경사를 이루면서 바닥과 접하고 있어 주거지의 출입구로 추정되며 동남쪽에는 근래의 민묘 설치로 인하여 모서리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주거지의 동북편 어깨선 밑에는 폭 약 17cm, 깊이 약 15cm로 홈(溝)이 길게 파여져 있고 남서편 장벽 어깨선 밑에도 폭 12cm, 깊이 15cm로 홈(溝)이 파여져 기둥구멍과 서로 연결되고 기둥구멍은 어깨선 밑으로 약 1m 간격으로 직경 약 20cm, 깊이 약 15cm 정도로 비스듬히 구멍이 뚫려 있다.

화덕자리는 확인되지 않았고 무문토기와 공열토기가 주거지의 중앙 동북편에 치우쳐서 3개체분, 중앙에 2개체분, 동남편 중앙에 1개체, 북서편 모서리에서 무문토기(깊은 바리) 1개체분이 출토



〈그림 4〉 포월리 1호 주거지 실측도

되었다. 작업대로 보이는 돌이 남서편 어깨에 인접해서 1개, 북동편 모서리에서 1개가 나왔고 동편 모서리에서 갈판과 갈돌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숫돌 3점, 반월형석도편 2점, 석창 1점이 주거지의 남서편 어깨에서 북편으로 치우쳐서 나왔고 화살촉 3점과 석검 1점이 북서편 중앙에서 바닥보다 약 15~20cm 높이의 퇴적층에서 나왔다.

서편 모서리에서는 석검(일단병식) 1점이 바닥에서보다 약 15cm 높이의 퇴적층에서 나왔고 모서리에서 직경 30cm, 깊이 25cm 크기의 저장용 구덩이(貯藏穴)가 노출되었으며 석부 2점은 출입구로 추정되는 남동편 중앙에서 나왔다.

② 遺物

•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5-①, 사진 38-①)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구연부와 몸통의 일부만이 복원되었다. 구연부는 몸통에서부터 좁혀지면서 올라오다가 직립하였고,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토기의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외면의 목부분에는 누름자국이 남아 있고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이다. 외면은 황갈색과 흑갈색, 내면은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은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입지름 24cm 현존높이 11.3cm 기벽두께 0.9cm이다.

• 孔列土器 口緣部片 (그림 5-②, 사진 38-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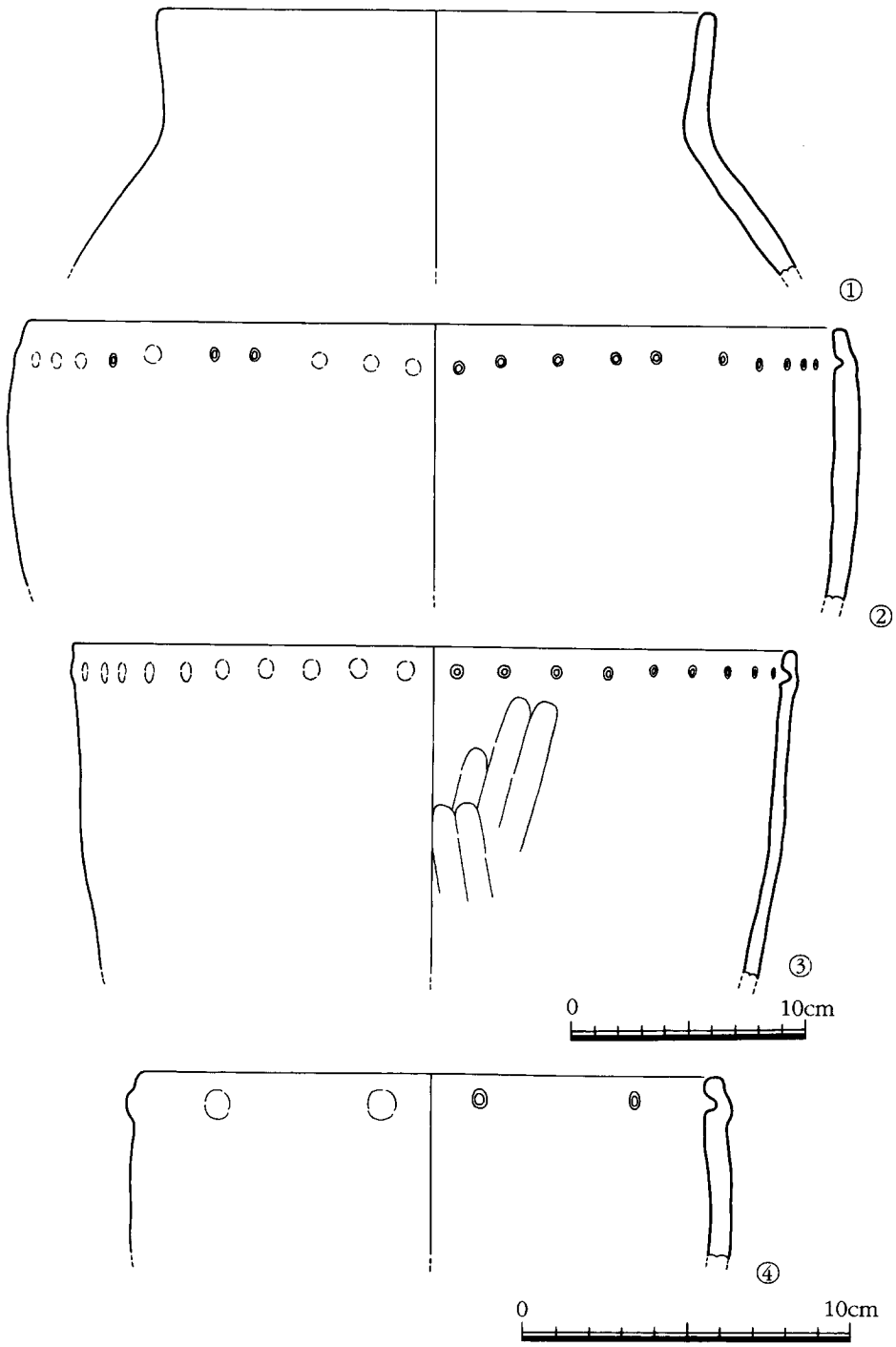
주거지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구연부와 몸통의 일부만 복원되었다. 구연부는 몸통에서 좁혀지다가 약간 내경한 형태이다. 토기의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고, 기벽은 두꺼운 편으로 비교적 두께가 일정한 편이며.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섞여 있다.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고, 구연부 1cm 밑에는 직경 0.6cm 크기의 구멍을 안에서 밖으로 연속적으로 뚫어 공열문을 장식하였으나 반관통된 상태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5cm 현존높이 20cm 기벽두께 1cm이다.

• 孔列土器 口緣部片 (그림 5-③, 사진 38-③)

주거지의 중앙에서 북동편으로 치우쳐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구연부와 몸통의 일부만이 복원되었다. 구연부는 몸통에서 바라지게 올라오다가 직립하였고,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구연부 바로 밑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으며, 구연부 0.8cm 밑에는 직경 0.6cm 크기의 공열문을 안에서 밖으로 뚫었는데 반관통된 상태이며 일부는 이탈된 상태이다.



〈그림 5〉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토기의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한 후 마연하였다. 소성은 양호하다. 기벽두께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외면은 황갈색, 내면은 흑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입지름 31cm 현존높이 16cm 기벽 두께 0.7cm이다.

• **孔列土器 口緣部片** (그림 5-④, 사진 38-④)

주거지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구연부의 일부분만이 복원되었다. 구연부는 몸통에서 곧게 올라오다가 짧게 외반한다. 토기의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고, 기벽 두께는 일정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고, 구연부 0.6cm 밑에는 직경 0.4cm 크기의 구멍을 안에서 밖으로 연속적으로 뚫어 공열문을 장식하였으나 반관통된 상태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5cm, 현존높이 6.7cm 기벽두께 0.7cm이다.

• **孔列土器 口緣部片** (그림 6-①, 사진 39-①)

주거지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구연부의 일부분만이 복원되었다. 구연부는 직립하였고, 토기의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다. 기벽 두께는 일정한 편이며,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고, 구연부 0.6cm 밑에는 직경 0.4cm 크기의 구멍을 안에서 밖으로 연속적으로 뚫어 공열문을 장식하였으나 관통된 상태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7cm 기벽두께 0.7cm이다.

•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6-②, 사진 39-②)

주거지의 중앙에서 북서편으로 치우쳐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구연부의 일부만이 복원되었다. 구연부는 몸통에서 좁혀져 목에서부터 바라지면서 올라오다가 직립하였고,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토기의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나 표면의 일부가 떨어져나갔다. 기벽두께는 아래로 갈수록 얇아지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은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2.4cm 현존높이 9cm 기벽두께 0.9cm이다.

•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6-③, 사진 39-③)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구연부의 일부만이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몸통에서 좁혀져 목에서부터 바라지게 올라오다가 짧게 외반하며, 입술면은 결실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

토기의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외면의 목부분에는 누름자국이 남아 있고 내면의 표면은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으로 황갈색을 띤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현존높이 6.6cm 기벽두께 0.9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6-④, 사진 39-④)

주거지의 북벽 중앙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한 무문토기 저부이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지며 손누름자국이 나 있고 납작밑 바닥에는 나뭇잎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을 하였고 내면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9.85cm 현존높이 10.5cm 바닥두께 1.1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6-⑤, 사진 39-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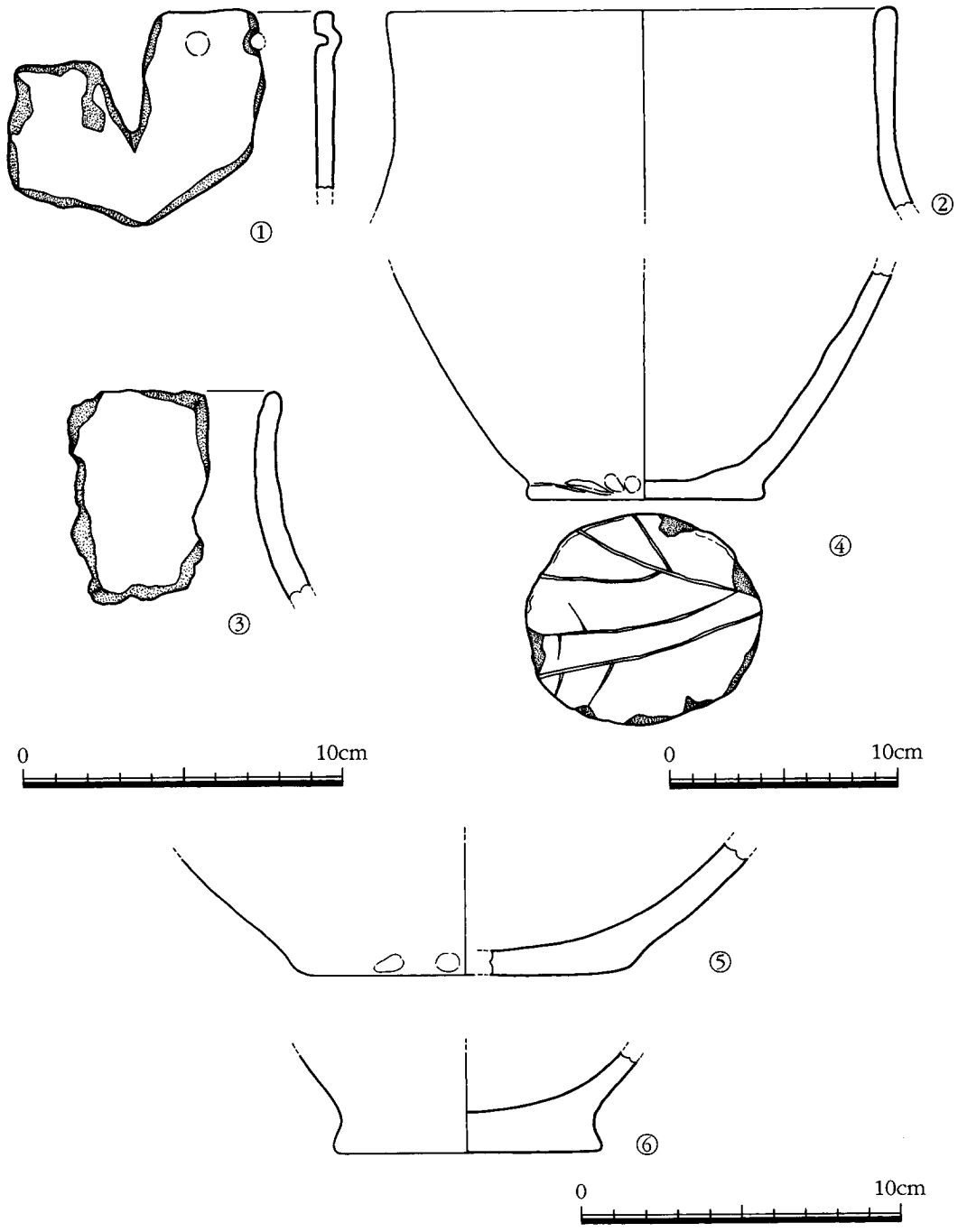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위의 저부편 남쪽에 인접하여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누름자국이 나 있다. 내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외면은 표면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토기는 연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10.7cm 현존높이 5.5cm 바닥두께 0.7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6-⑥, 사진 39-⑥)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나 있다. 내 · 외면은 표면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소성은 고르지 못하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은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8cm 현존높이 4.5cm 바닥두께 0.6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7-①, 사진 39-⑦)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저부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지며 손누름자국이 나 있고 납작밑 바닥에는 나뭇잎자국이 찍혀 있다.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을 하였고 내면에는 손누름자국과 판목구로 판목조정한 흔적이 남아 있고, 외면은 표면이 떨어져 나갔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9.8cm 현존높이 5.5cm 바닥두께 1.1cm이다.



〈그림 6〉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7-②, 사진 39-⑧)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나 있다. 내 · 외면은 표면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소성은 고르지 못하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9.2cm 현존높이 5cm 바닥두께 0.9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7-③, 사진 40-①)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저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바닥은 두꺼운 편이며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지며 손누름 자국이 나 있고 깎기 흔적이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을 하였고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8.9cm 현존높이 5.1cm 바닥두께 1.1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7-④, 사진 40-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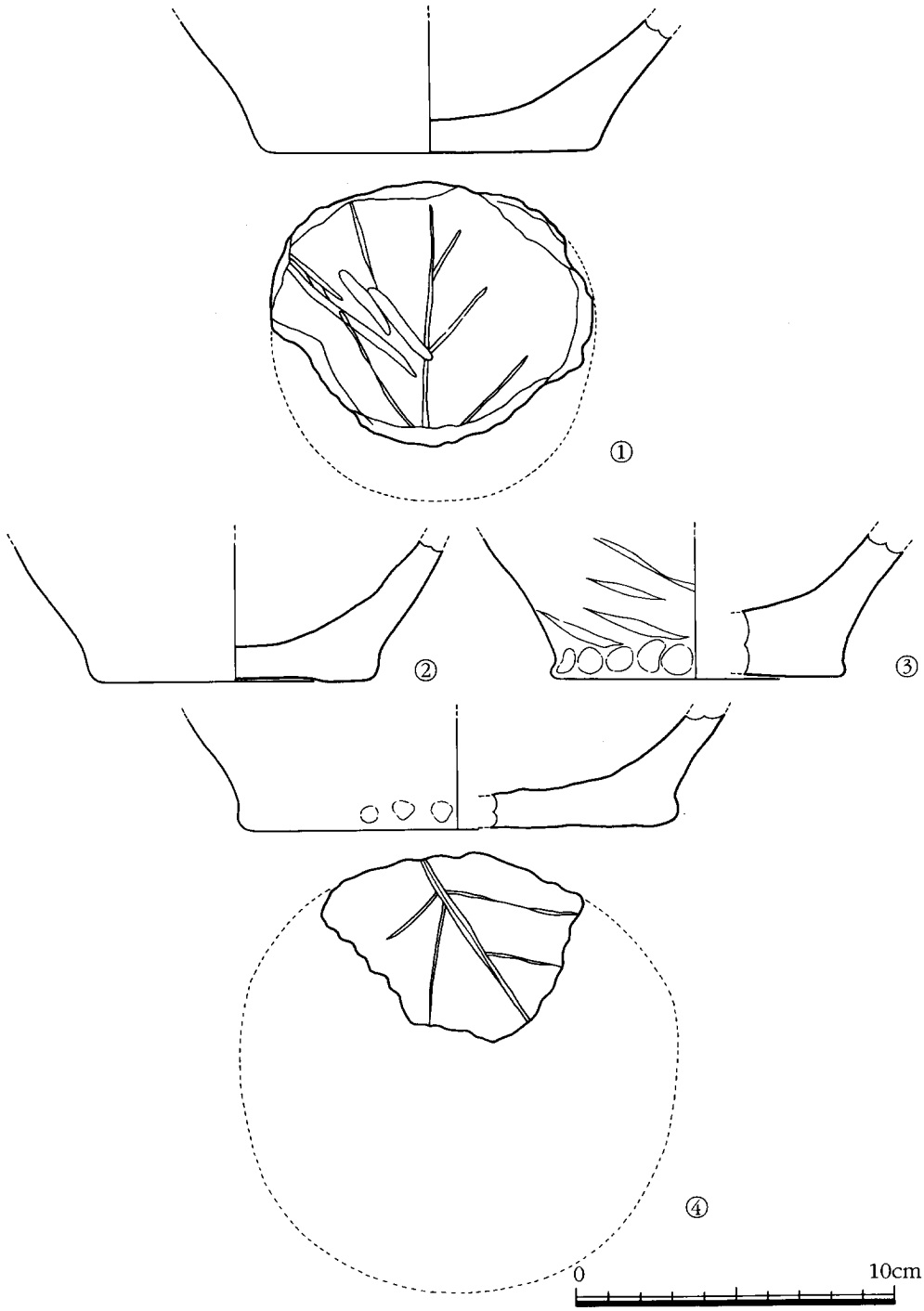
주거지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지며 손누름자국이 나 있고 납작밑 바닥에는 나뭇잎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을 하였고 내면은 표념이 떨어져 나갔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14.2cm 현존높이 3.7cm 바닥두께 1.4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8-①, 사진 40-③)

주거지의 북동쪽 모서리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바닥은 상당히 두꺼운 편이며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지며 손누름자국과 깎기 흔적이 나 있다.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을 하였고 내면은 표면이 떨어져 나갔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14.2cm 현존높이 4cm 바닥두께 1.6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8-②, 사진 40-④)

주거지의 중앙에서 대부분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나 있다. 내 · 외면은 표면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소성은 고르지 못하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13.2cm 바닥두께 2.1cm이다.



〈그림 7〉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8-③, 사진 40-⑤)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저부의 일부분만이 출토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나 있다. 내 · 외면은 표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소성은 고르지 못하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7.6cm, 현존높이 4.7cm 바닥두께 1.4cm이다.

• 石劍 片 (그림 8-④, 사진 40-⑥)

주거지의 서편 모서리 퇴적층에서 검신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검신의 단면은 편마름모꼴이고 병부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으며 중앙의 능을 중심으로 사선방향의 마연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 있다. 석질은 회색 셰일로 크기는 현존길이 14.4cm 폭 4.7cm 두께 0.8cm이다.

• 石劍 片 (그림 8-⑤, 사진 40-⑦)

주거지의 북서편 중앙 퇴적층에서 검신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검신은 좁고 긴 형태이며, 봉부부터 검신의 중앙에 능이 세워져 있으며 단면은 편마름모꼴이다. 양쪽 인부부분은 날이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석질은 천매암질암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13.7cm 폭 3.2cm 두께 1.1cm이다.

• 石劍 片 (그림 8-⑥, 사진 40-⑧)

주거지의 북서편 중앙 퇴적층에서 검신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석질은 천매암질암으로 검신은 좁고 긴 형태이며, 봉부의 중앙에 세워져 있던 능이 사라져서 검신 단면은 렌즈형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11.8cm 폭 3.2cm 두께 0.7cm이다.

• 石槍 片 (그림 8-⑦, 사진 40-⑨)

주거지의 남서편 어깨에서 북편으로 치우쳐서 출토되었다. 석질은 천매암질암의 유경식 석창으로 검신이 결실되었다. 검신의 중앙에 능이 세워져 있으며 하단부에 양쪽으로 홈을 만들었고 미늘 역자식으로 이단의 날개가 형성되었다. 단면은 렌즈형이고, 경부 단면은 장방형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10.2cm 폭 3.25cm 두께 0.9cm이다.

• 無莖式石鏃 (그림 8-⑧, 사진 41-①)

주거지의 서편 중앙 어깨선 밑에서 꼬리부분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버들잎 모양의 화살촉으로 단면 편육각형이다. 석질은 셰일로 촉의 꼬리가 길게 뻗어 있다. 꼬리부분의 중앙에는 살을 끼워서 고정할 수 있도록 약간 홈이 파여져 있다. 크기는 길이 6cm 폭 1.4cm 두께 0.4cm이다.

• 無莖式石鏃 (그림 8-⑨, 사진 41-②)

주거지의 중앙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버들잎 모양의 화살촉으로 단면 편육각형이다. 석질은 세일로 중앙에는 직경 0.3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촉의 꼬리가 길게 뻗어 있고, 꼬리부분의 중앙에는 살을 끼워서 고정할 수 있도록 약간 홈이 파여져 있다. 크기는 길이 5.4cm 폭 1.3cm 두께 0.3cm이다.

• 無莖式石鏃 (그림 8-⑩, 사진 41-③)

주거지의 북편 중앙 어깨선 밑에서 꼬리부분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버들잎 모양의 화살촉으로 단면 편육각형이다. 석질은 세일로 촉의 꼬리가 길게 뻗어 있다. 꼬리부분의 중앙에는 살을 끼워서 고정할 수 있도록 약간 홈이 파여져 있다. 크기는 길이 5.3cm 폭 1.6cm 두께 0.45cm이다.

• 無莖式石鏃 (그림 8-⑪, 사진 41-④)

주거지의 북서편 중앙 퇴적층에서 절반이상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버들잎 모양의 화살촉으로 단면 편육각형이며, 석질은 세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5.1cm 폭 1.1cm 두께 0.5cm이다.

• 有莖式石鏃 (그림 8-⑫, 사진 41-⑤)

주거지의 북서편 중앙 퇴적층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곳곳이 결실되었다. 촉신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고 종방향으로 마연해 인부를 형성하였다. 촉은 단면 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 있으며 슴베는 끝의일부가 결실되었다. 석질은 세일로 크기는 현존길이 8.1cm 폭 1.5cm 두께 0.7cm이다.

• 有莖式石鏃 (그림 8-⑬, 사진 41-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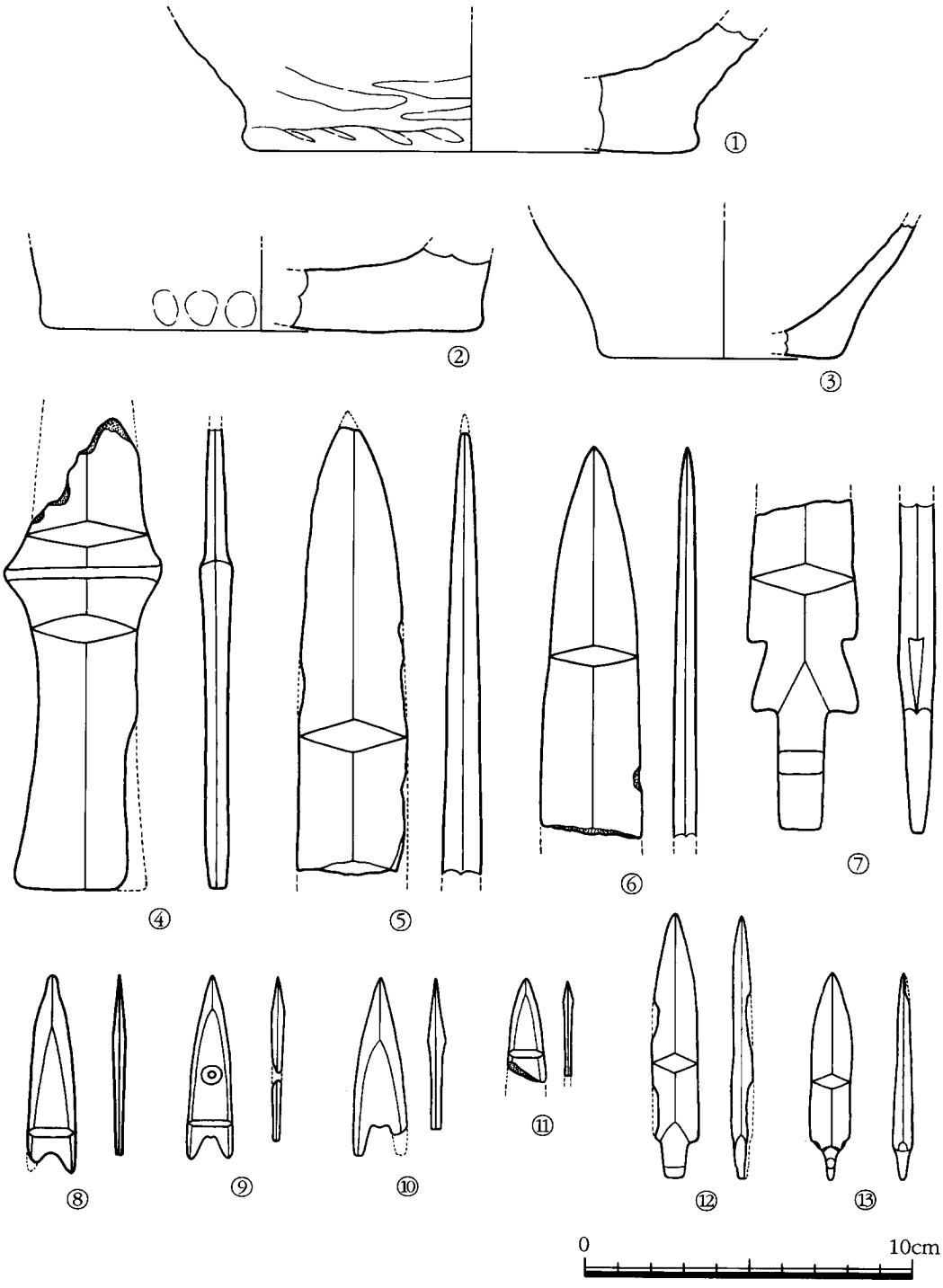
주거지의 북서편 중앙 퇴적층에서 위의 화살촉과 함께 출토되었다. 촉신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고 하단부는 축약되어 단을 이룬다. 촉은 단면 마름모꼴로 날은 무딘편이며 슴베의 단면은 원형이다. 석질은 암회색의 천매암질암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6.15cm 폭 1.3cm 두께 0.6cm이다.

• 半月形石刀 片 (그림 9-①, 사진 41-⑦)

주거지의 남서편 어깨에서 북편으로 치우쳐서 양쪽으로 절반이상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直背彎刃의 형태로 날은 외쪽날이고 중앙에 직경 0.5cm 크기의 구멍을 양쪽에서 뚫었고 석질은 세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5.9cm 폭 4.9cm 두께 0.5cm이다.

• 半月形石刀 片 (그림 9-② , 사진 41-⑧)

주거지의 남서편 어깨에서 북편으로 치우쳐서 위의 반월형석도와 함께 출토되었다. 절반이상이



〈그림 8〉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결실되었고 直背彎刃의 형태이다. 날은 외쪽날로 거칠고 무딘편이며 일부가 결실되었다. 중앙에는 직경 0.5cm 크기의 구멍을 양쪽에서 뚫었고, 석질은 녹회색의 천매암질암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9.7cm 폭 4.5cm 두께 0.6cm이다.

• 대패날조각 (그림 9-③, 사진 41-⑨)

주거지의 중앙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대패날 조각으로 인부는 외쪽날로 착신의 배부는 외반되었다. 석질은 셰일로, 크기는 현존길이 2.5cm 폭 3cm 두께 0.5cm이다.

• 대패날조각 (그림 9-④, 사진 41-⑩)

주거지의 중앙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대패날 조각으로 인부는 외쪽날로 단면은 장방형이다. 석질은 셰일로, 크기는 현존길이 5.7cm 폭 2.9cm 두께 0.6cm이다.

• 대패날조각 (그림 9-⑤, 사진 41-⑪)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일부분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돌대패의 날의 일부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석 그대로이며, 석질은 셰일이다. 크기는 길이 5.6cm 폭 4.3cm 두께 0.9cm이다.

• 石斧 (그림 9-⑥, 사진 42-①)

주거지의 남동편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소형 돌도끼로 날은 양쪽에서 갈은 조갯날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크기는 길이 8.6cm 폭 4.4cm 두께 2.8cm이다.

• 石斧 (그림 9-⑦, 사진 42-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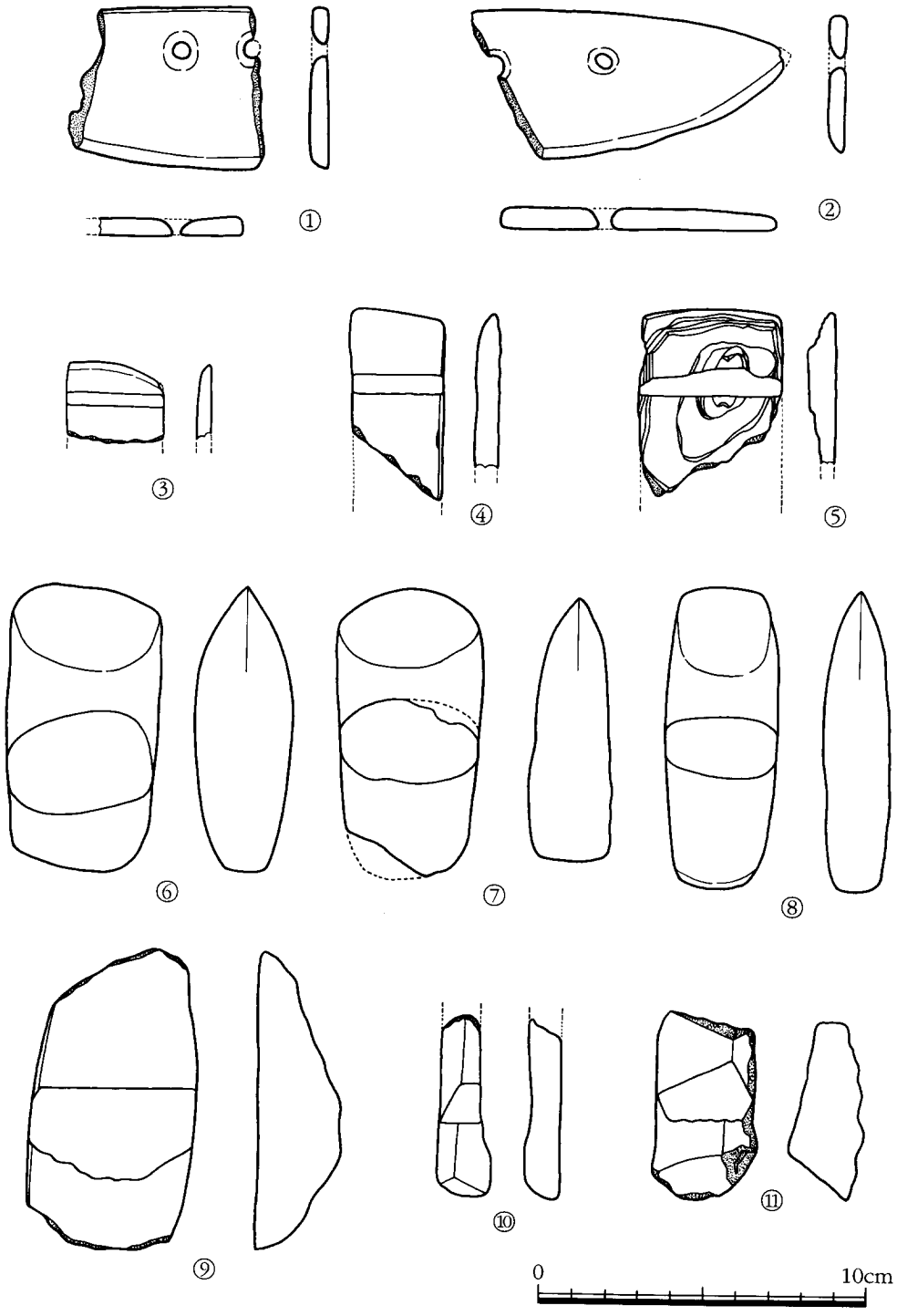
주거지의 남동편 중앙에서 위의 돌도끼와 함께 출토되었다. 장타원형의 냇돌의 넓은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고,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크기는 길이 9cm 폭 4.2cm 두께 2.7cm이다.

• 石斧 (그림 9-⑧, 사진 42-③)

주거지의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좁고 긴 냇돌의 한쪽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날을 세운 조갯날로 석질은 화강암제이다. 크기는 길이 9.3cm 폭 3.5cm 두께 2cm이다.

• 砥石 片 (그림 9-⑨, 사진 42-④)

주거지의 남서편 어깨에서 북편으로 치우쳐서 2조각으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단면 직사각형으로, 석질은 산성암맥으로 밑면과 양측면이 곱게 갈려 있다. 크기는 길이 9.2cm 폭 5cm 두께 2.9cm이다.



〈그림 9〉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砥石 片 (그림 9-⑩, 사진 42-⑤)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단면 직사각형으로 좁고 길며 사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질 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5.5cm 폭 1.5cm 두께1.5cm이다.

• 砥石 片 (그림 9-⑪, 사진 42-⑥)

주거지의 중앙에서 북편으로 치우쳐서 출토되었다. 지석으로 2면만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산성 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5.8cm 폭 2.8cm 두께 2.1cm이다.

• 砥石 片 (그림 10-①, 사진 42-⑦)

주거지의 북동편 어깨밑에서 출토된 지석이다. 자연석의 한면만이 곱게 갈려 움푹하게 들어 갔다. 석질은 산성 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8.3cm 폭 5.2cm 두께 5.8cm이다.

• 砥石 片 (그림 10-②, 사진 42-⑧)

주거지의 북동편 어깨밑에서 위의 숫돌과 함께 출토되었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으로 한면만이 곱게 갈려 있다. 크기는 현존길이 10.2cm 폭 6.3cm 두께 7.1cm이다.

• 砥石 片 (그림 10-③, 사진 42-⑨)

주거지의 북서편 어깨밑에서 출토된 숫돌이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으로 한면만이 곱게 갈려 있다. 크기는 현존길이 10.2cm 폭 6.8cm 두께 6.2cm이다.

• 碾石 片 (그림 10-④, 사진 42-⑩)

주거지의 중앙에서 출토된 연석이다. 자연석의 한면만이 곱게 갈려 움푹하게 들어 갔다. 석질은 백운모 화강암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14.9cm 폭 14.1cm 두께 5.1cm이다.

• 碾石 片 (그림 10-⑤, 사진 43-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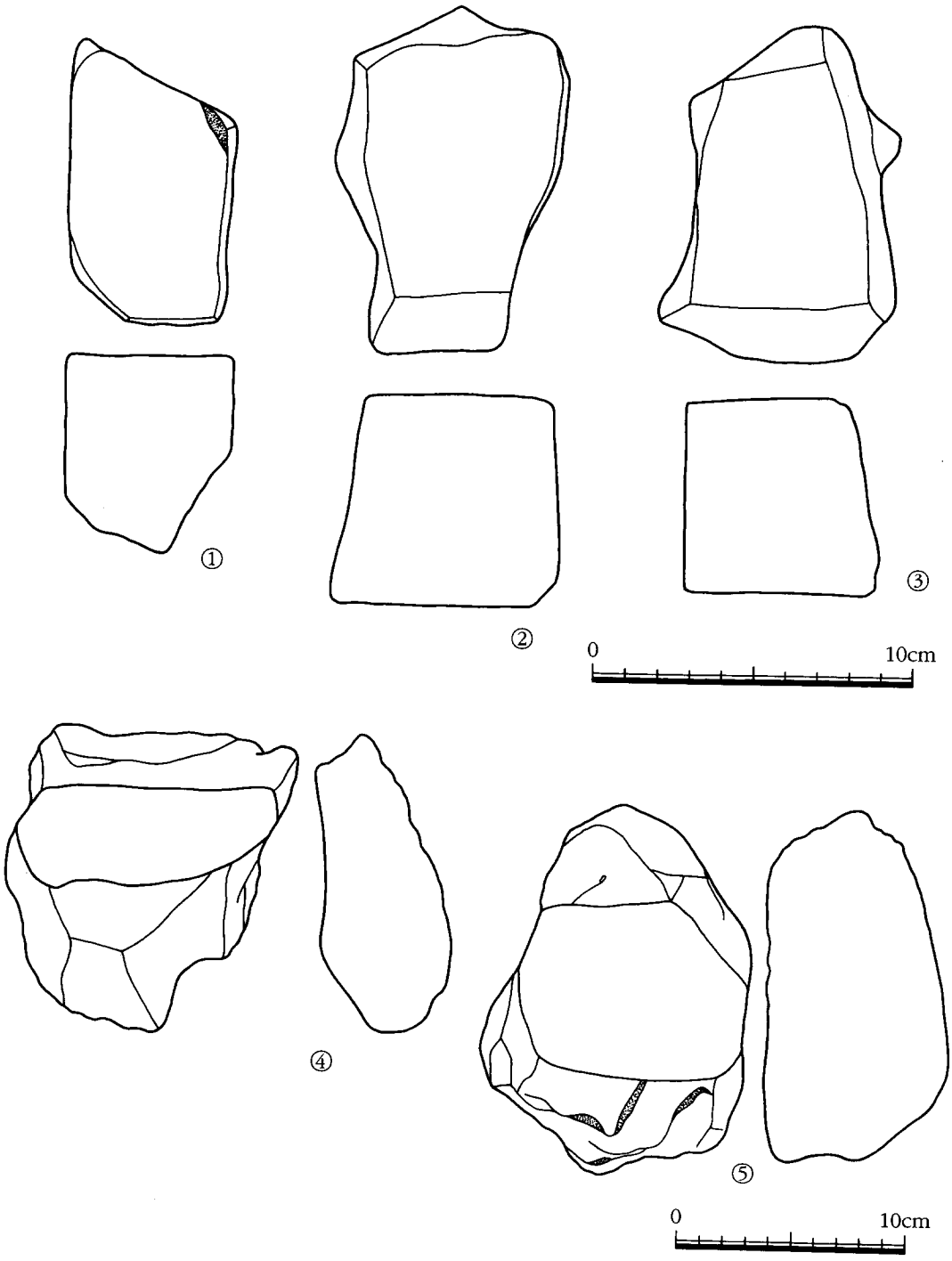
주거지의 북서편 어깨밑에서 출토된 연석이다. 석질은 우백질 화강암으로 상면이 곱게 갈려 있다 크기는 현존길이 20.5cm 폭 10.3cm 두께 5.5cm이다.

• 碾石 (그림 11-①, 사진 43-②)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출토된 조각이다. 납작한 냇돌의 위 · 아래면이 곱게 갈려 움푹하게 들어 갔다. 석질은 우백질 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20cm 폭 17cm 두께 5.2cm이다.

• 碾石 (그림 11-②, 사진 43-③)

주거지의 북서편 어깨밑에서 출토된 연석이다. 사각형의 납작한 냇돌의 위 · 아래면이 곱게 갈려 있고 한쪽면은 움푹하게 들어 갔다. 석질은 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25cm 폭 23.5cm 두께 5.2cm이다.



〈그림 10〉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礪石 (그림 11-③, 사진 43-④)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출토된 갈돌이다. 장타원형 냇돌의 위 · 아래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14.2cm 폭 7.9cm 두께 6.2cm이다.

• 石棒 (그림 11-④, 사진 43-⑤)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된 석봉이다. 둥글고 납작한 냇돌의 한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장석반암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11cm 폭 7.8cm 두께 3.8cm이다.

• 石棒 (그림 11-⑤, 사진 43-⑥)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출토된 석봉조각이다. 둥글고 납작한 냇돌의 위 · 아래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산성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11.4cm 폭 7.6cm 두께 3.7cm이다.

• 石棒 (그림 12-①, 사진 44-①)

주거지의 중앙에서 출토된 석봉이다. 타원형의 냇돌의 한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산성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8.8cm 폭 5.9cm 두께 4.5cm이다.

• 石棒 (그림 12-②, 사진 44-②)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양쪽면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둥글고 긴 냇돌의 아래면이 납작하게 갈려 있다. 석질은 산성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11.8cm 폭 8.9cm 두께 3.9cm이다.

• 石棒 (그림 12-③, 사진 44-③)

주거지의 중앙에서 출토된 석봉이다. 단면 타원형이며, 석질은 석영반암으로 한면이 곱게 갈려 있다. 크기는 길이 14.6cm 폭 3.7cm 두께 3.9cm이다.

• 石棒 (그림 12-④, 사진 44-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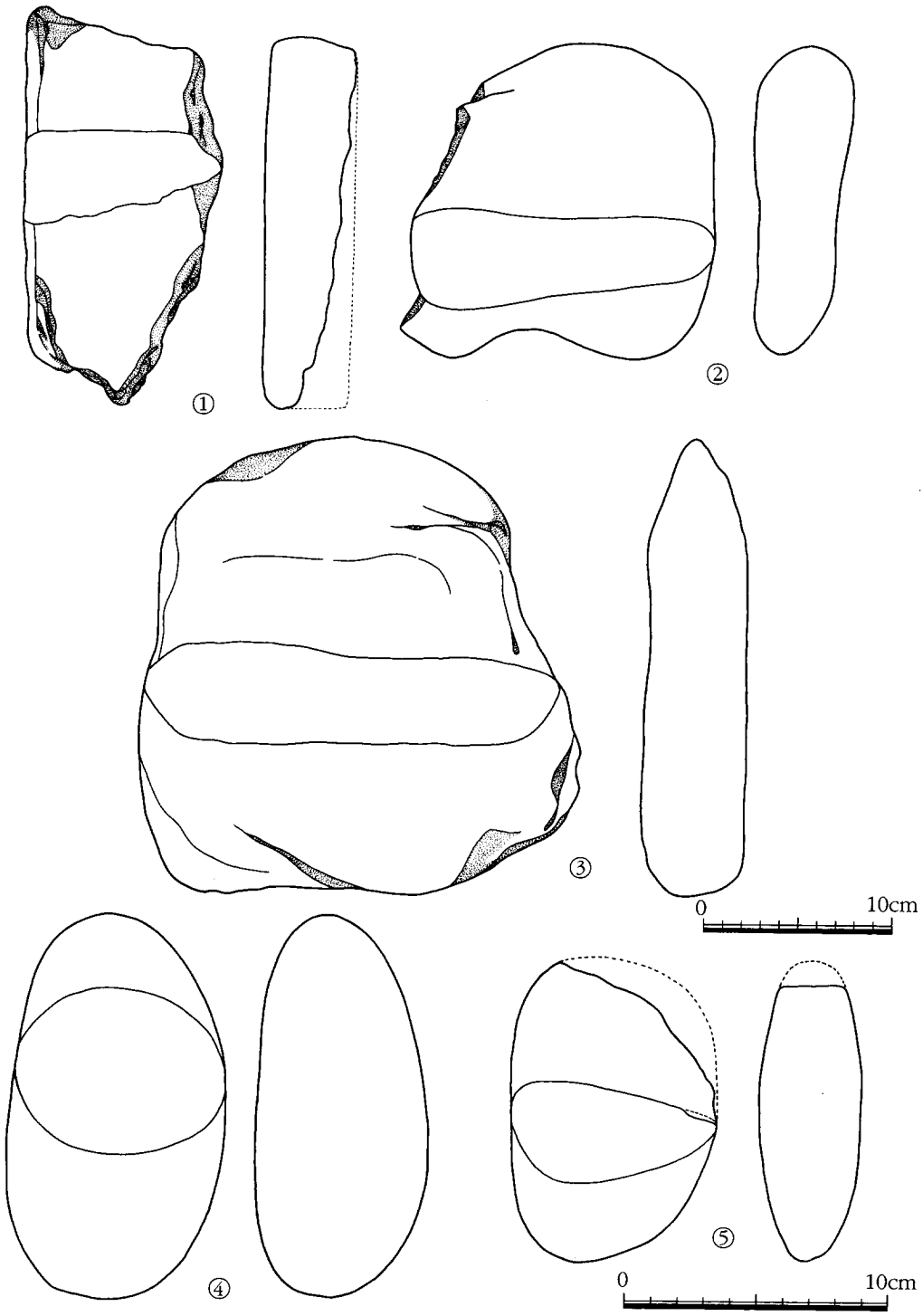
주거지의 중앙에서 출토된 석봉으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석질은 산성암맥으로 한면이 곱게 갈려 있다. 크기는 길이 11.2cm 폭 3.2cm 두께 3.2cm이다.

• 作業臺 (그림 12-⑤, 사진 44-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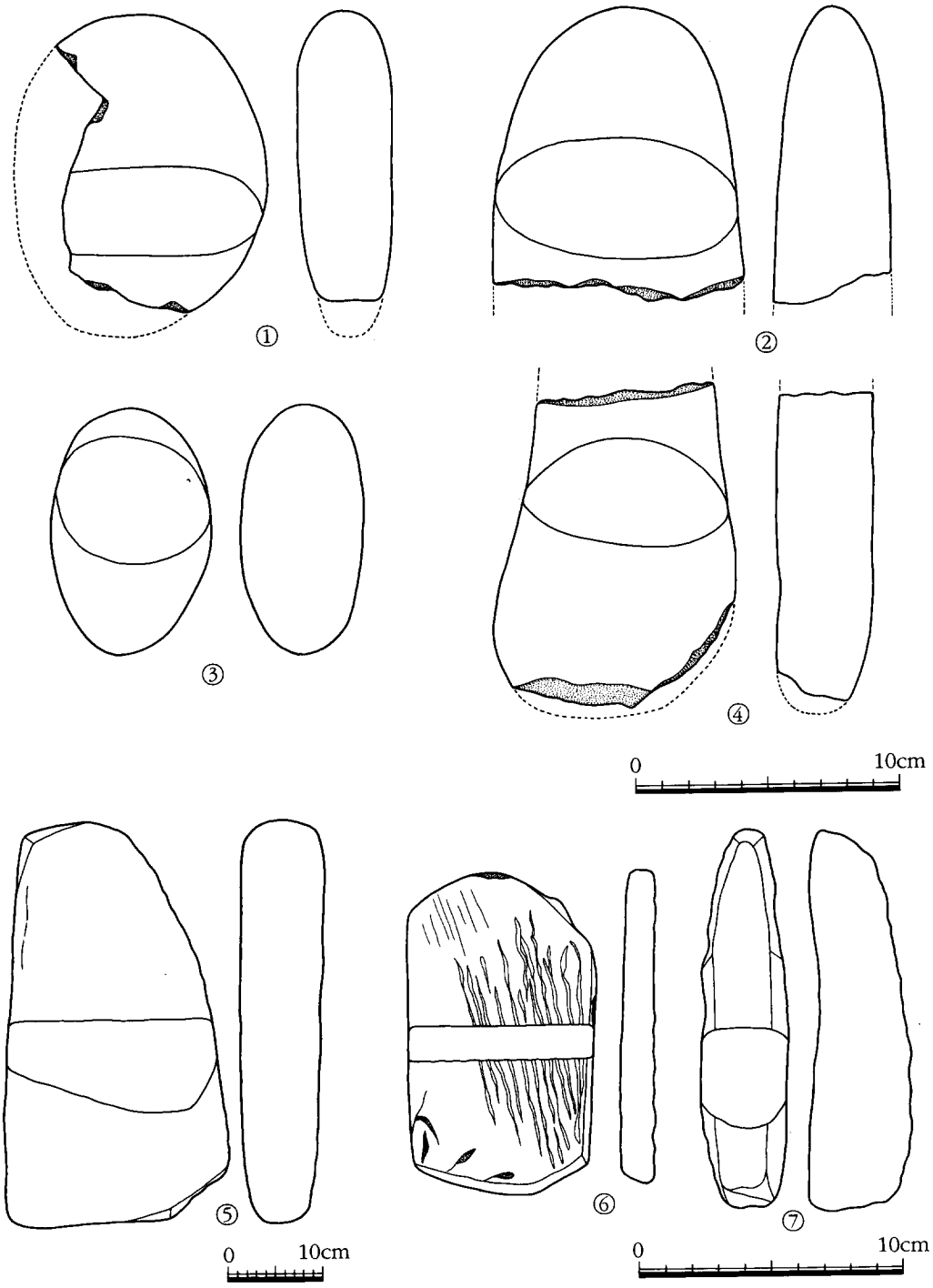
주거지의 남서편 어깨밑에서 출토된 작업대이다. 넓고 긴 흑운모 화강암제의 판석으로 상면은 곱게 갈려 있다. 크기는 길이 43.5cm 폭 525cm 두께 10cm이다.

• 作業臺 (그림 12-⑥, 사진 44-⑥)

주거지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넓고 납작한 천매암질암의 자연석으로 아래면



〈그림 11〉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12〉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과 한쪽모서리는 곱게 갈려 있다. 크기는 길이 12cm 폭 7cm 두께 1.4cm이다.

• 砥石 (그림 12-⑦, 사진 44-⑦)

주거지의 남서편 어깨 밑에서 출토된 지석이다. 단면 사각형의 불맞은 돌로 한쪽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반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43.5cm 폭 525cm 두께 10cm이다.

(2) 2호 住居址 (그림 13 , 사진 7-②~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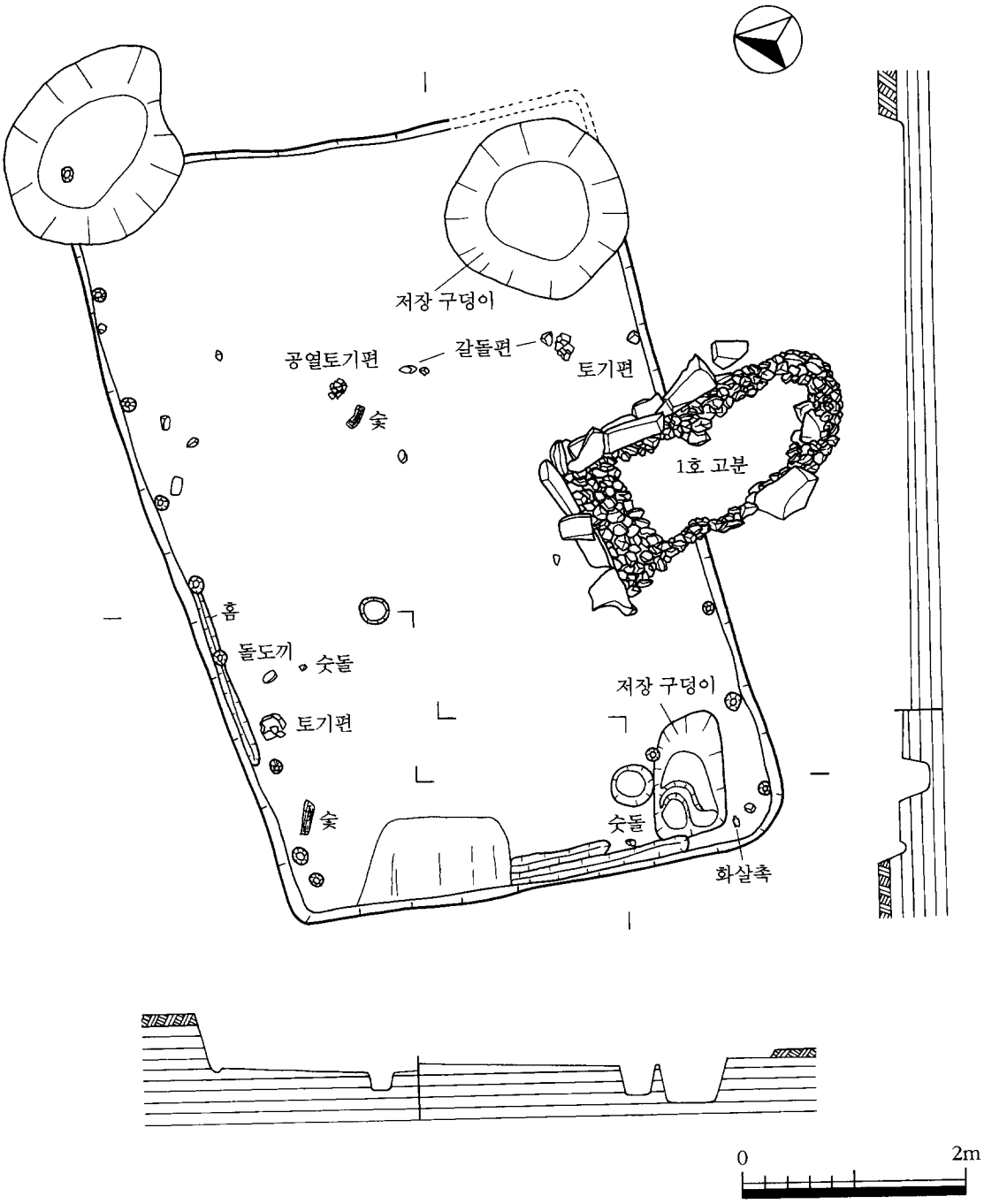
① 遺構

B지역의 북쪽 능선상에서 北東 - 南西방향(북 →동 54°)으로 향하여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어깨 윤곽선은 현지표하 20cm 깊이에서 나왔고 구덩이(竪穴)는 풍화암반층을 수직으로 파고 설치됐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長方形으로 북서-남서 길이 7.1m, 폭 4.4m이고 주거지 규모는 약 31m²(약 9평)이다. 수혈 깊이는 제일 깊은 곳이 북편으로 약 70cm정도로 깊으나 남편과 북동편은 어깨선이 주거지의 바닥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주거지 바닥에는 얇게 고운진흙의 燒土層이 마련되어 있고 출입구로 추정되는 남서쪽 어깨 밑으로는 폭 약 9~12cm, 깊이 약 7~10cm 크기로 이중으로 홈(溝)이 파여져 있고 북편의 어깨선밑 바닥에도 홈(溝)이 파여져 기둥구멍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둥구멍은 직경 약 16~20cm, 깊이 약 15cm 정도로 파여져 있고 기둥구멍 간격은 약 80cm정도이고 9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북동쪽 양 모서리는 소나무 굴채로 인하여 상당부분이 파괴되었고 중간지점 남편으로 新羅時代 1호 고분이 자리하고 있어 주거지의 약 1/3 이상이 파괴된 상태이나 전체 윤곽은 알 수 있다.

남서편의 남쪽 모서리에서 저장용 구덩이(貯藏穴)로 보이는 시설이 직경 32cm, 깊이 26cm로 마련되어 있고 바닥은 매우 단단하게 다져져 암반층 처럼 되어 있다. 이 저장용 구덩이(貯藏穴) 옆으로 또 하나의 저장용 구덩이(貯藏穴) 시설이 직경 62cm 크기로 바닥에는 단단한 암반층이 마련되어 있다. 2호 주거지는 대부분의 숯조각이 바닥 보다는 위층에서 출토되고 있어 폐기된 후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석부, 화살촉, 석창, 지석등이 출토되었다.



〈그림 13〉 포월리 2호 주거지 실측도

② 遺物

• 無文土器 (그림 14-① , 사진 45-①)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약 1/3 가량이 결실되었다. 배가 둥근 호형토기로 구연부는 몸통에서부터 바라지면서 올라오다가 오므라든 형태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토기의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외면의 목부분에는 누름자국이 남아 있고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이다. 몸통의 최대폭은 중간에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서서히 좁혀지면서 바닥과 연결된다.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은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나 일부는 불에 맞아 흑반된 상태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1.6cm 밑지름 9.7cm 높이 24cm 기벽두께 0.7cm이다.

• 孔列土器 口緣部片 (그림 14-②, 사진 45-②)

주거지의 중앙에서 북동편으로 구연부의 일부만이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직립하였고,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구연부 0.5cm 밑에는 직경 0.5cm 크기의 공열문을 안에서 밖으로 뚫었는데 반관통된 상태이다.

토기의 내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외면은 거친 편이다.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으로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외면은 황갈색, 내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8.2cm, 현존높이 7.1cm 기벽두께 0.6cm이다.

• 孔列土器 口緣部片 (그림 14-③, 사진 45-③)

주거지의 중앙에서 북동편으로 치우쳐 구연부의 일부분만이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몸통에서 바라지게 올라오다가 약간 오므라든 형태이며,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구연부 0.7cm 밑에는 직경 0.5cm 크기의 공열문을 연속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뚫었는데 반관통된 상태이다.

토기의 내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외면은 거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현존높이 4.3cm 기벽두께 0.8cm이다.

• 孔列土器 口緣部片 (그림 14-④, 사진 45-④)

주거지의 남동편 저장구덩이 옆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구연부는 몸통에서 바라지게 올라오다가 직립하였고,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구연부 0.5cm 밑에는 직경 0.5cm 크기의 공열문을 연속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뚫었는데 반관통된 상태이다.

토기의 내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과 흑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현존높이 3.5cm 기벽두께 0.8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14-⑤, 사진 45-⑤)

주거지의 중앙에서 남동쪽으로 치우쳐 저부의 일부분만이 남은 상태로 출토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두꺼운 편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나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6cm 현존높이 3.6cm 바닥두께 1.7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14-⑥, 사진 45-⑥)

주거지의 남동쪽 저장구덩이 옆에서 출토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나 있다.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내면은 표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소성은 고른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14cm, 현존높이 2.4cm 바닥두께 1.5cm이다.

• 石槍 片 (그림 15-① , 사진 45-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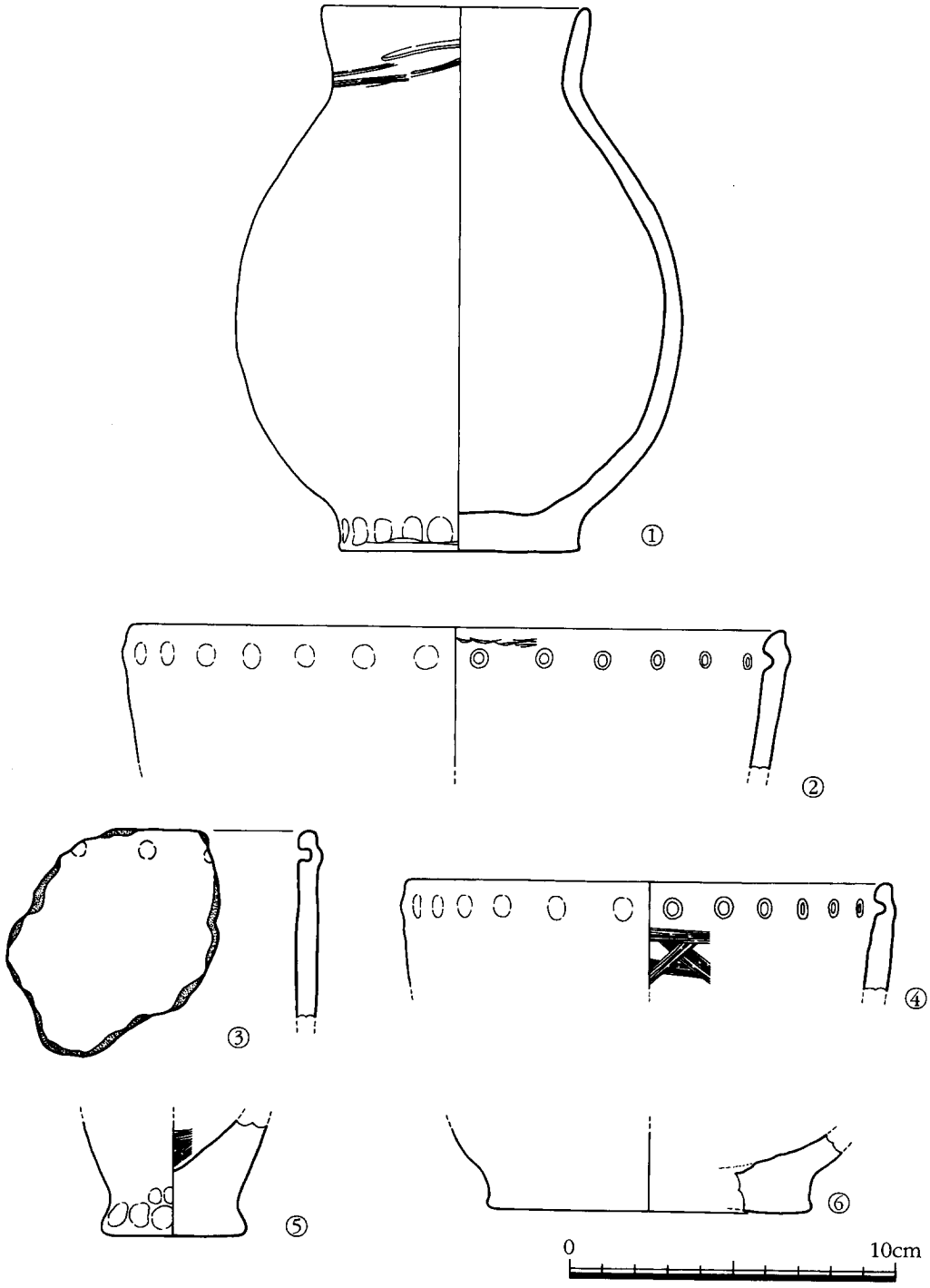
주거지의 남서편 모서리 저장구덩이 옆에서 창신의 절반가량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석질은 천매암질암으로 검신의 단면은 렌즈형이고 창신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으며 하단부에는 혈구가 새겨져 있다. 슴베의 단면은 장방형으로 끝부분 일부가 결실되었다. 크기는 현존 길이 8.4cm 폭 2.8cm 두께 0.7cm이다.

• 無莖式石鏃 (그림 15-②, 사진 46-①)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촉부분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버들잎 모양의 화살촉으로 단면 편육각형이다. 석질은 암회색 세일로 촉의 꼬리가 길게 뻗어 있다. 꼬리부분의 중앙에는 살을 끼워서 고정할 수 있도록 약간 홈이 파여져 있다. 크기는 길이 7.2cm 폭 1.4cm 두께 0.45cm이다.

• 無莖式石鏃 (그림 15-③, 사진 46-②)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버들잎 모양의 화살촉으로 단면 편육각형이다. 석질은 적색 세일로 촉의 꼬리가 길게 뻗어 있다. 촉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고 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되게 혈구가 새겨져 있다. 꼬리부분의 중앙에는 살을 끼워서 고정할 수 있도록 약간 홈이 파여져 있다. 크기는 길이 6.3cm 폭 1.5cm 두께 0.5cm이다.



〈그림 14〉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無莖式石鏃 (그림 15-④, 사진 46-③)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촉부분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버들잎 모양의 화살촉으로 단면 편육각형이다. 석질은 담회색 세일로 촉의 꼬리가 길게 뻗어 있다. 꼬리부분의 중앙에는 살을 끼워서 고정할 수 있도록 약간 홈이 파여져 있다. 크기는 길이 4.6cm 폭 1.3cm 두께 0.3cm이다.

• 石斧 (그림 15-⑤, 사진 46-④)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길고 둥근 냇돌의 날부분만을 양쪽에서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고, 석질은 석영맥이다. 크기는 길이 10.4cm 폭 4.5cm 두께 2.8cm이다.

• 石斧 (그림 15-⑥, 사진 46-⑤)

주거지의 남서편 중앙에서 약 $\frac{1}{3}$ 가량이 남은 상태로 출토되었다. 석질은 석영맥으로 냇돌을 양쪽에서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9cm 폭 4.2cm 두께 2.7cm이다.

• 砥石 (그림 15-⑦, 사진 46-⑥)

주거지의 남편 석곽 옆에서 출토되었다. 단면 직사각형으로 상면과 측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규장질 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8.2cm 폭 4.2cm 두께 4.2cm이다.

• 砥石 (그림 15-⑧, 사진 46-⑦)

주거지의 남서편 어깨밑에서 출토되었다. 밑면과 양측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규장질 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7.3cm 폭 3cm 두께 3cm이다.

• 砥石 (그림 15-⑨, 사진 46-⑧)

주거지의 북편에서 돌도끼와 인접해서 출토되었다. 소형 숫돌조각으로 밑면과 양측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규장질 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3.8cm 폭 2.9cm 두께 1.7cm이다.

• 碾石 片 (그림 16-①, 사진 46-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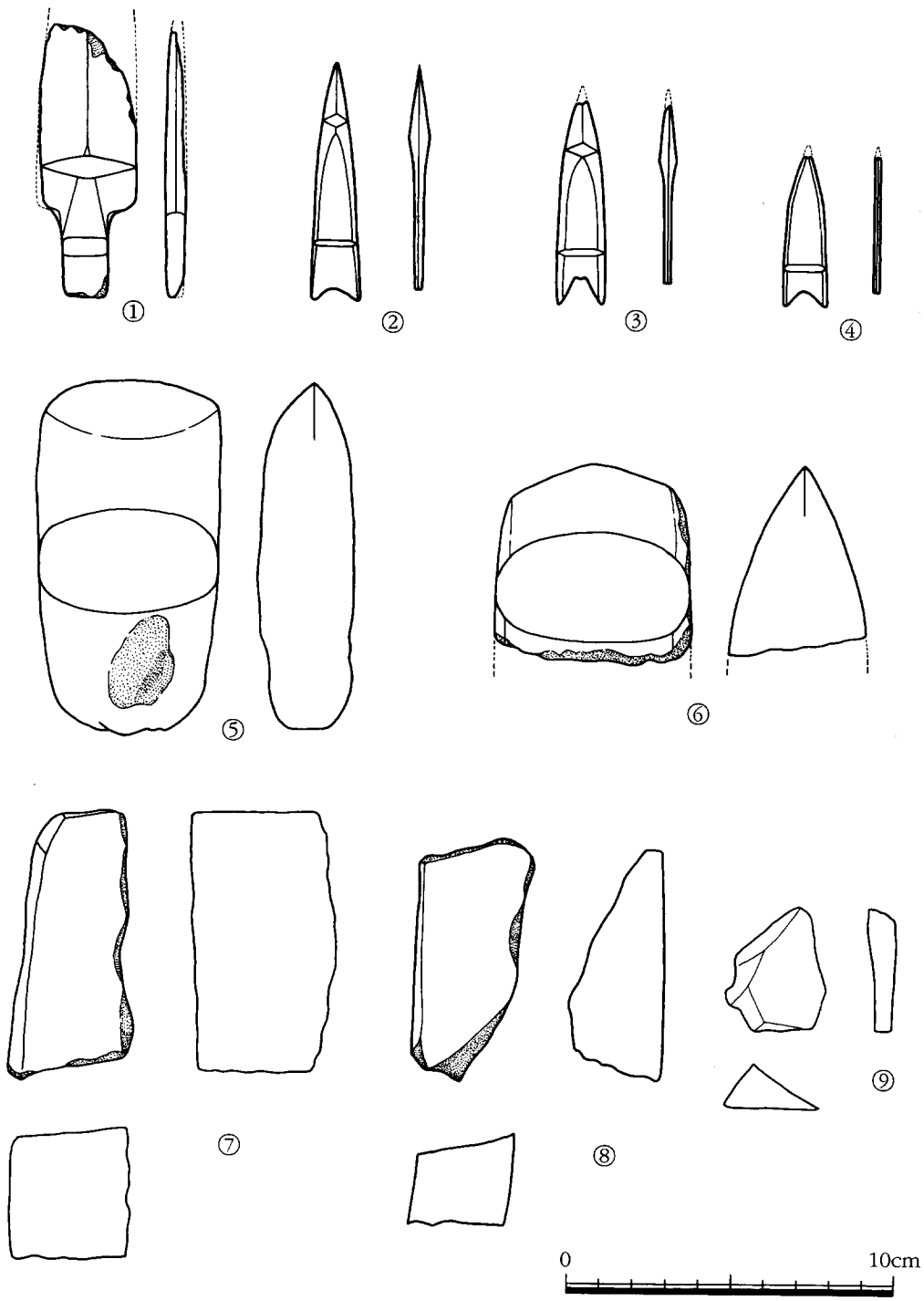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연석조각으로 위 · 아래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반화강암제로 크기는 길이 7.5cm 폭 7.6cm 두께 3.3cm이다.

• 碾石 片 (그림 16-②, 사진 47-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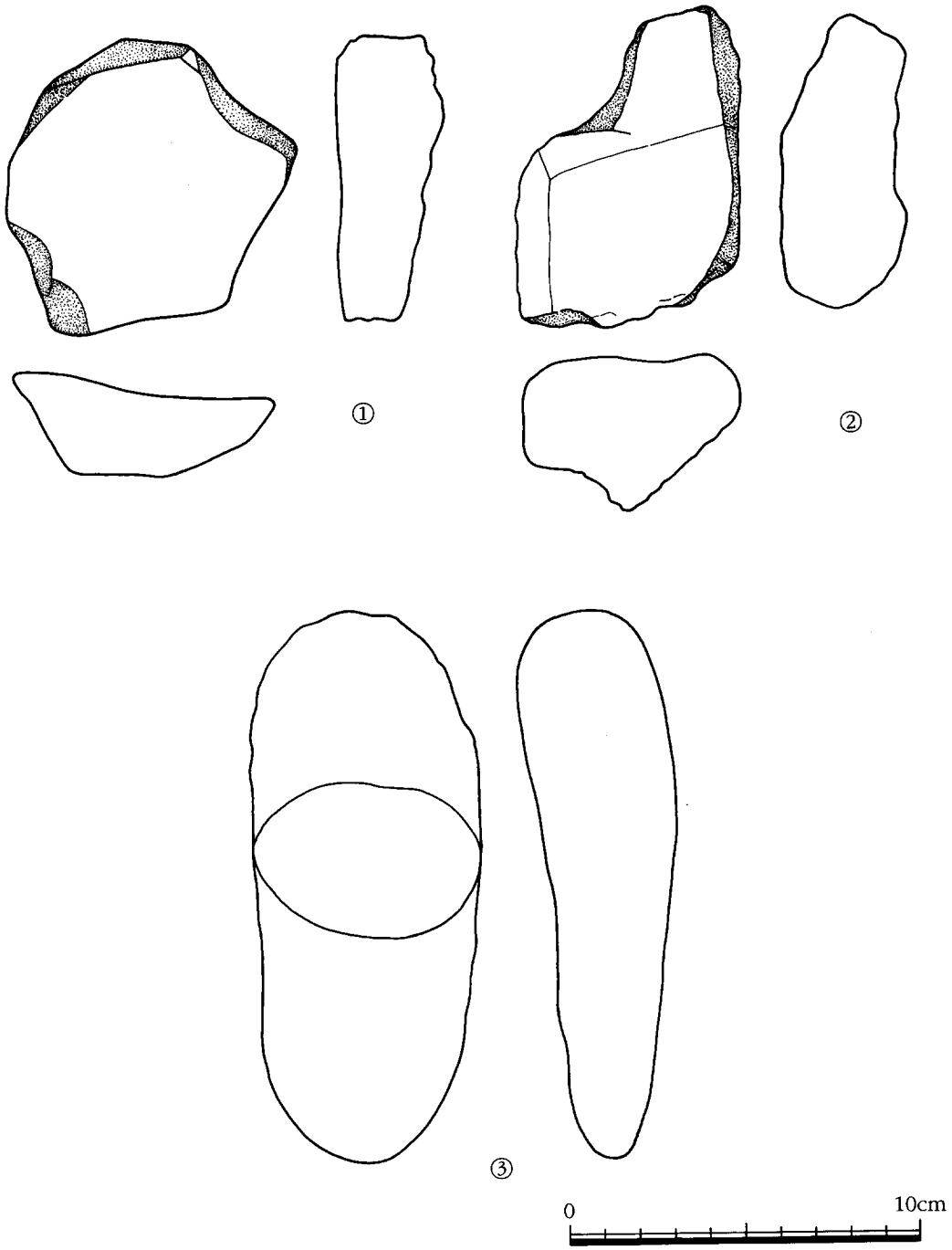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연석조각으로 윗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반화강암제로 크기는 길이 8.1cm 폭 4.8cm 두께 2.5cm이다.

• 石棒 (그림 16-③, 사진 47-②)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석질은 화강암제로, 둥글고 긴 냇돌의 위 · 아



〈그림 15〉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16〉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래면이 곱게 갈려 있다. 크기는 길이 15.3cm 폭 6.2cm 두께 3.2cm이다.

(3) 3호 住居址 (그림 17, 사진 11~12-① · 20-①)

① 遺構

A지역의 1호 주거지에서 동북방향으로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南西 - 東北방향(북 → 동 65°)으로 노출되었고 주거지의 어깨선 윤곽은 현지표하 약 10cm 깊이에서 나왔다. 3호 역시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고 마련되었으며 모서리는 각을 죽인 말각 장방형의 주거지로 7호 주거지의 남서편 모서리를 파괴하고 설치됐다.

주거지 규모는 남서 - 동북 길이 3.8m, 폭 약 2m, 움 깊이는 22~66cm 이고 면적은 약 8m²(약 2평)로 규모가 작은 주거지이다.

바닥은 고운 점토를 깔았으며 서편 모서리에서 석검편, 지석조각, 토제 어망추 2점이 출토되었고 그밖에 유구 시설 및 유물 출토는 없었다.

② 遺物

• **土製 漁網錘** (그림 18-①, 사진 47-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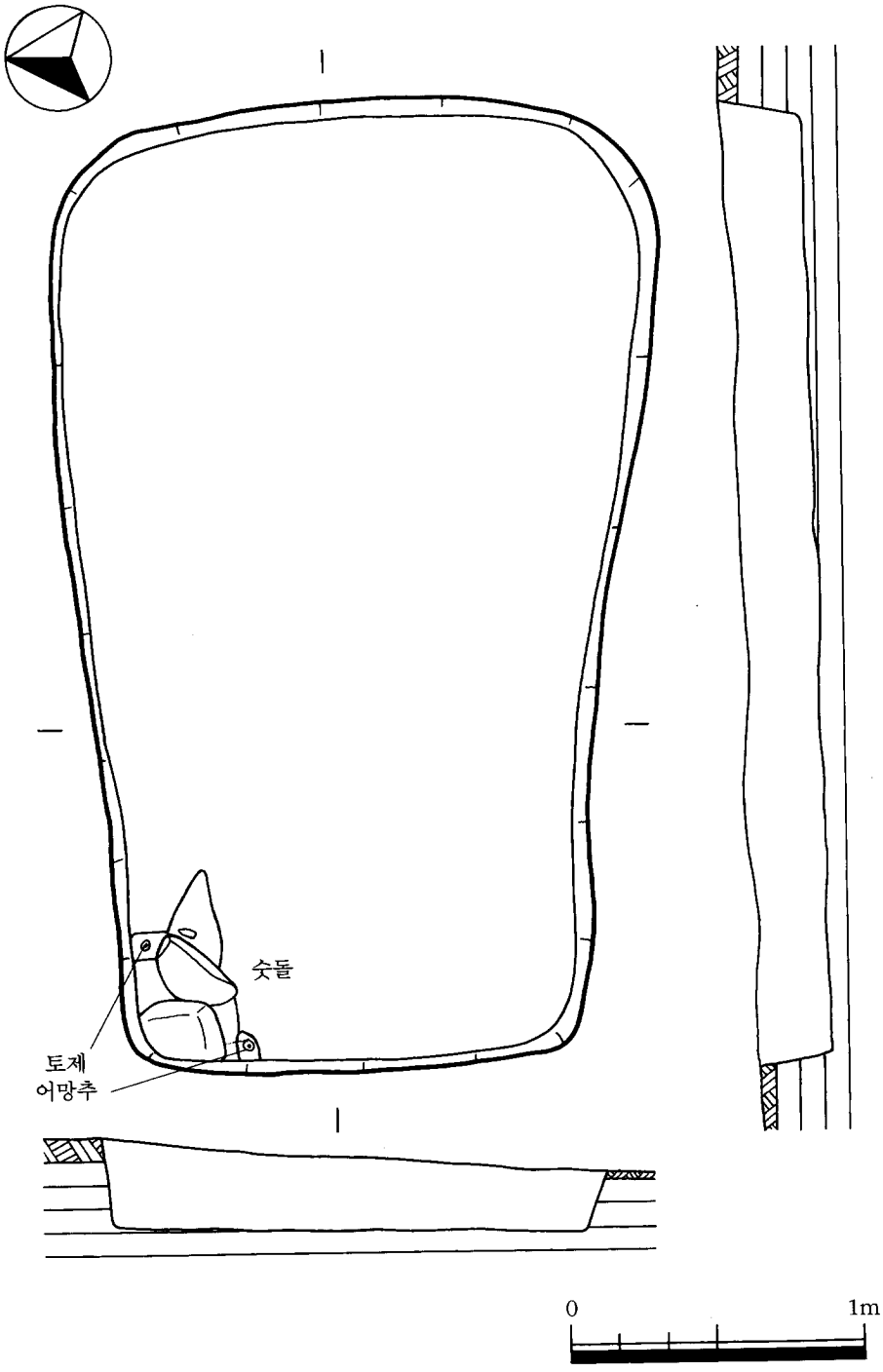
주지의 서편 모서리에서 출토된 토제 어망추이다. 대롱 모양의 형태로 중앙에는 직경 0.7cm 크기의 구멍을 뚫었다. 표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다. 크기는 길이 3.4cm 직경 2.8cm이다.

• **土製 漁網錘** 片 (그림18-②, 사진 47-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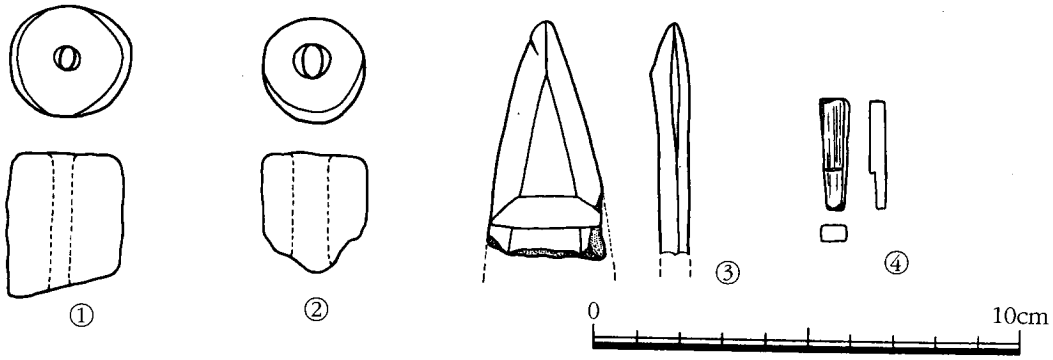
주지의 서편 모서리에서 절반가량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토제 어망추로 대롱 모양의 형태이며, 중앙에는 직경 1.1cm 크기의 구멍을 뚫었다. 표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다. 크기는 현존길이 2.7cm 직경 2.6cm이다.

• 石槍 片 (그림 18-③, 사진 47-⑤)

주거지의 서편 모서리에서 창신의 일부만 남은 상태로 출토되었다. 석질은 점판암제로 창신의 단면은 편마름모꼴이고 검신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으며 중앙의 능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양쪽으로 혈구를 마련하였다. 인부에는 사선방향으로 마연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 있다. 크기는 현존 길이 5.2cm 폭 2.6cm 두께 0.8cm이다.



〈그림 17〉 포월리 3호 주거지 실측도



〈그림 18〉 포월리 3호 주거지 출토유물 실측도

• 砥石 片 (그림 18-④, 사진 47-⑥)

주거지의 서편 모서리 위의 석검편 남쪽에서 일부분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단면 직사각형으로 상면과 측면이 곱게 갈려 있다. 크기는 현존길이 2.6cm 폭 0.7cm 두께 0.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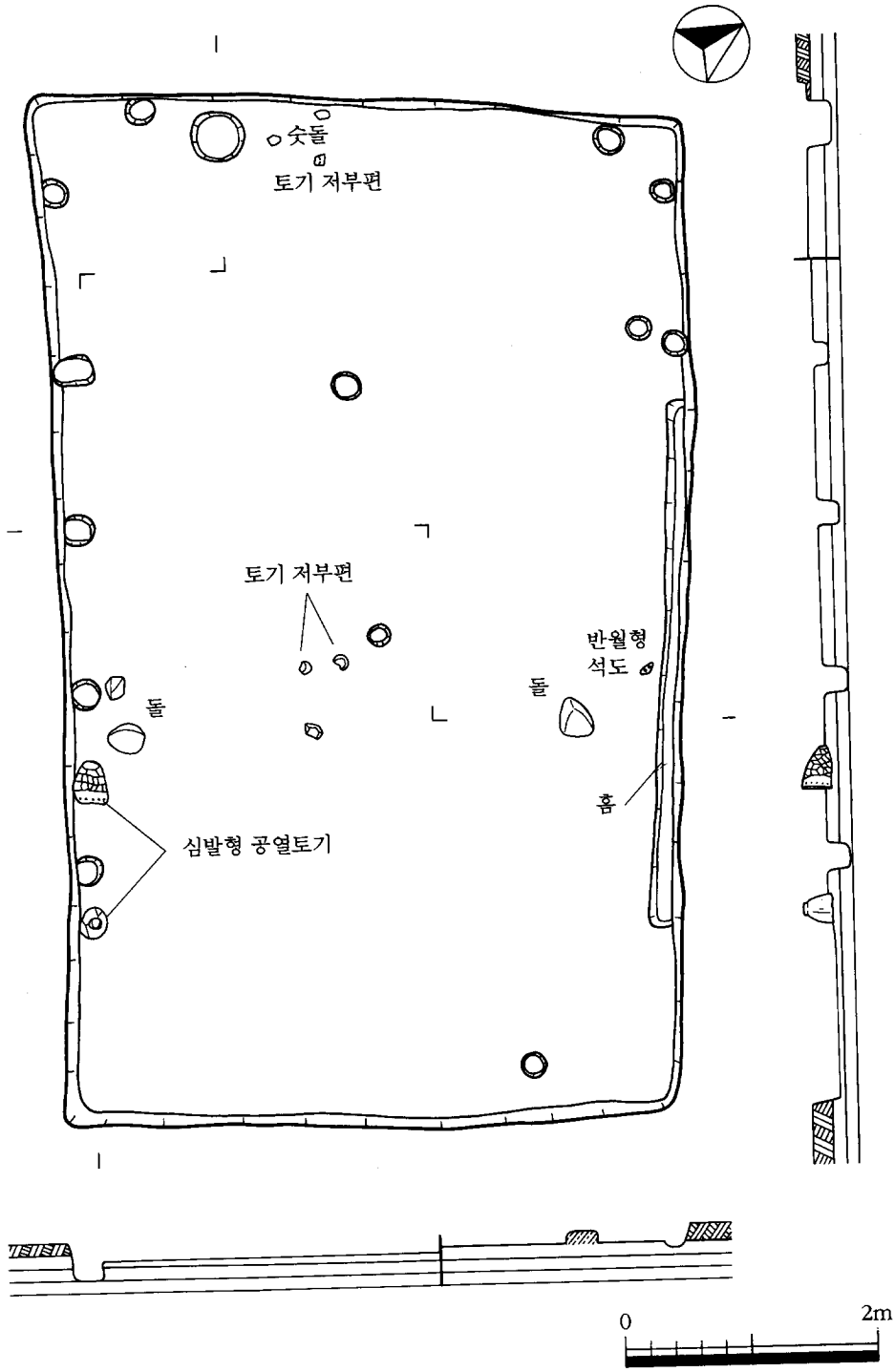
(4) 4호 住居址 (그림 19 , 사진 12-②~15)

① 遺構

A지역의 1호 주거지에서 북동방향으로 약 40m 떨어진 지점에서 東 - 西방향(동 →남 18°)으로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고 마련된 주거지이다. 주거지의 어깨선 윤곽은 현지표하 20cm 깊이에서 노출된 평면 장방형의 주거지로 크기는 동-서 길이 8m, 남 - 북 폭 5m, 움 깊이 32cm 이고 면적은 40m²(약 12평)이다.

바닥은 평탄하게 고른 다음 그위에 점토를 깔고 다졌으며 불에 구운 것으로 추정되는 소토층이 주거지 바닥에 폭넓게 노출되었다. 기둥구멍은 남 · 서 장벽에서 6개, 맞은편 북 · 동벽에서 2개, 북 · 서 단벽에서 2개, 맞은편 동 · 남 단벽에서 1개가 조사되었다. 기둥구멍은 직경 22cm, 깊이 20cm의 크기로 노출되었고 기둥구멍 간격은 140cm로 안쪽으로 비스듬히 뚫려 있고 주거지의 중앙에 1개, 북서편 중앙에 1개의 기둥구멍이 뚫려 있다.

남 · 서 장벽의 남편으로 치우쳐서 밑동이 거꾸로된 공열토기 1점이 노출되었고 서편으로 약 110cm 지점에서 역시 같은 종류의 공열토기 1점이 옆으로 넘어진 상태로 노출되었고 주변에서 석봉(12cm×9cm×5cm)과 연석(25cm×20cm×5cm)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주방공간으로 추정되며 맞은편에서도 비슷한 크기의 냇돌로된 납작한 연석(30cm×25cm×7cm)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림 19〉 포월리 4호 주거지 실측도

동 · 북장벽의 중간지점에서 소토층이 주거지의 바닥면 보다 높고 폭넓게 나온점과 다른 주거지에서 나오는 어깨밑의 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북 · 서 단벽의 서편에 치우쳐서 직경 30cm, 깊이 20cm 크기의 저장용 구덩이(貯藏穴)가 나왔고 석부 1점과 지석 1점이 중앙에서 출토되었으며 화살촉 1점과 반월형석도 1점이 동남편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② 遺物

• 孔列土器 (그림 20, 사진 48-①)

주거지의 남서편 모서리 기덩구멍 옆에서 벽에 붙어 선 채로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심발형의 구멍무늬토기(孔列土器)로 몸통은 밑동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져 올라와 구연부는 수직으로 곧게 섰다.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고 구순각목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구연부 밑에는 1cm 밑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속적으로 구멍을 뚫어 공열문을 장식하였는데 반관통된 상태이다. 몸통의 최대 폭은 중앙 상단에 위치하며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바닥과 연결된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나뭇잎 자국이 찍혀 있고 바닥과 몸통의 접합부는 단이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토기의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내면에는 판목구를 이용한 판목조정흔이 남아 있고 외면은 기면의 일부가 떨어져나갔다.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으로 바탕흙은 굵은 石英, 長石粒이 다량 섞여 있고 色調는 赤褐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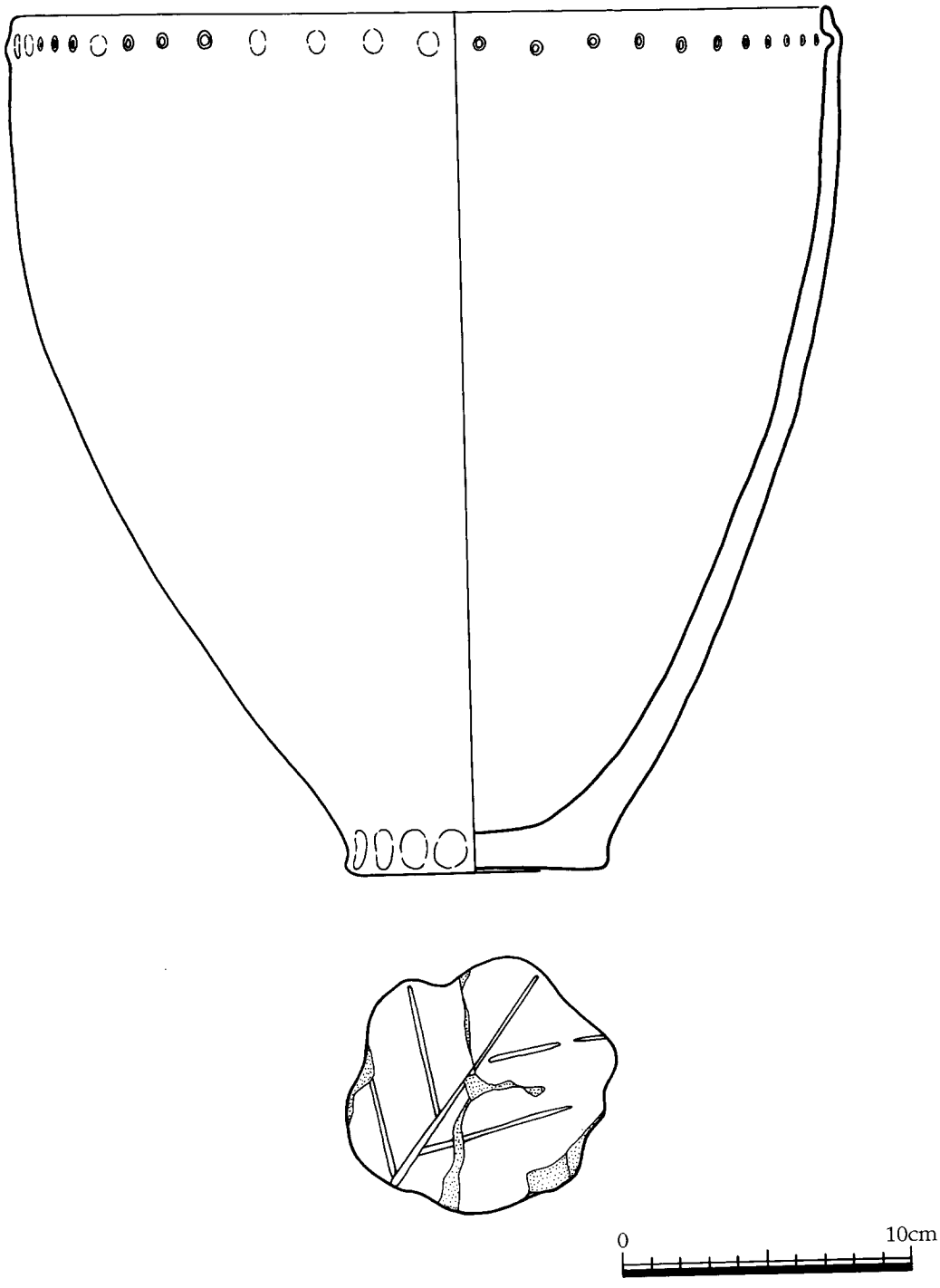
크기는 입지름 26cm 밑지름 9.2 높이 31cm 기벽두께 0.9cm이다.

• 孔列土器 (그림 21, 사진 48-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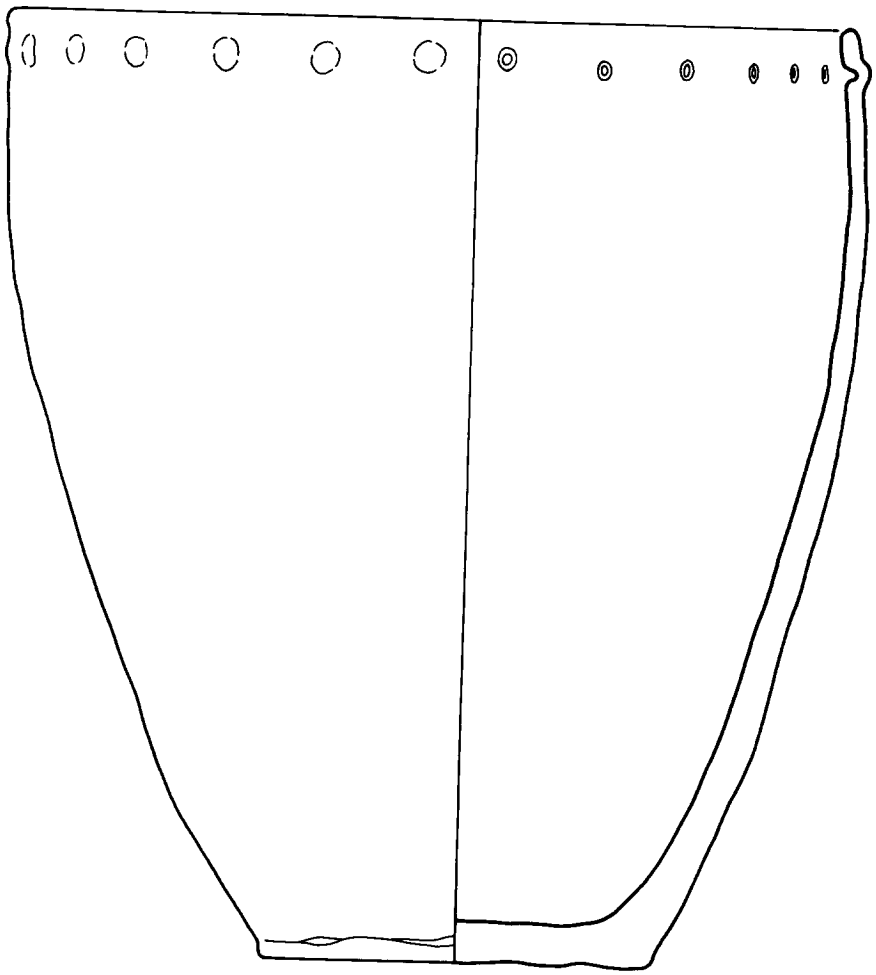
주거지의 남편 중앙 기둥구멍 서쪽 옆에서 파손되어 넘어진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심발형의 구멍무늬토기(孔列土器)로 몸통은 밑동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져 올라와 구연부는 수직으로 곧게 섰으며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구연부 밑에는 1cm 밑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속적으로 직경 0.5cm 크기의 구멍을 뚫어 공열문을 장식하였는데 반관통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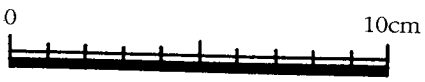
몸통의 최대 폭은 중앙에 위치하며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바닥과 연결된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바닥과 몸통의 접합부분에는 단이지며 손누름자국이 찍혀 있고, 토기의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입지름 22cm 밑지름 10.3cm 높이 2cm 기벽두께 0.8cm이다.



〈그림 20〉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21〉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22-①, 사진 48-③)

주거지의 중앙 기둥구멍 옆에서 절반가량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두꺼운 편이며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깊게 나 있다.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은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8.9cm 현존높이 3.7cm 바닥두께 1.5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22-②, 사진 48-④)

주거지의 중앙에서 절반가량이 결실된 상태로 위의 저부와 인접해서 출토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얇은 편이며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누름자국이 나 있고 도구를 이용해 깎은 흔적이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7.7cm 현존높이 4cm 바닥두께 0.9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22-③, 사진 48-⑤)

주거지의 서벽 중앙에서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누름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거칠게 정면되었고 내면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은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8.9cm 현존높이 4.5cm 바닥두께 1.2cm이다.

• 半月形石刀 (그림 22-④, 사진 48-⑥)

주거지의 북동편 중앙 어깨밑에서 양쪽모서리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曲背彎刃 형태로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제이다. 날은 외쪽날이고 중앙의 구멍은 윗면에서 거의 뚫은 다음 밑에서 마무리하였다. 크기는 길이 14.6cm 폭 5.4cm 두께 0.6cm이다.

• 半月形石刀 片 (그림 22-⑤, 사진 49-①)

주거지의 서편 저장구덩이 옆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절반이상이 결실되었다. 曲背彎刃의 형태로 날은 외쪽날이고 중앙에 직경 0.5cm 크기의 구멍을 양쪽에서 뚫었고 석질은 천매암질암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7.9cm 폭 3.6cm 두께 0.6cm이다.

• 有莖式石鏃 (그림 22-⑥, 사진 49-②)

주거지의 북서편 중앙 퇴적층에서 슴베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촉신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고 종방향으로 마연해 인부를 형성하였다. 촉은 단면 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 있다. 석질은 적색 셰일로 크기는 현존길이 6.6cm 폭 1.7cm 두께 0.5cm이다.

• 石斧 (그림 22-⑦, 사진 49-③)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날쪽과 뒤쪽이 결실된 상태로길고 둥근 냇돌의 양쪽을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고 석질은 석영맥이다. 크기는 길이 15.2cm 폭 7.3cm 두께 4.6cm이다.

• 砥石 片 (그림 22-⑧, 사진 49-④)

주거지의 서편 중앙에서 무문토기 저부편과 인접해서 일부분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단면 삼각형으로 한쪽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규장질 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9.3cm 폭 6.3cm 두께 3.4cm이다.

• 砥石 片 (그림 23-①, 사진 49-⑤)

주거지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서 출토되었다. 납작한 돌의 한쪽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규장질 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7.2cm 폭 6.6cm 두께 1.3cm이다.

• 砥石 片 (그림 23-②, 사진 49-⑥)

주거지의 서편 모서리 퇴적층에서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납작한 돌의 한쪽면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움푹 패인 상태이다. 석질은 규장질 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8.8cm 폭 4.5cm 두께 1cm이다.

• 石棒 (그림 23-③, 사진 49-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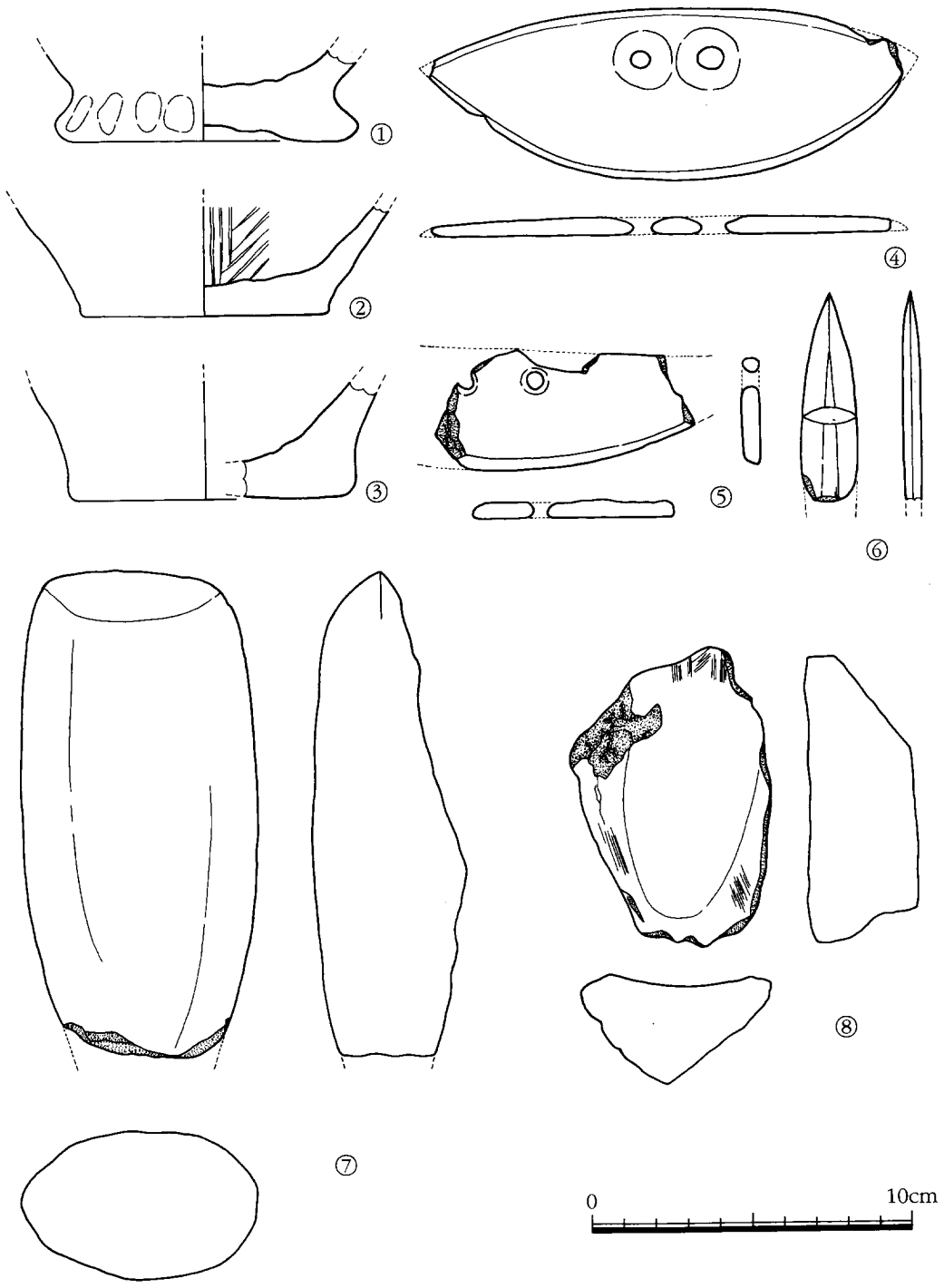
주거지의 남편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출토된 석봉이다. 둥근 냇돌의 윗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우백질 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10.1cm 폭 8.7cm 두께 5.4cm이다.

• 礪石 (그림 23-④, 사진 50-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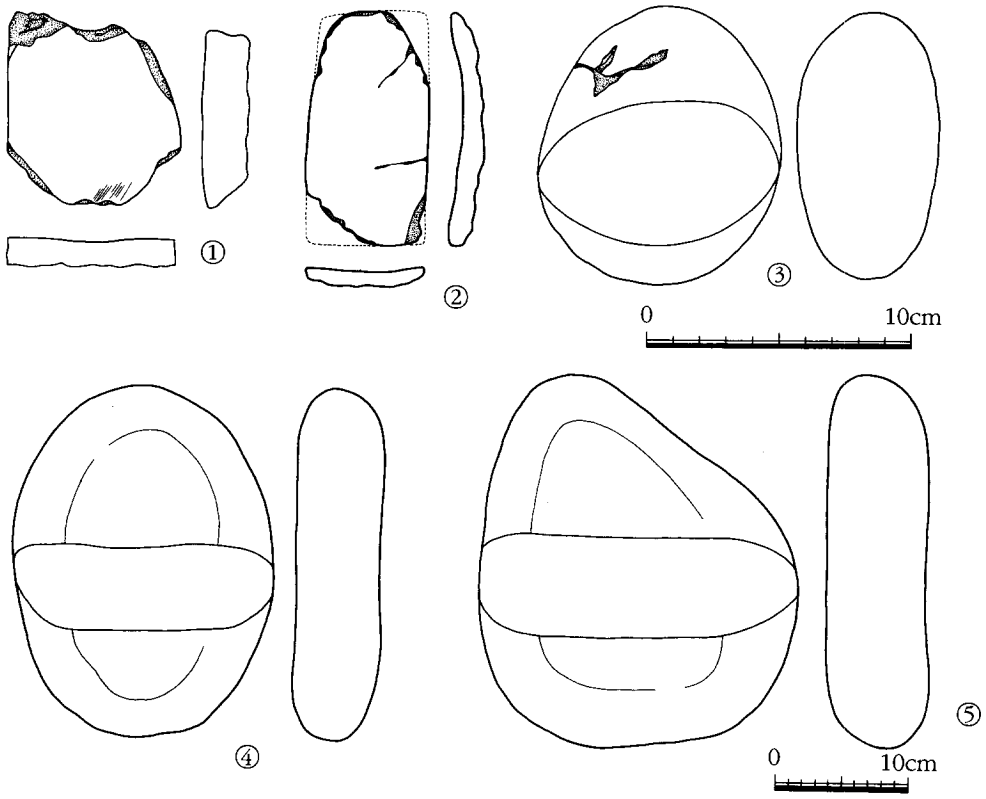
주거지의 남편 중앙 공열토기 옆에서 출토된 연석이다. 둥글고 납작한 냇돌의 윗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우백질 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25cm 폭 23.5cm 두께 5.2cm이다.

• 礪石 (그림 23-⑤, 사진 50-②)

주거지의 북편 중앙 어깨선 밑에서 출토된 연석이다. 둥글고 납작한 냇돌의 한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우백질 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27.5cm 폭 25.1cm 두께 8.3cm이다.



〈그림 22〉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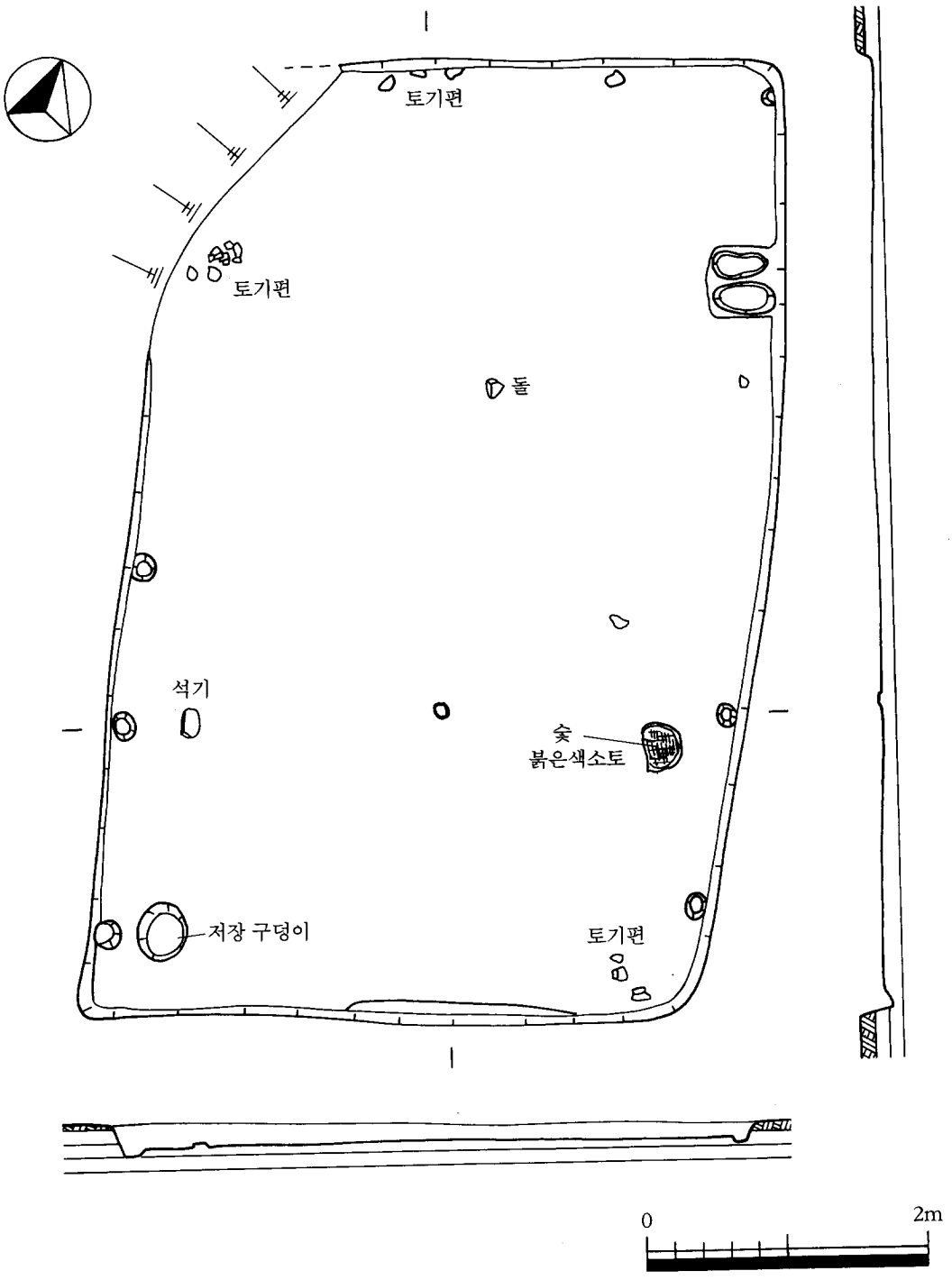
〈그림 23〉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5) 5호 住居址 (그림 24 , 사진 15)

① 遺構

B지역의 2호 주거지에서 동남방향으로 약 70m 지점의 능선 정상부에서 설치한 탐색조사갱에서 주거지의 유구층이 발견되어 확장조사한 결과 현지표하 20~40cm 깊이에서 장방형의 주거지 어깨 윤곽선이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윤곽선 안에 + 字모양으로 30cm 두께의 뚝을 남기고 퇴적된 부식토를 제거한 결과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고 주거지를 마련하였고 북서편 모서리는 지형의 경사진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일부가 파괴된 상태이다. 주거지는 南 - 北방향(북 → 서 20°)으로 규모는 남-북 길이 6.9m, 폭 약 4.2m이고 면적은 29m²(약 9평)이다.



〈그림 24〉 포월리 5호 주거지 실측도

주거지의 남벽에 접해서 바닥면 보다 약간 높게 턱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 출입구는 남쪽으로 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면은 암반층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얇게 점토를 깔아 다졌으며 주거지의 중앙 북편으로 약간 치우쳐서 불맞은 소토층이 나오고 있어 화덕자리로 추정된다. 기둥구멍은 남벽에서 나타나질 않고 동벽에서 4개, 서벽에서 5개, 북벽에서 1개가 노출되었다. 기둥구멍의 크기는 직경 16cm, 깊이 12cm이고 기둥구멍간 거리는 140cm로 뚫려 있다.

주거지의 남서편 모서리에 저장용 구덩이(貯藏穴)가 직경 30cm, 깊이 19cm로 뚫려 있고 북서편 모서리에도 장방형의 구덩이가 주거지의 북쪽벽에 맞추어 파여진 것으로 보아 저장 구덩이(貯藏穴)로 추정된다. 구덩이의 크기는 길이 260cm, 폭 62cm, 깊이 21cm이다.

또한 주거지의 동벽에 붙어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회청색의 점토덩어리가 출토되었는데 아마도 토기를 만드는데 사용된 태토로 추정된다.

② 遺物

•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25-①, 사진 50-③)

주거지의 북서편에서 구연부의 일부분만이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몸통에서 좁혀지면 목에서 밖으로 완만하게 바라지면서 직립하였다.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고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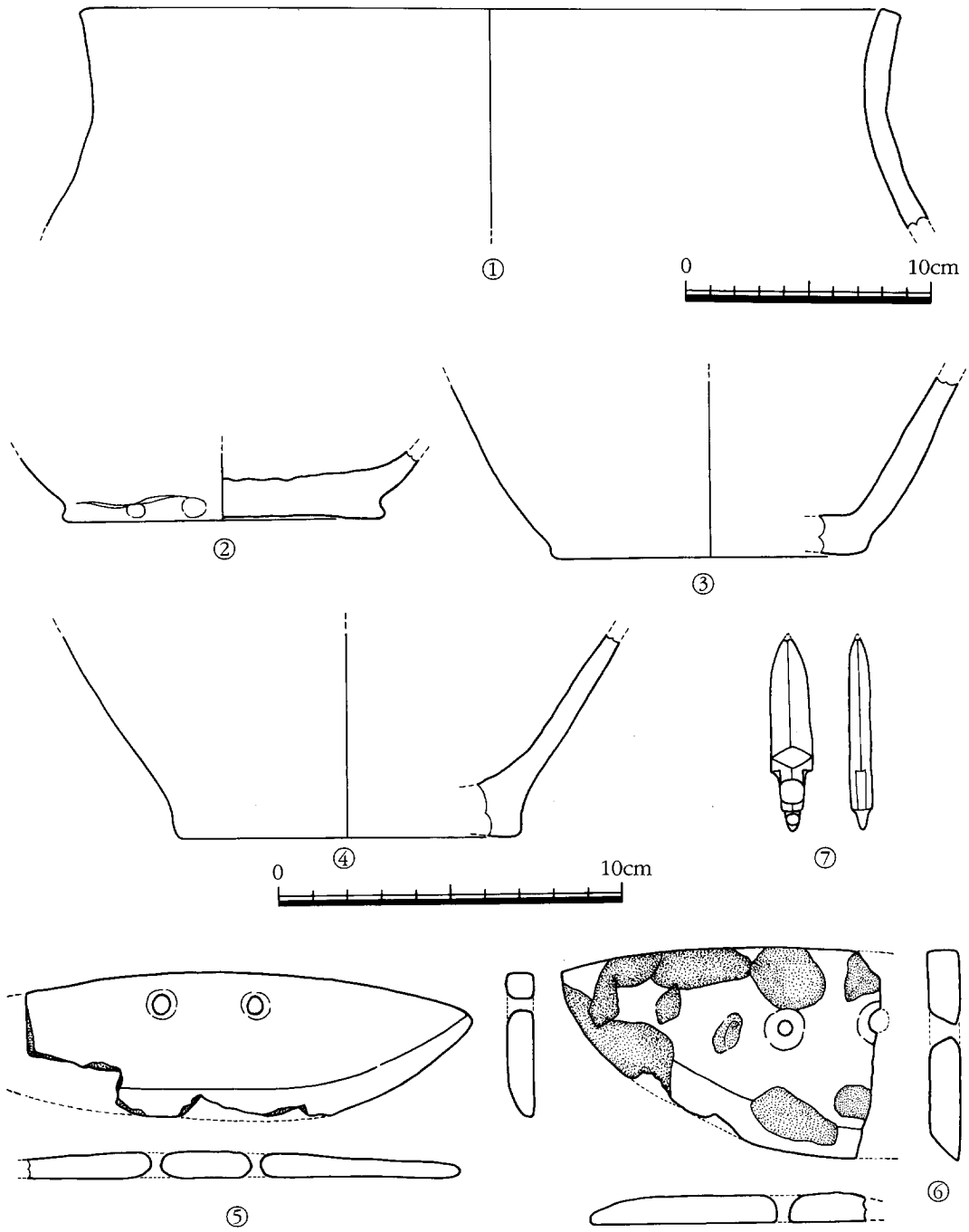
토기의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외면은 기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목부분에는 누름자국이 남아 있고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이다. 황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3cm, 현존높이 9cm 기벽두께 1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25-②, 사진 50-④)

주거지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쳐서 출토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거칠게 물손질 되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은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흑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9.6cm 현존높이 2cm 바닥두께 1.5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25-③, 사진 50-⑤)

주거지의 남동벽 모서리에서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밋밋하게 연결되며 일부 누름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거칠게 정면되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9.2cm 현존높이 6.5cm 바닥두께 1.2cm이다.



〈그림 25〉 포월리 5호 주거지 출토유물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25-④, 사진 50-⑥)

주거지의 서벽 모서리에서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결실되어 정확히 알 수 없고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외면은 거칠게 정면되었고 내면은 기면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10cm 현존높이 6.9cm 바닥두께 2.2cm이다.

• 半月形石刀 (그림 25-⑤, 사진 50-⑦)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일부가 결실된 채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曲背彎刃 형태로 석질은 규장질 암맥이다. 날은 외쪽날이고 중앙의 구멍은 양쪽에서 뚫었다. 크기는 현존길이 12.8cm 폭 4.2cm 두께 0.8cm이다.

• 半月形石刀 片 (그림 25-⑥, 사진 50-⑧)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절반정도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曲背彎刃 형태로 석질은 규장질 암맥이다. 몸통의 곳곳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날은 외쪽날이고 중앙의 구멍은 양쪽에서 뚫었다. 크기는 길이 9.3cm 폭 6.1cm 두께 0.9cm이다.

• 有莖式石鏃 (그림 25-⑦, 사진 50-⑨)

주거지의 북서편 중앙 퇴적층에서 촉과 슴베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된 二段莖鏃이다. 촉신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고 종방향으로 마연해 측면의 인부를 형성하였다. 촉은 단면 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 있으며 슴베는 단면 원형으로 끝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석질은 녹색 세일로 크기는 현존길이 5.6cm 폭 1.3cm 두께 0.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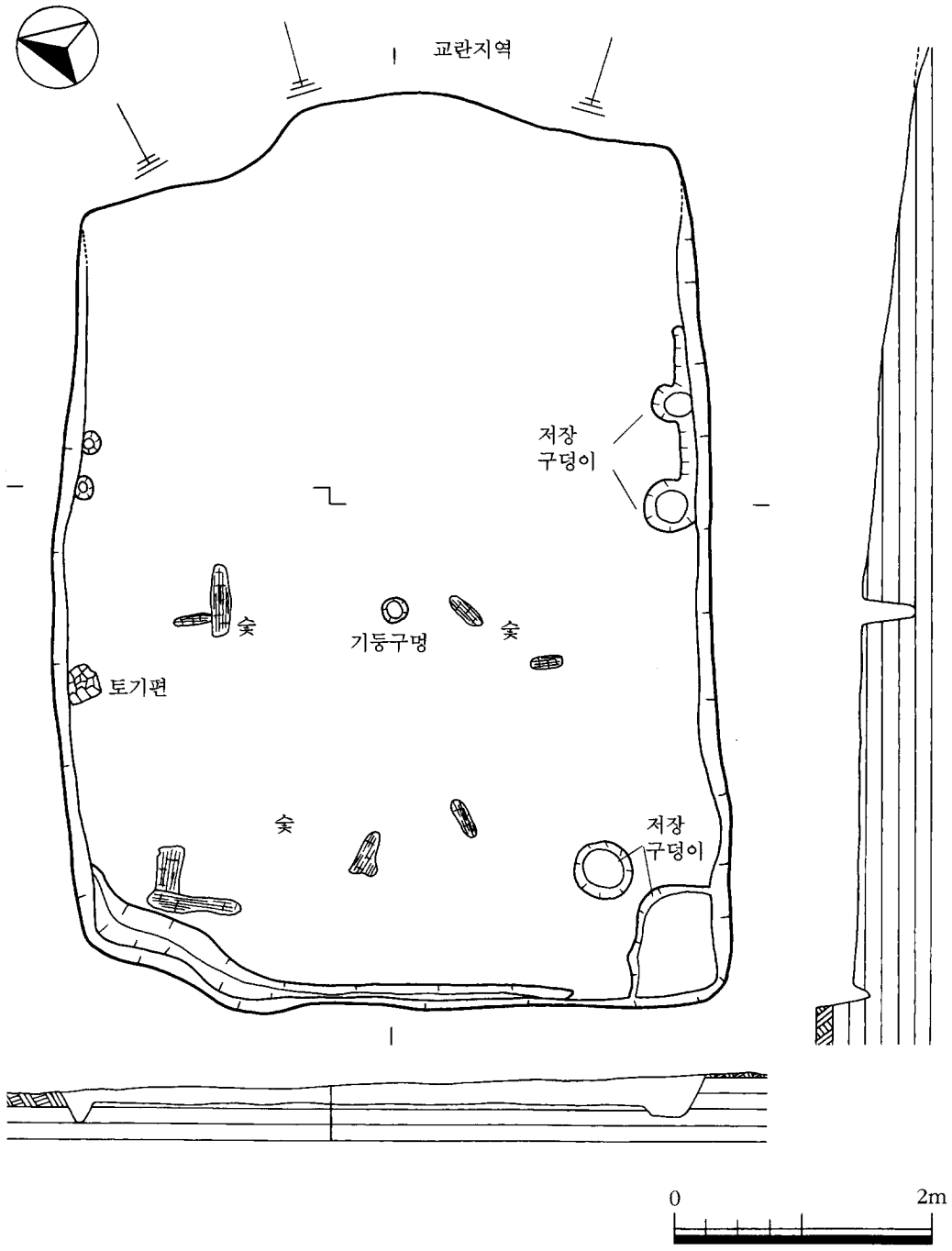
(6) 6호 住居址 (그림 26, 사진 17~18)

① 遺構

C지역의 구릉 정상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서 고인돌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4호 무덤을 조사하던 중 현지표하 약 20cm 깊이에서 주거지 유구로 보이는 윤곽선이 노출되어 확장 조사하였다.

주거지 조사에 앞서 위층에 노출된 4호 무덤의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지 윤곽선 안에 + 字모양으로 30cm 두께의 뚝을 남기고 퇴적된 부식토를 제거한 결과 역시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서 주거지를 마련하였다. 주거지의 어깨 윤곽선은 서벽에서는 현지표하 30cm 깊이에서 나왔으나 동벽은 거의 지표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깍여 나간 상태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방향은 東 - 西방향(동 → 서 10°)으로 규모는 동 - 서 길이



〈그림 26〉 포월리 6호 주거지 실측도

5.3m, 폭 약 4m, 움 깊이 40cm이고 면적은 약 21m²(약 6평)이다.

바닥은 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점토를 깔아 평탄하게 다졌으며 바닥의 중앙에 동편으로 약간 치우쳐서 불맞은 소토층이 바닥면 보다 약간 깊게 노출되고 있어 화덕자리로 추정되며 주거지의 중앙에 직경 16cm, 깊이 27cm의 기둥구멍이 원형이 아닌 角진 상태로 뚫려있다.

주거지의 서북편 모서리에서 저장 구덩이(貯藏穴) 2곳이 접해서 나왔는데 안쪽 구덩이(貯藏穴)는 직경 40cm, 깊이 12cm이고, 바깥쪽 구덩이(貯藏穴)는 직경 65cm, 깊이 17cm로 노출되었고 북서, 남벽의 어깨밑에 폭 8cm, 깊이 9cm의 홈(溝)이 기둥구멍과 연결되어 파여져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7) 7호 주거지 (그림 27, 사진 19~20-①)

① 遺構

7호 주거지는 3호 주거지가 들어서면서 동남편 모서리를 파괴하고 마련되었으며 주거지의 어깨 윤곽선은 북벽은 현지표하 20cm 깊이에서 나왔고 남벽은 지표면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전 이미 절반 이상이 파괴된 상태였다.

역시 풍화된 암반층을 파고 마련된 장방형의 주거지로 방향은 동 - 서 방향(동 → 북 30°)으로 규모는 동 - 서 길이 9m, 현존 남 - 북 폭 3.7m, 움 깊이 32cm이고 현존 면적은 33.3m² (약 10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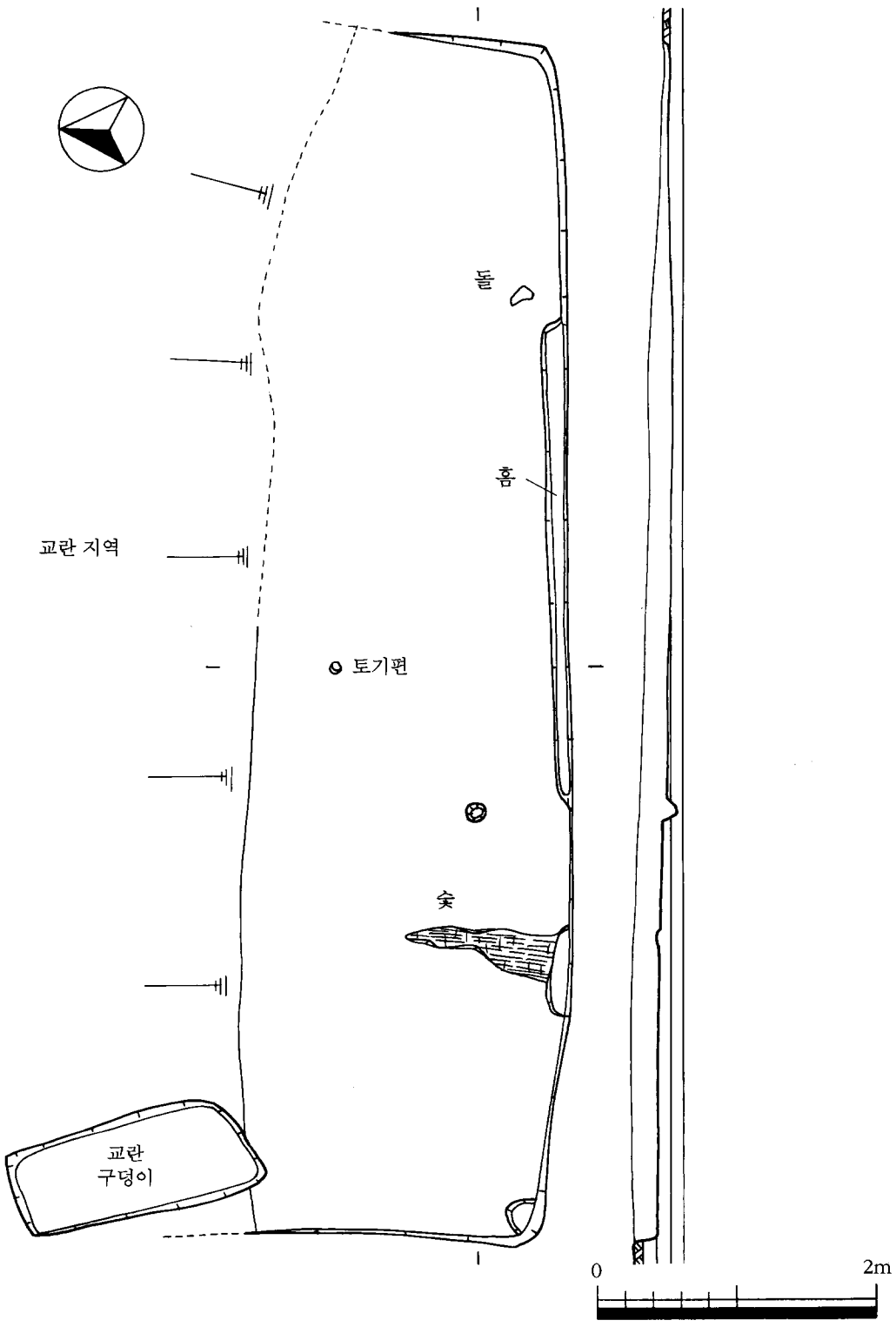
7호 주거지는 기둥구멍이 없는 것이 특이하고 반면 북벽에서 안쪽으로 약 20cm 떨어져서 폭 15cm, 깊이 약 6~10cm 크기의 홈(溝)이 파여져 있고 북벽에서 역시 판자벽이 노출되었는데 벽과 판자 사이에는 바닥에서 보이는 고운 점토가 채워져 있었고 판자 안벽에도 고운 점토가 붙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벽에는 판자시설을 하였고 흙벽과 판자 사이의 공간에는 고운점토를 채워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벽채 안쪽으로 서로 연결되어 파여져 있는 홈(溝)은 아마도 습기가 안쪽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없다.

(8) 8호 住居址 (그림 28, 사진 20-②~21-①)

① 遺構

B지역의 신라시대 3호 고분(方形墳)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10m 떨어진 경사면의 탐색조사갱에서 주거지의 어깨 윤곽선이 노출되어 확장조사 하였다.

주거지의 어깨 윤곽선은 북벽은 현지표하 40cm 깊이에서 나오고 남벽은 경사면에 접하여 지표



〈그림 27〉 포월리 7호 주거지 실측도

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3/4 이상이 삭평되어 전체적인 주거지 윤곽과 규모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주거지는 경사면의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깍아 평탄하게 바닥을 마련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으로 보아 규모가 큰 주거지임을 알 수 있고 방향은 동 - 서 방향(동→북 18°)으로 동-서 길이 12.6m, 움 깊이 35cm이고 남-북 폭은 삭평되어 알 수 없다.

주거지의 북벽 밑에 홈(溝)이 폭 20cm, 깊이 19cm로 파여져 있고 북벽에 인접하여 서편으로 치우쳐서 둔덕이 바닥면 보다 약 15cm정도 높게 마련되어 있고 기둥구멍은 북벽에서 5개가 조사되었는데 직경 20cm, 깊이 25cm이고 기둥구멍간 거리는 140cm 간격으로 뚫려 있다.

바닥은 암반층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그 위에 점토를 깔고 불로 구웠고 동북편 모서리에서 저장용 구덩이(貯藏穴)가 인접하여 2곳이 뚫려 있고 주변에서 석부 1점, 돌대패 1점과 무문토기조각이 출토되었다.

② 遺物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29-①, 사진 51-①)

주거지의 동북편 모서리 자장구덩이 옆에서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밋밋하게 연결되며 일부 누름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거칠게 정면되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7.8cm 현존높이 2.4cm 바닥두께 0.8cm이다.

• 石斧 (그림 29-②, 사진 51-②)

주거지의 동북편 남쪽 저장 구덩이 옆에서 출토되었다. 몸통의 곳곳이 떨어져 나갔으며 냇돌의 양쪽을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다. 석질은 석영맥으로, 크기는 길이 13.8cm 폭 6.1cm 두께 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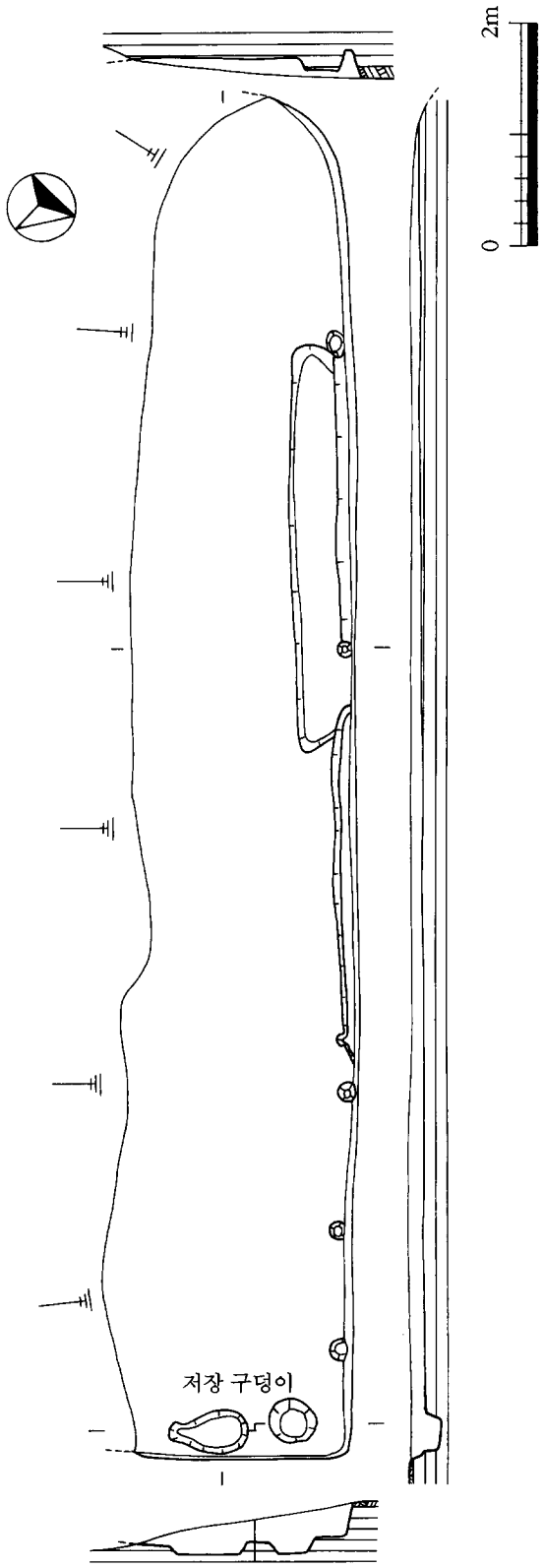
• 대패날조각 (그림 29-③, 사진 51-③)

주거지의 동북편 남쪽 저장구덩이 옆에서 위이 돌도끼와 함께 출토되었다. 날은 외쪽날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석 그대로이며, 석질은 담황색 세일이다. 크기는 길이 6.6cm 폭 3.9cm 두께 1.0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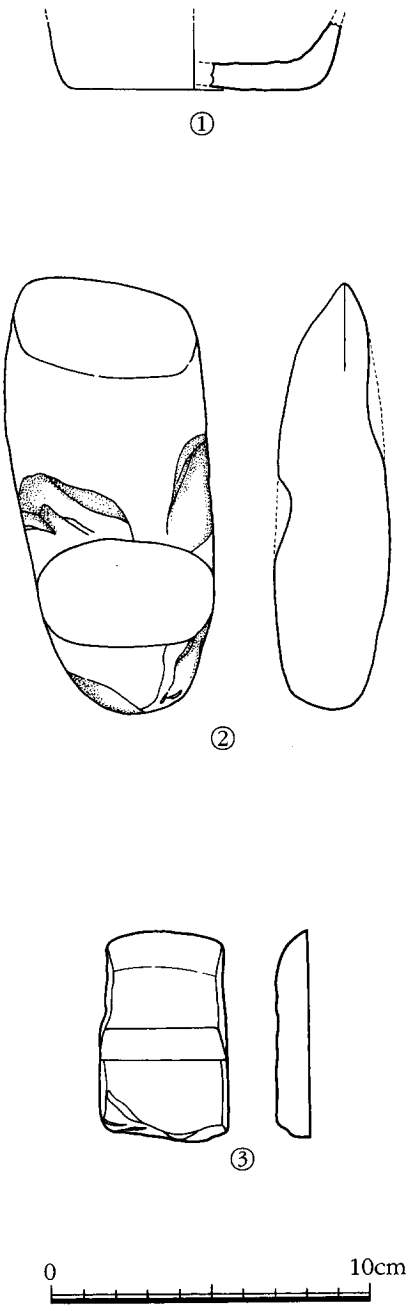
(9) 9호 住居址 (그림 30 , 사진 21-②~25-①)

① 遺構

1호 주거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30m 떨어진 경사면에서 주거지의 어깨 윤곽선이 노출되어 확장



〈그림 28〉 포월리 8호 주거지 실측도



〈그림 29〉 포월리 8호 주거지 출토유물

조사한 결과 북벽에서 윤곽선은 현지표하 20cm 깊이에서 나왔고 남벽과 서벽은 지표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삭평되어 결실되었으나 동벽에서 남벽으로 이어지는 부분과 북벽에서 서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남아 있어 전체적인 주거지 규모는 알 수 있다.

주거지의 윤곽선 안에 + 字모양으로 뚝을 남기고 퇴적된 부식토를 제거한 결과 역시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고 주거지를 마련하였다. 전체 모양은 장방형의 남 - 북 방향(동→북70°)으로 규모는 남-북 길이 5.3m, 동-서 폭 4.3m, 움 깊이 약 50cm이고 면적은 22.8m²(약 6.9평)이다.

9호 주거지는 북벽과 동벽 밑에서 홈(溝)이 폭 30cm, 깊이 5cm로 넓게 파여져 있고 다시 벽에 붙어서 폭 10cm, 깊이 7cm로 이중으로 홈(溝)이 파여져 있다. 그러나 북벽 어깨 밑에 파여진 홈(溝)은 기둥구멍과 서로 연결되어 파여져 있는 반면 동벽은 기둥구멍이 벽채에서 약간 떨어져서 홈(溝) 안쪽으로 파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둥구멍은 북벽에서 2개, 동벽에서 5개가 조사되었고 기둥구멍의 크기는 직경 21cm, 깊이 17cm이고 기둥구멍간 거리는 1~1.2m 간격으로 뚫려 있다.

북벽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바닥면 보다 높게 둔덕이 져서 노출되었고 바로 앞쪽에서 돌칼(흠자루) 1점이 바닥면 보다 약 5cm 높이에서 두동강이 난 채로 나왔으나 완형이며 중앙 북편으로 약간 치우쳐서 불맞은 소토층과 돌이 나오고 있어 화덕자리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서벽 중앙에 치우쳐서 자장용 구덩이(貯藏穴) 1개소가 직경43cm, 깊이 30cm크기로 나왔고 추정 화덕자리 서편에서 석부 1점, 석촉 1점, 대부소호 굽조각 1점, 숫돌, 무문토기조각 등이 나왔다.

②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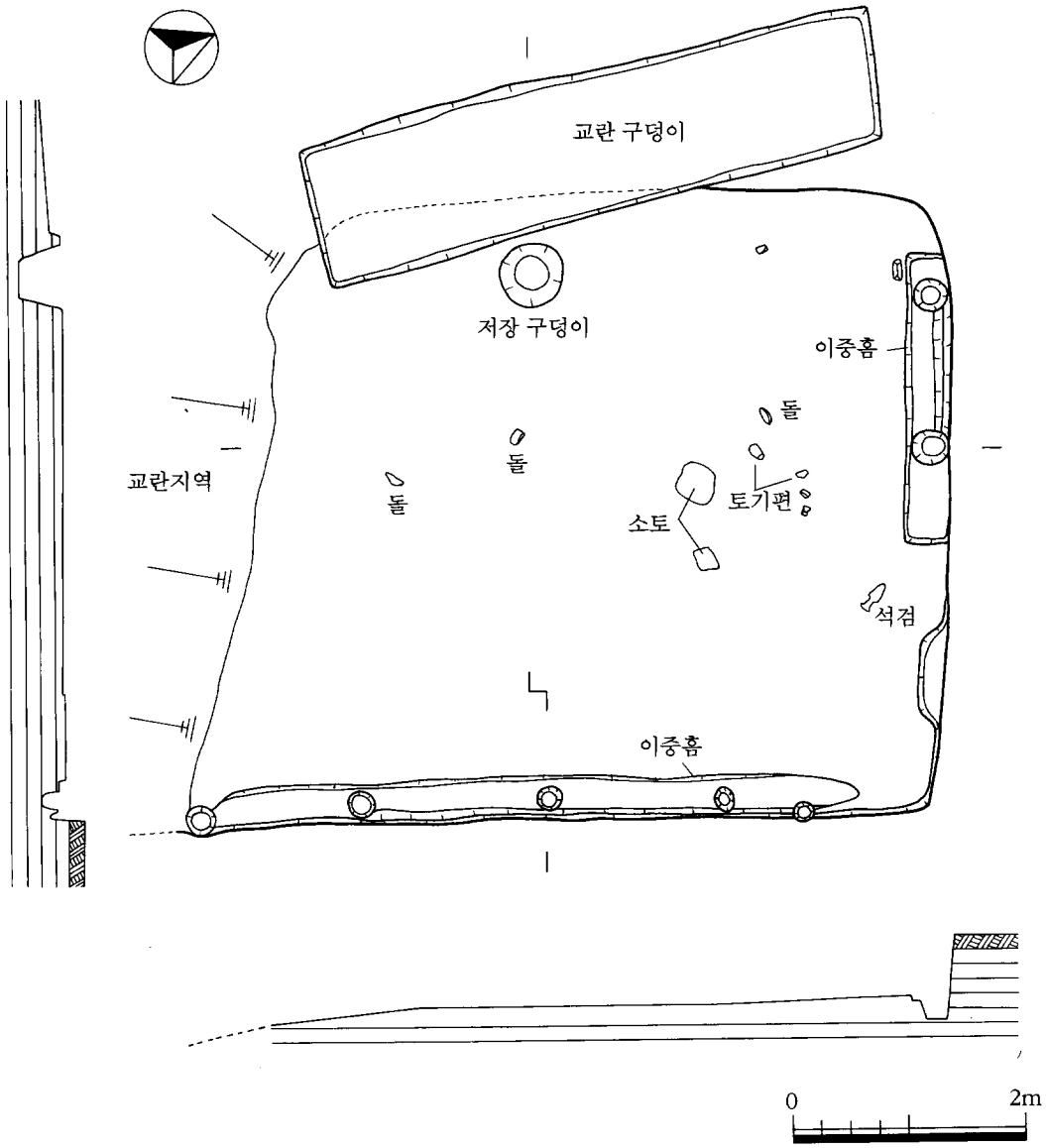
• 赤色土器 口緣部片 (그림 31-①, 사진 51-④)

주거지의 화덕자리 서편에서 무문토기 저부편과 인접해서 출토되었다. 목에서부터 곧게 올라오다가 구연부 끝에서 심하게 바라졌다. 토기의 외면은 붉은 점토칠을 하였고, 내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다. 器壁은 3~5㎜ 정도로 얇고 바탕흙은 정선된 진흙에 미세한 운모가루와 석영을 섞었고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현존높이 3.3cm 기벽두께 0.25cm이다.

• 赤色土器 굽다리 片 (그림 31-②, 사진 51-⑤)

주거지의 화덕자리 서편에서 출토되었다. 토기 표면에는 붉은 점토칠을 하였다. 器壁은 3~5㎜ 정도로 얇고 바탕흙은 정선된 진흙에 미세한 운모가루와 석영을 섞은 것이다.

몸통과 굽은 따로 만들어 붙였고, 굽은 몸통과의 접지면 에서부터 반듯하게 내려오다가 하단부



〈그림 30〉 포월리 9호 주거지 실측도

부터 바깥쪽으로 벌어졌으며 접지면은 외면이 약간 들려있다. 크기는 밑지름 4cm높이 16.5cm 기벽 두께 0.4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1-③, 사진 51-⑥)

주거지의 서편 모서리 자장구덩이 옆에서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지며 손누름자국이 깊게 남아 있다.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내면은 기면이 떨어져 나갔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외면 황갈색, 내면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8,2cm 현존높이 2.8cm 바닥두께 0.8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1-④, 사진 51-⑦)

주거지의 화덕자리 서편에서 붉은간토기 구연부편과 인접해서 출토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은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9.4cm 현존높이 2.3cm 바닥두께 1.1cm이다.

• 石劍 (그림 32-① , 사진 51-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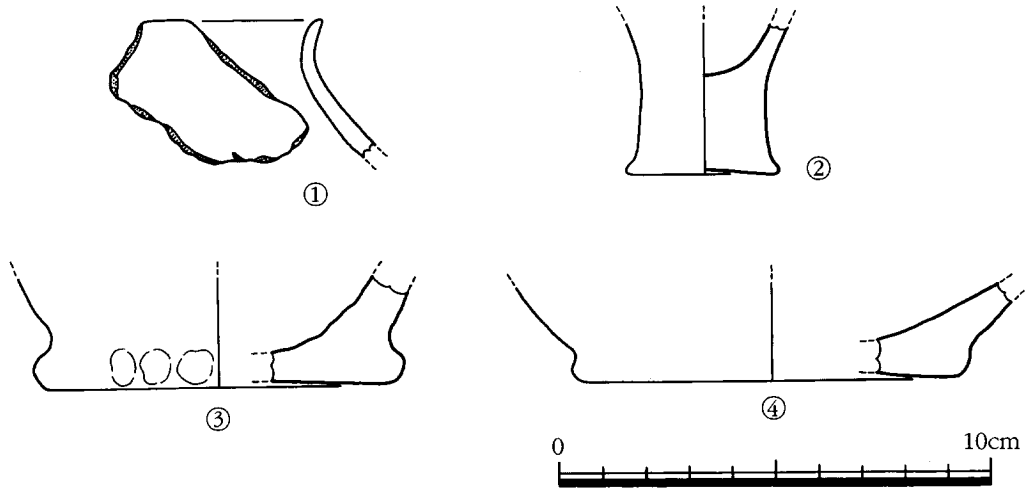
주거지의 북편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二段柄式의 마제석검으로 봉부의 중앙에 세워져 있던 능이 사라져서 검신 단면은 렌즈형이다. 전체적으로 사선방향으로 마연하여 양쪽 인부를 형성하였다. 병부와 검신은 낮은 돌대로 구분되며 양측면에는 홈이 파여져 있고 경부단면은 타원형이다. 날은 상당히 예리하게 서 있고 검신 끝은 둥근 편이나 예리하며, 2차 가공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석질은 적색 세일로 크기는 길이 22cm 폭 5.9cm 두께 1.2cm이다.

• 有莖式石鏃 (그림 32-②, 사진 51-⑨)

주거지의 북서편 중앙 퇴적층에서 촉과 슴베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된 二段莖鏃이다. 촉신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고 종방향으로 마연해 측면의 인부를 형성하였다. 촉은 단면 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 있으며 슴베는 단면 장방형으로 끝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석질은 담녹색 세일로 크기는 현존길이 7.7cm 폭 1.6cm 두께 0.6cm이다.

• 石斧 (그림 32-③ , 사진 51-⑩)

주거지의 북서편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몸통의 곳곳이 떨어져 나갔으며 납작한 냇돌의 한쪽



〈그림 31〉 포월리 9호 주거지 출토유물

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다. 석질은 석영맥으로 크기는 길이 9cm 폭 5.3cm 두께 2.5cm이다.

• **대패날조각** (그림 32-④, 사진 52-①)

주거지의 화덕자리 서편에서 출토되었다. 날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날은 외쪽날이다. 석질은 천매암질로, 크기는 길이 8cm 폭 4.5cm 두께 0.8cm이다.

• **砥石 片** (그림 32-⑤, 사진 52-②)

주거지의 북서편 모서리 기둥구멍 옆에서 출토되었다. 단면 사각형으로 전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규장질 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11.3cm 폭 3.4cm 두께 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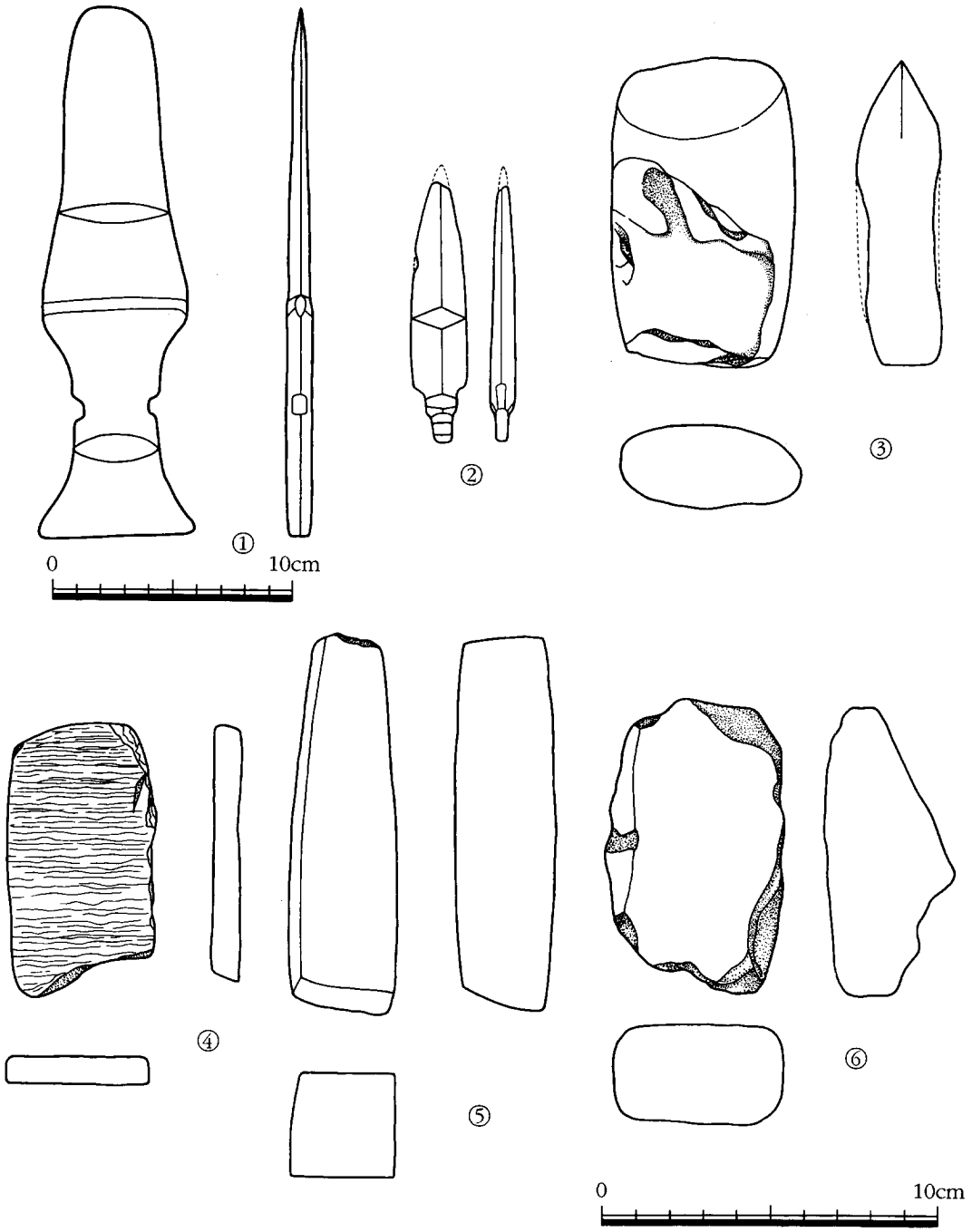
• **砥石 片** (그림 32-⑥, 사진 52-③)

주거지의 남편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단면 사각형으로 한쪽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규장질 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9.2cm 폭 5.1cm 두께 3.7cm이다.

(10) 10호 **住居址** (그림 33 , 사진 25-②~26-①)

① **遺構**

C지역의 6호 주거지에서 동쪽으로 능선을 따라 약 50m지점에서 소나무 굴채를 위하여 중장비로 파놓은 구덩이에서 주거지의 유구층이 노출되어 확장 조사한 결과 동쪽의 상당부분이 파괴되어 교



〈그림 32〉 포월리 9호 주거지 출토유물

란된 상태였으며 한 지역에서 약간씩 시기를 달리하는 주거지가 중복되어 노출되었다.

주거지는 어깨 윤곽선은 현지표하 약 50cm 깊이에서 나왔으며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고 설치하였으며 바닥은 거친 생토면 위에 점토를 깔아 다졌다. 조사 중 맨 먼저 노출된 주거지가 10호 주거지로서 설치된 순서 또한 10호가 가장 먼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10호 주거지는 11호 설치시 3/4 이상이 파괴되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서편의 단벽으로 추정되는 일부 벽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주거지는 동 - 서방향으로 추정되며 남-북 폭 약 4m, 움 깊이는 약 20cm 이고 서벽에서 기둥구멍 4개가 조사되었다. 기둥구멍은 비스듬히 안쪽으로 뚫려 있고 직경 21cm, 깊이 15cm이고 기둥구멍 간 거리는 약 1m정도의 거리를 두고 뚫려 있다. 10호 주거지는 중장비로 인하여 동편의 거의 전부가 파괴된 상태이고 바닥에서 약간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② 遺物

•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34-①, 사진 52-④)

주거지의 동편에서 구연부의 일부분만이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직립하였고,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토기의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고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이다.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9.2cm 현존 높이 5.2cm 기벽두께 0.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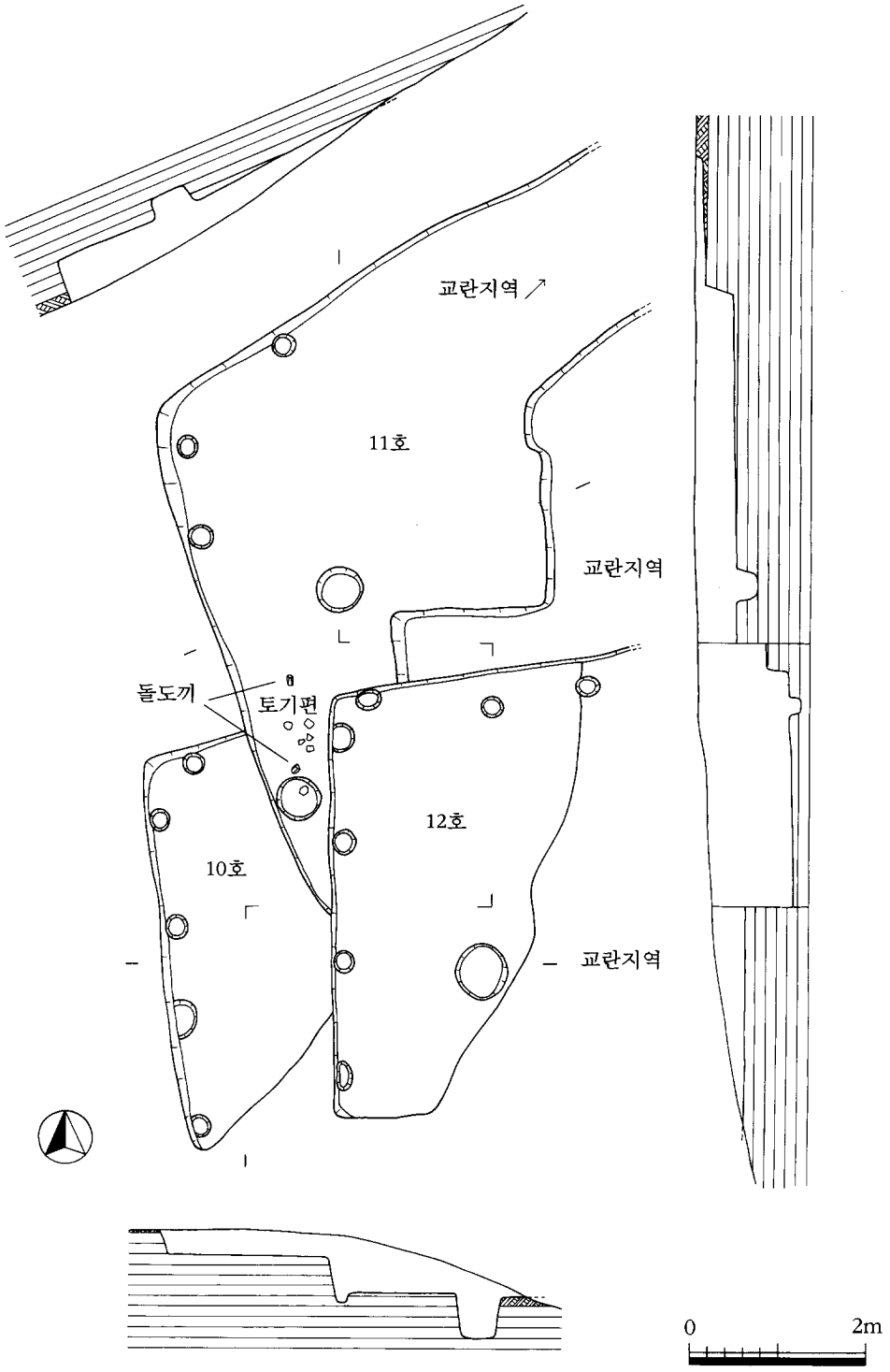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4-②, 사진 52-⑤)

주거지의 동편에서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중앙이 약간 들린 상태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거칠게 물손질 되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7.8cm 현존높이 3.1cm 바닥두께 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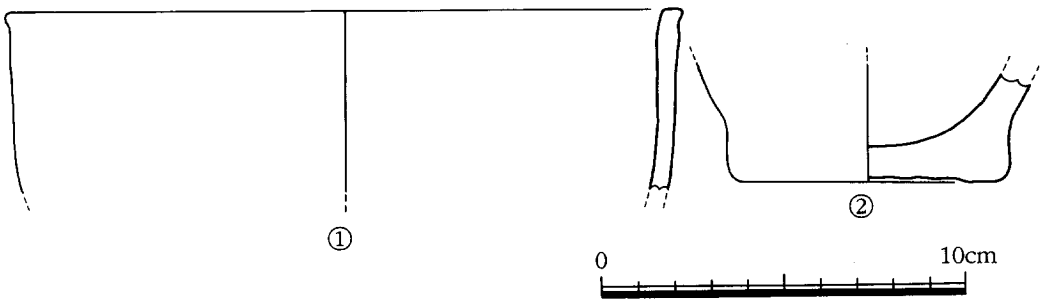
(11) 11호 住居址 (그림 33 , 사진 25-②~26)

① 遺構

11호 주거지는 10호, 12호주거지를 파괴하고 안치되었으며 역시 2/3 이상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와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남 - 북 방향(북→서 15°)이고 서벽(장벽) 일부와 북벽(단벽) 일부만 남아 있다



〈그림 33〉 포월리 10호 · 11호 · 12호 주거지 실측도



〈그림 34〉 포월리 10호 주거지 출토유물

주거지의 어깨 윤곽선은 북편에서 현지표하 약 60cm 깊이에서 나왔고 움 깊이는 10호 주거지 보다 약 10cm정도 깊이에서 평탄하게 깎은 다음 점토로 다졌다.

기둥구멍은 서벽에서 3개, 북벽에서 1개가 나왔고 기둥구멍의 직경은 15cm, 깊이17cm이고 기둥구멍간 거리는 약 1m 간격으로 뚫려 있다. 서벽에 인접해서 바닥면보다 약 5cm 정도 높이에서 돌도끼 3점과 무문토기편이 약간 출토되었다.

② 遺物

•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35-①, 사진 52-⑥)

주거지의 서벽에서 구연부의 일부분만이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목에서부터 밖으로 완만하게 바라지다가 짧게 외반하였고, 입술은 결실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

토기의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거,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이다.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9cm 현존 높이 7.4cm 기벽두께 0.9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5-②, 사진 52-⑦)

주거지의 서벽에 인접해서 출토되었다. 바닥은 두꺼운 편이며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거칠게 물손질 되었고 기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조각이 약간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10cm 현존높이 3.1cm 바닥두께 1.5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5-③, 사진 53-①)

주거지의 서벽에서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내·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 되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약간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9.6cm 현존높이 2cm 바닥두께 1.5cm이다.

• 石斧 (그림 35-④, 사진 53-②)

주거지의 서벽에서 무문토기 저부와 인접해서 출토되었다. 둥글고 긴 냇돌의 냇돌의 한쪽 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고 날이 무딘 것으로 보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석질은 석영반암으로 크기는 길이 8.7cm 폭 5.4cm 두께3.3cm이다.

• 石斧 (그림 35-⑤, 사진 53-③)

주거지의 북서편 모서리 저장구덩이 옆에서 출토되었다. 길고 네모진 자연석의 한쪽 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다. 석질은 화강암질 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13.5cm 폭 4.5cm 두께 2.9cm이다.

• 石斧 (그림 35-⑥ , 사진 53-④)

주거지의 남서편 모서리 저장구덩이 옆에서 출토되었다. 몸통의 곳곳이 떨어져 나갔으며 납작한 냇돌의 한쪽 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다. 석질은 화강암질 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8.7cm 폭 5.4cm 두께2.3cm이다.

• 石棒 (그림 35-⑦, 사진 53-⑤)

주거지의 남편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좁고 긴 냇돌의 한쪽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7.7cm 폭 2.4cm 두께 1.4cm이다.

• 半月形石刀 片 (그림 35-⑧, 사진 53-⑥)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대부분이 파손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반달돌칼조각으로 여겨지며 양쪽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4cm 폭 3.8cm 두께 0.7cm이다.

(12) 12호 住居址 (그림 33, 사진 25-②~26-①·27-①)

① 遺構

12호 주거지 역시 3/4 이상이 결실된 상태로 노출되었고 10호주거지의 동편을 파괴하면서 설치되었다. 주거지의 방향은 동 - 서방향으로 추정되며 서편의 단벽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중장비

로 인하여 교란된 상태이다.

바닥면은 10호 주거지 보다 약 30cm정도 더 깊이에서 나오고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깍아 주거지를 설치하였다. 서벽 중간에 치우쳐서 불맞은 소토층이 바닥보다 약 20cm정도 높게 나오고 있으나 유구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기둥구멍은 서벽에서 4개, 북벽에서 1개가 조사되었다. 기둥구멍의 직경은 16cm, 깊이 10cm이고 기둥구멍간 거리는 약 1m 간격으로 뚫려 있다.

서벽 소토층 주변에서 화살촉 3점과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고 바닥은 점토를 깔고 불에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

② 遺物

• 無莖式石鏃 (그림 35-⑨, 사진 53-⑦)

주거지의 서벽 소토층 주변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촉신의 일부가결실되었다. 버들잎 모양의 화살촉으로 단면 편육각형이다. 석질은 셰일로 촉의 꼬리가 길게 뻗어 있다. 촉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고 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되게 혈구가 새겨져 있다. 크기는 길이 6cm 폭 1.4cm 두께 0.4cm이다.

• 無莖式石鏃 (그림 35-⑩, 사진 53-⑧)

주거지의 서벽 소토층 주변에서 파손된 상태로 위의 화살촉과 함께 출토되었다. 버들잎 모양의 화살촉으로 단면 편육각형이다. 석질은 셰일로 촉의 꼬리가 길게 뻗어 있다. 촉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고 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혈구가 새겨져 있다. 크기는 길이 6.7cm 폭 1.2cm 두께 0.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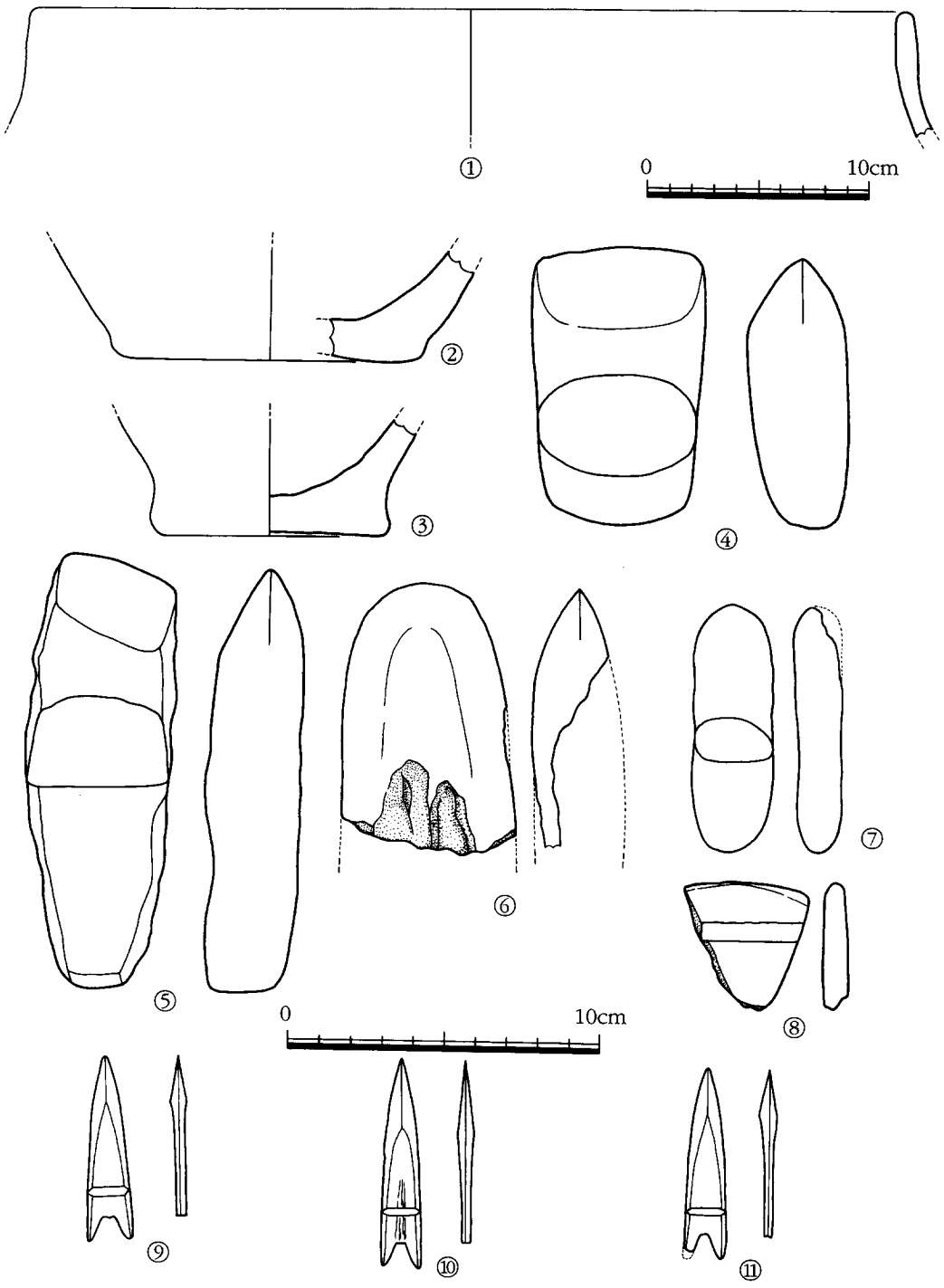
• 無莖式石鏃 (그림 35-⑪, 사진 53-⑨)

주거지의 서벽 소토층 주변에서 꼬리의 한쪽부분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버들잎 모양의 화살촉으로 단면 편육각형이다. 석질은 셰일로 촉의 꼬리가 길게 뻗어 있다. 촉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고 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되게 혈구가 새겨져 있다. 크기는 길이 6.2cm 폭 1.25cm 두께 0.4cm이다.

(13) 13호 住居址 (그림 36, 사진 27-②~28-①)

① 遺構

C 지역의 12호 주거지에서 남편으로 경사진 구릉의 말단부에서 소나무 굴채로 인하여 주거지의



〈그림 35〉 ①~⑧ 포월리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⑨~⑪ 포월리 12호 주거지 출토유물

유구층 단면이 노출되어 확장 조사한 결과 경사면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약 2/3 이상이 없어진 상태 인데다 동편으로 소나무 굴채로 많은 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주거지의 북편 어깨는 현지표하 약 30cm 깊이에서 나왔으며 남벽은 남은 부분이 지표상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주거지의 평면은 장방형이고 동 - 서방향으로 동 -서 길이 약 10.2m, 현존 남-북 폭 약 2.6m, 움 깊이는 북벽 60cm이다.

바닥은 점토를 깔고 불에 구웠으며 서편에서는 바닥이 이중으로 나오고 있다. 북서벽 모서리에서 밑동이 거꾸로된 깊은바리 구멍무늬토기 1개체분이 나왔고 숫돌 1점이 주변에서 나왔다.

북벽에서는 기둥구멍이 7개가 조사되었고 직경 15cm, 깊이 17cm이고 기둥구멍간 거리는 약 120cm 간격으로 뚫려 있다. 또한 북벽에 서편으로 치우쳐서 작업대로 보이는 판석(31cm x 20cm x 3cm) 1매가 세워져서 노출되었고 바닥에서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② 遺物

• 孔列土器 (그림 37-①, 사진 54-①)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편으로 약간 치우쳐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구연부와 저부부분이 완전 복원이 되지 않아 도면 복원하였다. 구연부는 몸통에서 바라지게 올라오다가 안으로 약간 오므라든 형태이며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구연부 0.5cm 밑에는 직경 0.6cm 크기의 공열문을 안에서 밖으로 뚫었는데 반관통된 상태이며 일부는 이탈되어 관통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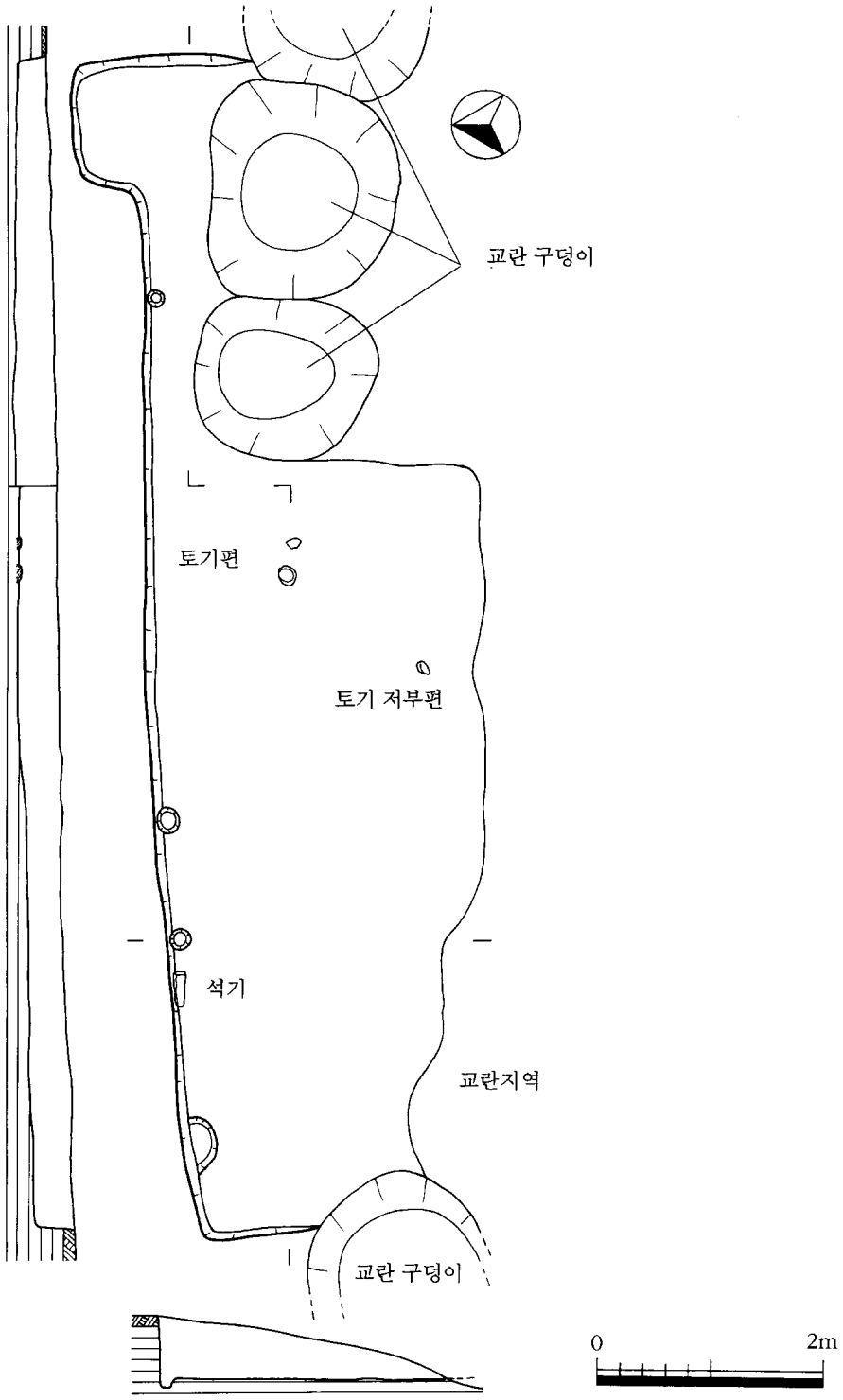
토기의 내 · 외면은 물손질하였으나 기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기벽두께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얇아진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바닥은 두꺼운 편이며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4.8cm 밑지름 7.6cm 바닥두께 1.2cm 현존높이 8cm 기벽 두께 0.7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7-②, 사진 54-②)

주거지의 서벽 어깨선 밑에서 출토되었다. 바닥은 두꺼운 편이며 납작밑 바닥으로 나뭇잎자국이 찍혀 있고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깊게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거칠게 물손질 되었고 외면은 기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6.4cm 현존높이 3.6cm 바닥두께 2.4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7-③, 사진 54-③)

주거지의 남벽 중앙에서 절반가량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바닥은 두꺼운 편이며 납작밑 바닥으로 나뭇잎자국이 찍혀 있고,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그림 36〉 포월리 13호 주거지 실측도

내 · 외면은 거칠게 물손질 되었고 기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9.6cm 현존높이 2.8cm 바닥두께 1.4cm이다.

• 砥石 (그림 37-④, 사진 54-④)

주거지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좁고 납작한 자연석의 위쪽 끝면과 양옆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담녹회색 셰일로 크기는 현존길이 5.1cm 폭 2.6cm 두께 1.8cm이다.

(14) 地表採集遺物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8-①, 사진 55-①)

지표에서 채집된 무문토기 저부이다. 바닥은 두꺼운 편이며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거칠게 물손질 되었고 외면은 기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9.2cm 현존높이 4.9cm 바닥두께 2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8-②, 사진 55-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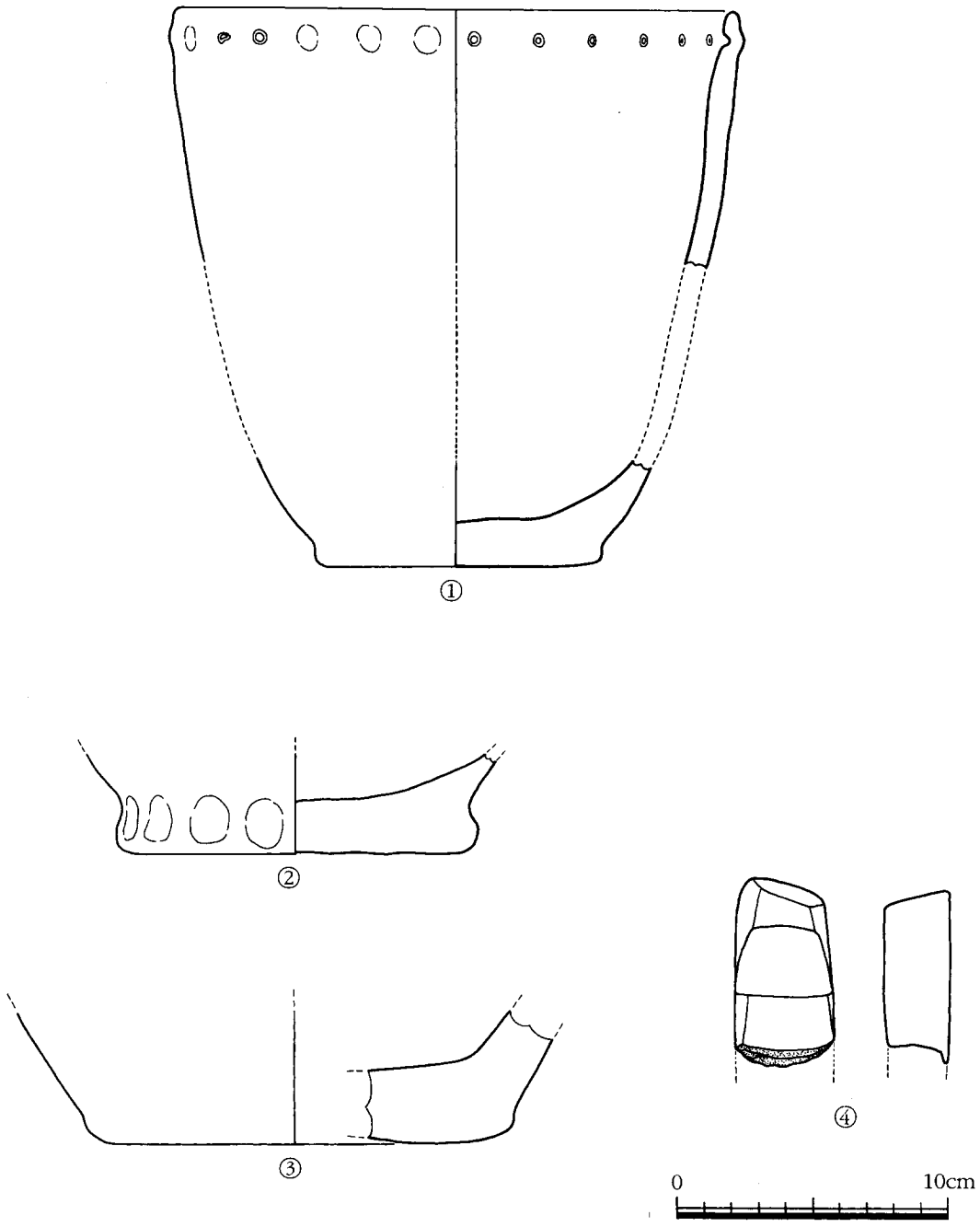
지표에서 채집된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바닥은 들린 바닥으로 가운데가 움푹하게 들어 갔다.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거칠게 물손질 되었고 기면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9.7cm 현존높이 3cm 바닥두께 1.3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8-③, 사진 55-③)

지표에서 채집된 무문토기 저부로 절반가량이 결실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거칠게 물손질 되었고 기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조각이 약간 섞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7.6cm 현존높이 3.1cm 바닥두께 1.8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8-④, 사진 55-④)

지표에서 채집된 무문토기 저부이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내면은 가운데가 움푹하게 들어가 있다. 내 · 외면은 거칠게 물손질 되었고 외면은 기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



〈그림 37〉 포월리 13호 주거지 출토유물

여 있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10.3cm 현존높이 3.2cm 바닥두께 0.8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8-⑤, 사진 55-⑤)

지표에서 절반가량이 결실된 상태로 채집된 무문토기 저부이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매끄럽게 연결된다. 내면은 판목구를 이용해 판목조정하였으며, 외면은 기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밑지름 7.5cm 현존높이 6.7cm 바닥두께 1.1cm이다.

•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8-⑥, 사진 55-⑥)

9호 주거지 퇴적층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이다. 바닥은 두꺼운 편이며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고,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회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10.2cm 현존높이 2.5cm 바닥두께 1.3cm이다.

• **紡錘車** (그림 38-⑦, 사진 55-⑦)

9호 주거지 퇴적층에서 출토된 가락바퀴이다. 석질은 흑색 점판암제로 측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한면만이 갈려 있으며 중앙에는 0.7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크기는 직경 6.2cm 두께 0.35cm이다.

• **無莖式石鏃** (그림 38-⑧, 사진 55-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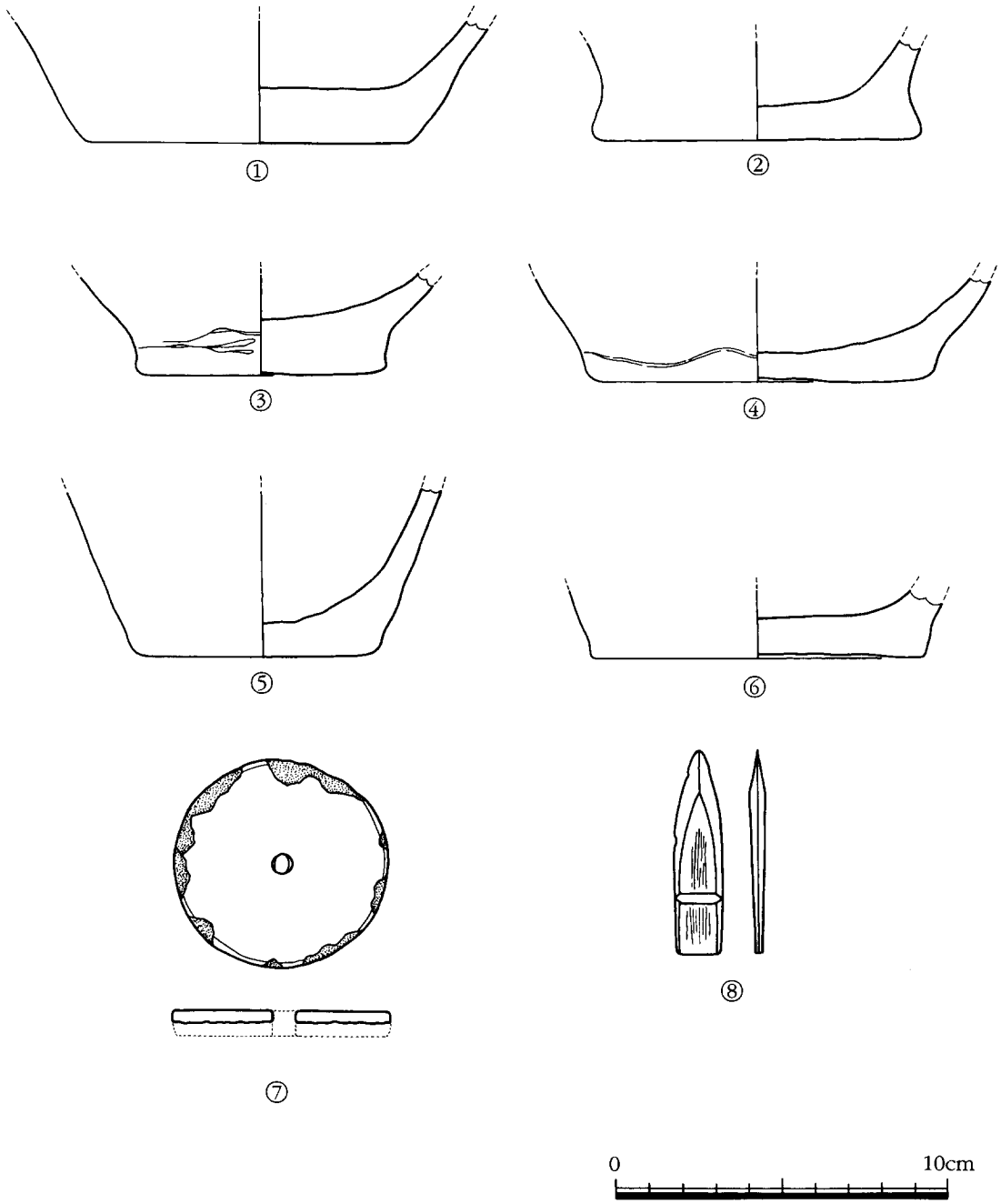
9호 주거지 퇴적층에서 출토된 화살촉이다. 무경식의 버들잎 모양의 화살촉으로 단면 편육각형이다. 촉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고 사선방향으로 마연하였다. 석질은 회녹색 셰일로 크기는 길이 6.1cm 폭 1.35cm 두께 0.45cm이다.

• 돌대패 (그림 39-① , 사진 56-①)

9호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출토된 돌대패이다. 몸통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날은 외쪽날이고 석질은 석영맥이다. 크기는 길이 8.5cm 폭 5.2cm 두께 1.5cm이다.

• **石斧** (그림 39-②, 사진 56-②)

9호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출토된 돌도끼이다. 몸통의 절반이상이 떨어져 나갔으며 납작한 냇돌의 한쪽 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다. 석질은 석영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8cm 폭 5.9cm 두께2.7cm이다.



〈그림 38〉 포월리 지표채집유물

• 石劍 片 (그림 39-③, 사진 56-③)

9호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돌검조각으로 추정되며 중앙에서 한쪽으로 약간치우쳐 능이 세워져 있으며 종방향으로 마연하였다. 석질은 세일로 크기는 현존길이 5.3cm 폭 2.5cm 두께 0.7cm이다.

• 石劍 片 (그림 39-④, 사진 56-④)

5호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병부의 일부분만이 남은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단병식의 병부편으로 병부는 기부쪽으로 점차 곡선을 이루며 넓어지는 형태이다. 단면은 렌즈형이다. 석질은 흑색 점판암제로 크기는 현존 길이 5.6cm 폭 4.2cm 두께 1.4cm이다.

• 半月形石刀 片 (그림 39-⑤, 사진 56-⑤)

5호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대부분이 파손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중앙에는 직경 0.6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고 양쪽면이 거칠게 갈려 있다. 석질은 흑색 점판암제로 크기는 현존길이 5.6cm 폭 3.9cm 두께 0.7cm이다.

• 石斧 (그림 39-⑥, 사진 56-⑥)

지표에서 채집된 돌도끼이다. 길고 배가 불록한 냇돌의 날부분만을 양쪽에서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13.3cm 폭 6.8cm 두께 4.2cm이다.

• 石斧 (그림 39-⑦, 사진 56-⑦)

지표에서 채집된 돌도끼이다. 냇돌의 양쪽면을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는데 날부분은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석질은 석영맥으로 크기는 길이 15cm 폭 5.7cm 두께 3.6cm이다.

• 石斧 (그림 40-①, 사진 56-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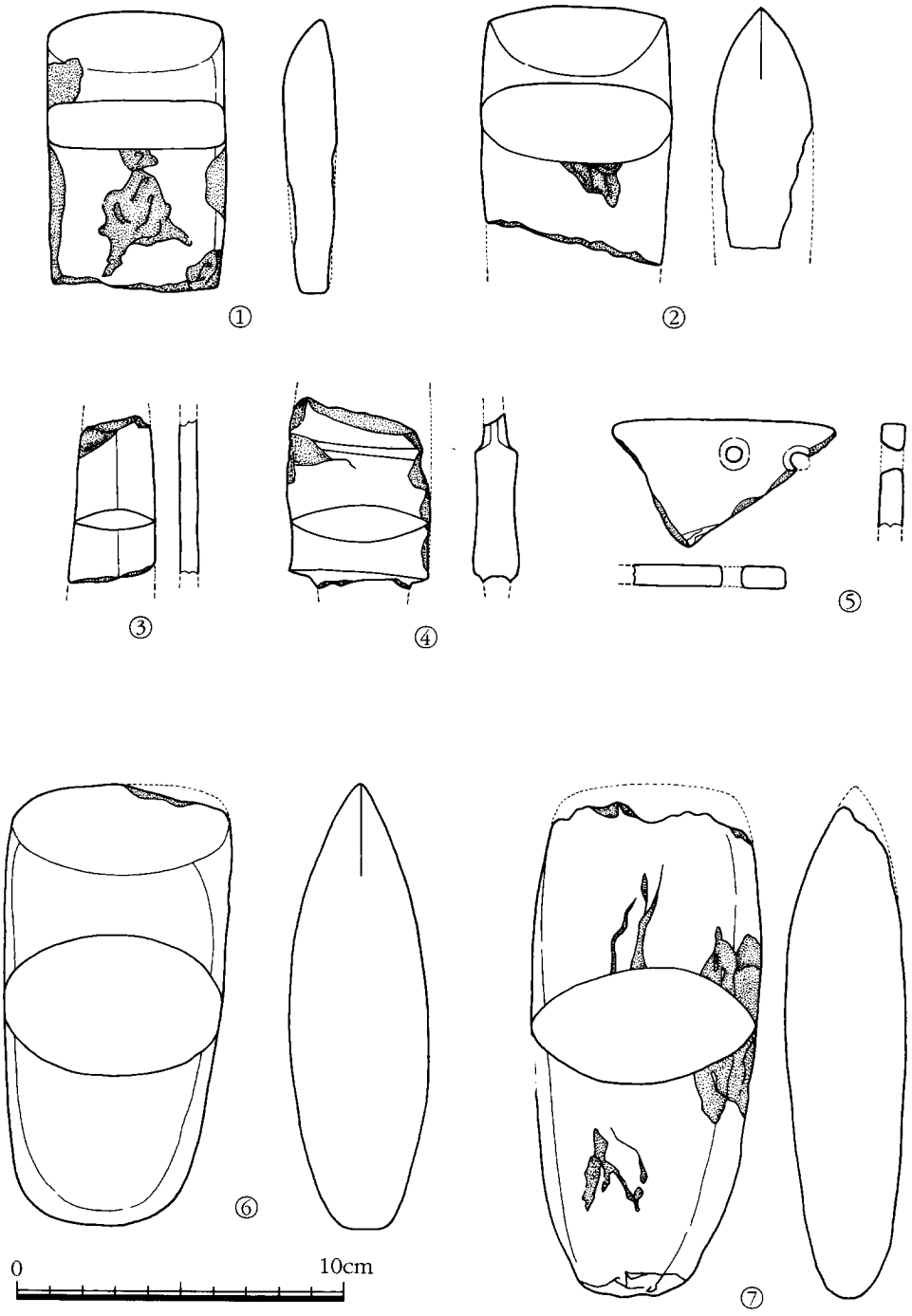
지표에서 채집된 돌도끼이다. 몸통의 곳곳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넓고 볼록한 냇돌의 넓은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다. 석질은 석영맥으로 크기는 길이 12.2cm 폭 6.1cm 두께 3.4cm이다.

• 石斧 (그림 40-②, 사진 56-⑨)

지표에서 채집된 돌도끼이다. 길고 둥근 냇돌의 한쪽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날을 세운 조갯날로 석질은 석영맥이다. 크기는 길이 11.6cm 폭 5.1cm 두께 3.4cm이다.

• 石斧 (그림 40-③, 사진 57-①)

지표에서 채집된 돌도끼이다. 길고 둥근 냇돌의 한쪽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조갯날을 만들었다.



〈그림 39〉 포월리 지표채집유물

날이 무딘 것으로 보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석질은 석영맥으로 크기는 길이 11.6cm 폭 4.6cm 두께 3.8cm이다.

• 石斧 (그림 40-④ , 사진 57-②)

지표에서 채집된 돌도끼이다. 길고 납작한 냇돌의 한쪽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날을 세운 조갯날로 석질은 석영맥이다. 크기는 길이 9.6cm 폭 4.7cm 두께 2.2cm이다.

• 有莖式石鏃 (그림 40-⑤, 사진 57-③)

지표에서 채집된 2단경식의 화살촉이다. 촉과 슴베의 일부가 결실되었고, 촉신의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고 종방향으로 마연해 인부를 형성하였다. 촉은 단면 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 있다. 석질은 흑색 세일로 크기는 현존길이 7.1cm 폭 1.5cm 두께 0.6cm이다.

• 石劍 片 (그림 40-⑥, 사진 57-④)

지표에서 병부의 일부분만이 남은 상태로 출토되었다. 병부는 기부쪽으로 점차 곡선을 이루며 넓어지는 형태이다. 단면은 렌즈형이다. 사선방향으로 마연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 있다. 석질은 담회색 세일로 크기는 현존 길이 3.7cm 폭 5.2cm 두께 1cm이다.

• 돌대패 조각 (그림 40-⑦, 사진 57-⑤)

지표에서 채집된 돌대패이다. 날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날은 외쪽날이다. 석질은 담회색 세일로, 크기는 길이 6.3cm 폭 5.4cm 두께 0.8cm이다.

• 砥石 片 (그림40-⑧, 사진 57-⑥)

지표에서 채집된 지석편이다. 길고 납작한 냇돌의 상면과 양쪽 측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규장질 암맥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7.1cm 폭 4.5cm 두께 1.9cm이다.

• 石棒 (그림 40-⑨, 사진 57-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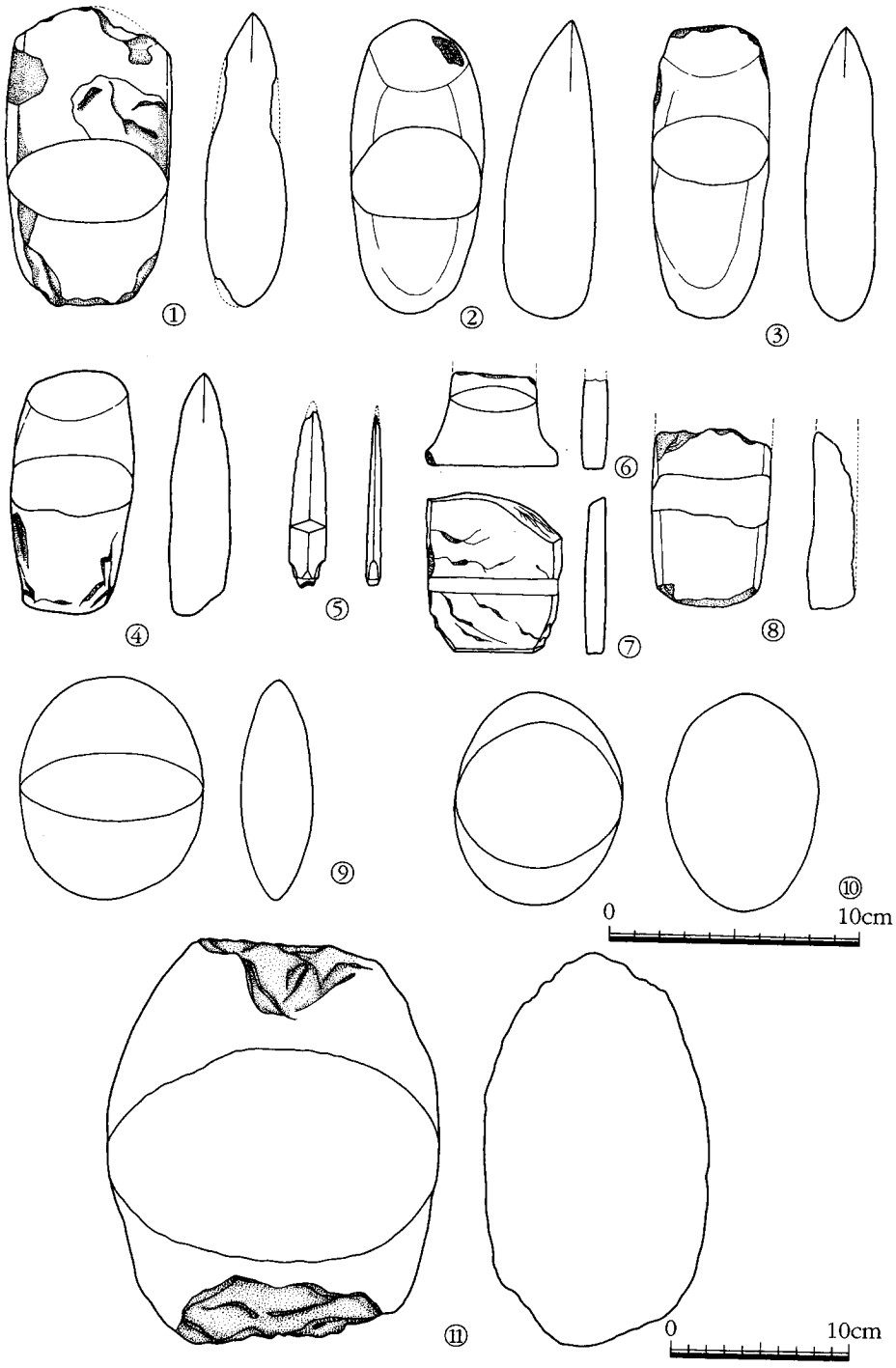
지표에서 채집된 석봉이다. 둥글고 납작한 냇돌의 한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9cm 폭 7.2cm 두께 2.9cm이다.

• 石棒 (그림 40-⑩, 사진 57-⑧)

지표에서 채집된 석봉이다. 둥근 냇돌의 한면이 곱게 갈려 있다. 석질은 반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6.5cm 폭 6.7cm 두께 6.2cm이다.

• 漁網錘 (그림 40-⑪, 사진 57-⑨)

지표에서 채집된 대형 어망추이다. 둥글고 납작한 큰 냇돌의 양쪽 모서리를 떼어내어 어망추로



〈그림 40〉 포월리 지표채집유물

사용하였다.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크기는 길이 23cm 폭 19cm 두께 12.5cm이다.

2. 支石墓

(1) 1호 무덤 (그림 41 , 사진 28-②~30-①)

A지역의 1호 주거지 동북방향으로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지석묘의 하부구조로 보이는 유구의 상면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확장 조사한 결과 석곽의 상면은 정연하게 잘 남아 있었고 서편 석곽의 외곽에서 민무늬토기밑동편이 출토되었다.

지석묘의 하부구조는 먼저 남-북 240cm, 동-서 폭 160cm의 구덩이를 판다음 바닥은 아무런 시설 없이 생토면에 곧바로 면이 고른 할석을 안쪽으로 향하여 석곽을 쌓았고 석곽의 남-북 길이 165cm, 동-서 폭 62cm, 깊이 62cm이다.

석곽 안의 흙은 고운 황갈색점토로 채웠으며 유물출토는 전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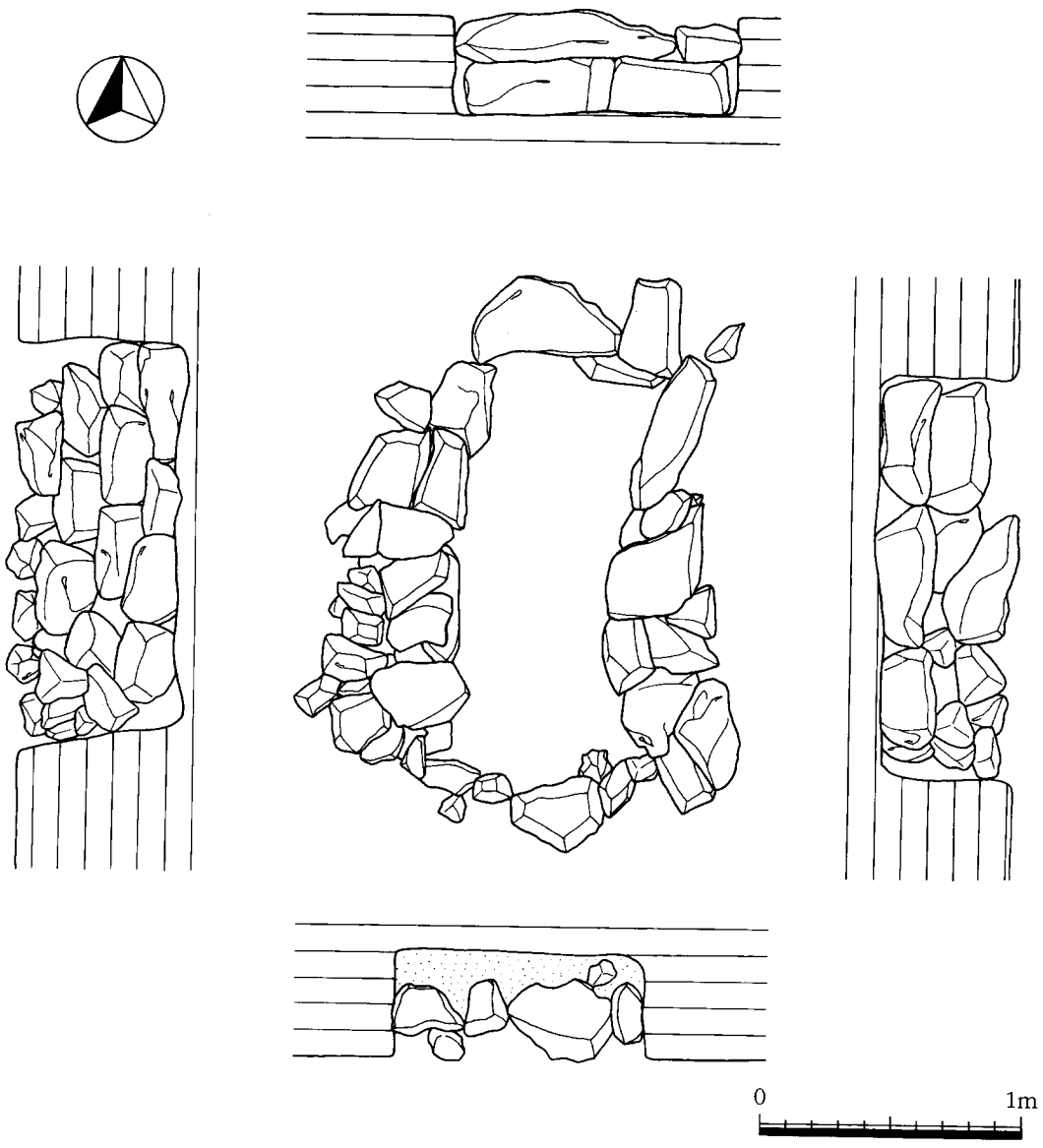
(2) 2호 무덤 (그림 42 , 사진 30-②~31)

B지역의 남쪽 구릉 정상에서 5호 무덤의 동쪽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 석곽의 상면이 지표면에 노출된 상태였다.

먼저 유구가 노출된 상면에 남북으로 길이 2m, 폭 50cm의 탐색조사갱을 넣은 결과 지석묘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이 노출되어 다시 동서로 + 字 모양의 조사갱을 넣어 조사하여 확장한 결과 지석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유구가 남 - 북 방향으로 노출되었다.

석곽유구는 남-북 240cm, 동-서 160cm 크기로 구덩이를 판 다음 석축을 쌓았으며 남편은 1매의 판석(80cm × 47cm × 15cm)을 가로 방향으로 세웠고 나머지 동, 서벽은 할석(크기 : 30cm × 25cm × 15cm)으로 촘촘히 쌓아 석곽을 마련하였으며 북벽은 2매의 판석을 세워서 마감하였으나 동벽이 일부 파손된 상태였다.

주검바닥은 벽에 쌓은 돌과 같은 크기의 할석으로 2줄로 나란하게 깔았다. 2호 역시 석곽안에는 황갈색의 고운점토를 채웠고 유물 출토는 전혀 없었다.



〈그림 41〉 포월리 1호 지석묘 실측도

3. 新羅時代 古墳

(1) 1호 고분 (그림 43 , 사진 32-①)

B지역의 북쪽 구릉 정상에서 노출된 2호 주거지의 남편 어깨선에 접해서 북서-동남 방향(북 → 서 48°)으로 노출되었다. 석곽안의 주검바닥은 작은 냇돌을 촘촘히 박아 평편하게 마련하였고 석곽의 길이는 2.7m, 폭 1.7m, 높이는 2단으로 30cm이고 석곽에 사용된 돌의 크기는 54cm × 36cm × 17cm이다. 무덤의 내 .외곽에서는 유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출토는 전혀 없었으나 新羅時代 고분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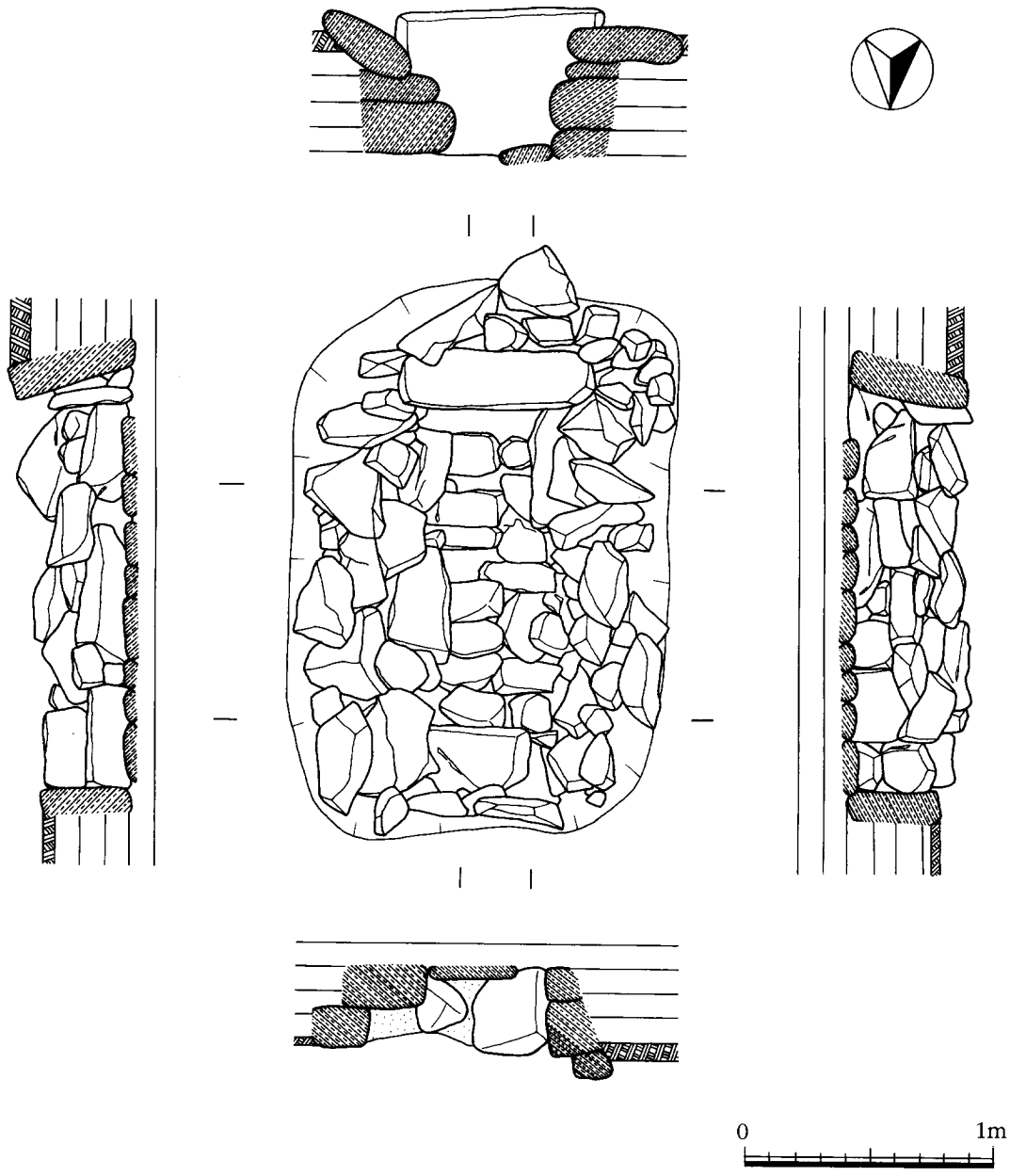
(2) 2호 고분 (그림 44 , 사진 32-②~33-①)

C지역의 6호 주거지 상면에서 노출되었다. 석곽 안쪽에는 폭 60cm로 주검바닥을 마련하였고 석곽과 주검바닥 사이에는 잡석을 채워 넣었다. 무덤은 남-북방향으로 현존 남-북 길이 2.7m, 폭 0.9m이고 2호 고분 역시 유물출토는 전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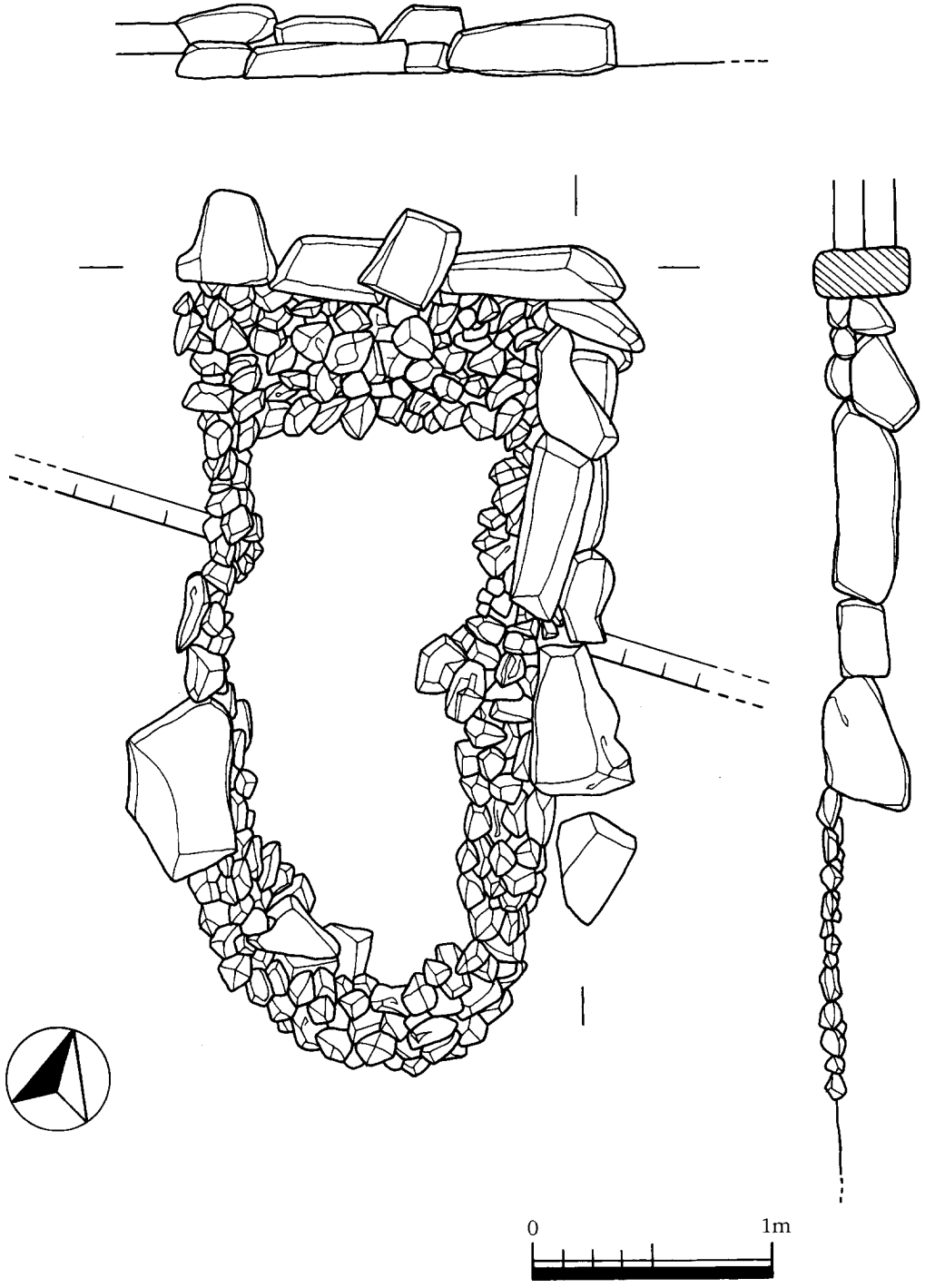
(3) 3호 고분 (그림 45-①, 사진 33-②~37-①)

B지역의 남쪽 구릉 5호 주거지에서 약 35m 떨어진 지점의 현지표하 10cm 깊이에서 입구의 상면이 노출되었고 일부 돌들이 지표에 노출된 상태였다. 표토층을 제거하자 방형의 석실 유구가 노출되었다. 석실은 현재 남편은 1단만 남아 있고 북편은 1~2단만 남아 있다. 동벽은 절반이상이 파괴되어 가운데는 석축이 없어진 상태이다. 서편은 1~2단으로 4벽중 가장 잘 남아 있다. 석실의 크기는 3.3m x 3.2m이고 석축에 사용된 돌의 크기는 74cm × 5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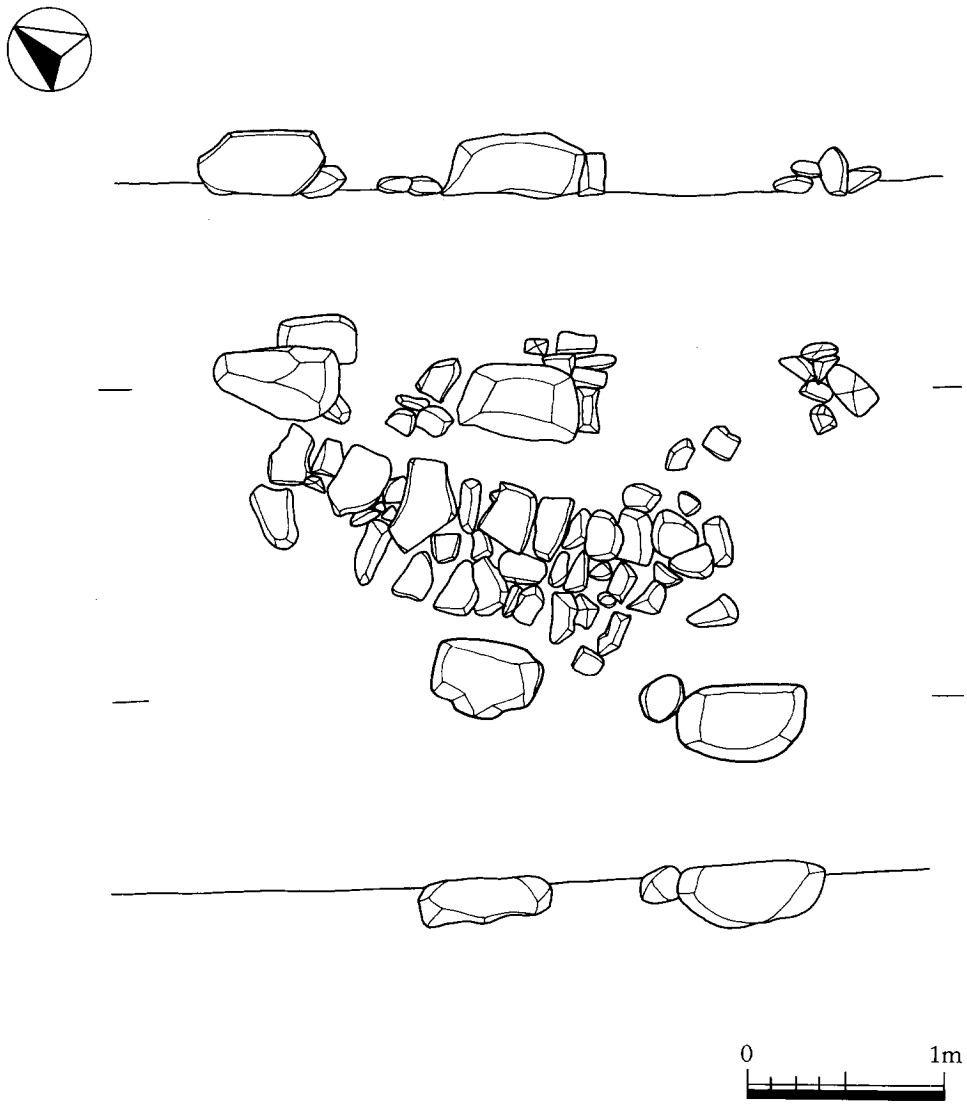
먼저 유구의 상면을 완전히 노출시킨 다음 실측과 사진촬영을 끝내고 방형의 유구 안에 +字모양으로 30cm 두께의 뚝을 남기고 차례로 퇴적된 부식토를 제거하였다. 퇴적된 부식토를 약 5cm정도 제거하자 남편 석축에 인접해서 금동관고리 1점이 고리가 상면을 향한채로 노출되었다. 관고리의 직경은 약 7.4~7.6cm이고 고리 밑에 부착된 금동판에 4개의 인동무늬가 장식되었고 고리와 관을 연결하는 못은 고리를 감싸고 안으로 박혀서 빠지지 않도록 꺽어 놓았다. 관고리에 부착되어 남아 있는 목질로 보아 목관은 두께 약 2cm~1.5cm의 판자 3개를 결이 반대로 되게하여 부착했음을 알



〈그림 42〉 포월리 2호 지석묘 실측도



〈그림 43〉 포월리 신라시대 1호 고분 실측도



〈그림 44〉 포월리 신라시대 2호 고분 실측도

수 있다. 계속해서 퇴적토를 제거하자 처음 나왔던 금동관고리가 계속해서 노출되었고 바닥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7개의 관고리가 노출되었다. 현재 관고리는 거의가 중앙에 위치하여 노출되었고 주변에서 많은 양의 관못(크기:길이 7cm)들이 노출되었다.

석축 유구의 상면에서 약 40cm정도 깊이에서 주검 바닥이 노출되었는데 유구의 형태로 보아 추가장이 이루어 진것으로 판단되며 1차 주검바닥은 서편에 붙어 남-북 방향으로 길게 안치되었으며 동편에 1줄로 활석을 이용하여 경계를 만들었고 안쪽에는 10cm내외의 둥굴둥굴한 냇돌을 깔아 주검바닥을 마련하였고 밑 바닥은 동편의 주검바닥처럼 평편한 활석을 깔아 2단으로 처리하였다. 동편에 2차로 추가장이 이루어 진것으로 보이는 주검바닥은 활석(20 × 15 × 10cm)만 이용하여 주검바닥을 마련하였다.

1차 주검바닥의 북편 중앙에 위치하여 가는고리귀걸이 1점이 출토되었으며 고리만 남아 있고 장식은 부식되어 결실된 상태이다. 1차 주검바닥이 2차 주검바닥보다 약10cm정도 나 높게 안치되었으며 1차, 2차 주검바닥의 크기는 남 - 북 길이 262cm, 폭 8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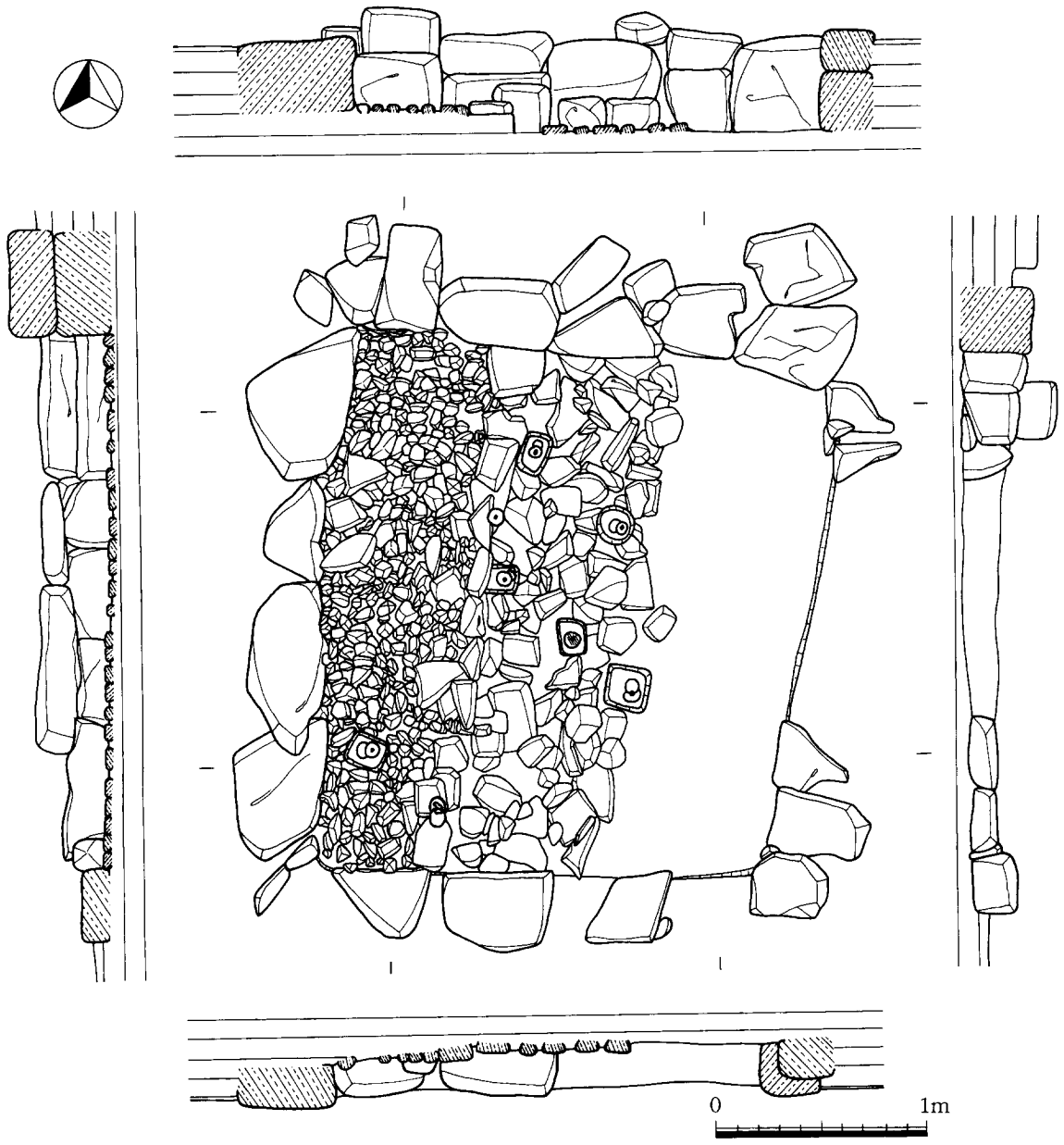
석실의 출입구는 凸字 모양의 구덩이 안에 석실이 안치되었고 동남쪽으로 부식된 토층이 노출된 점으로 보아 출입구는 남동편 모서리에 치우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 **金銅 관고리** (그림 45-②, 사진 58-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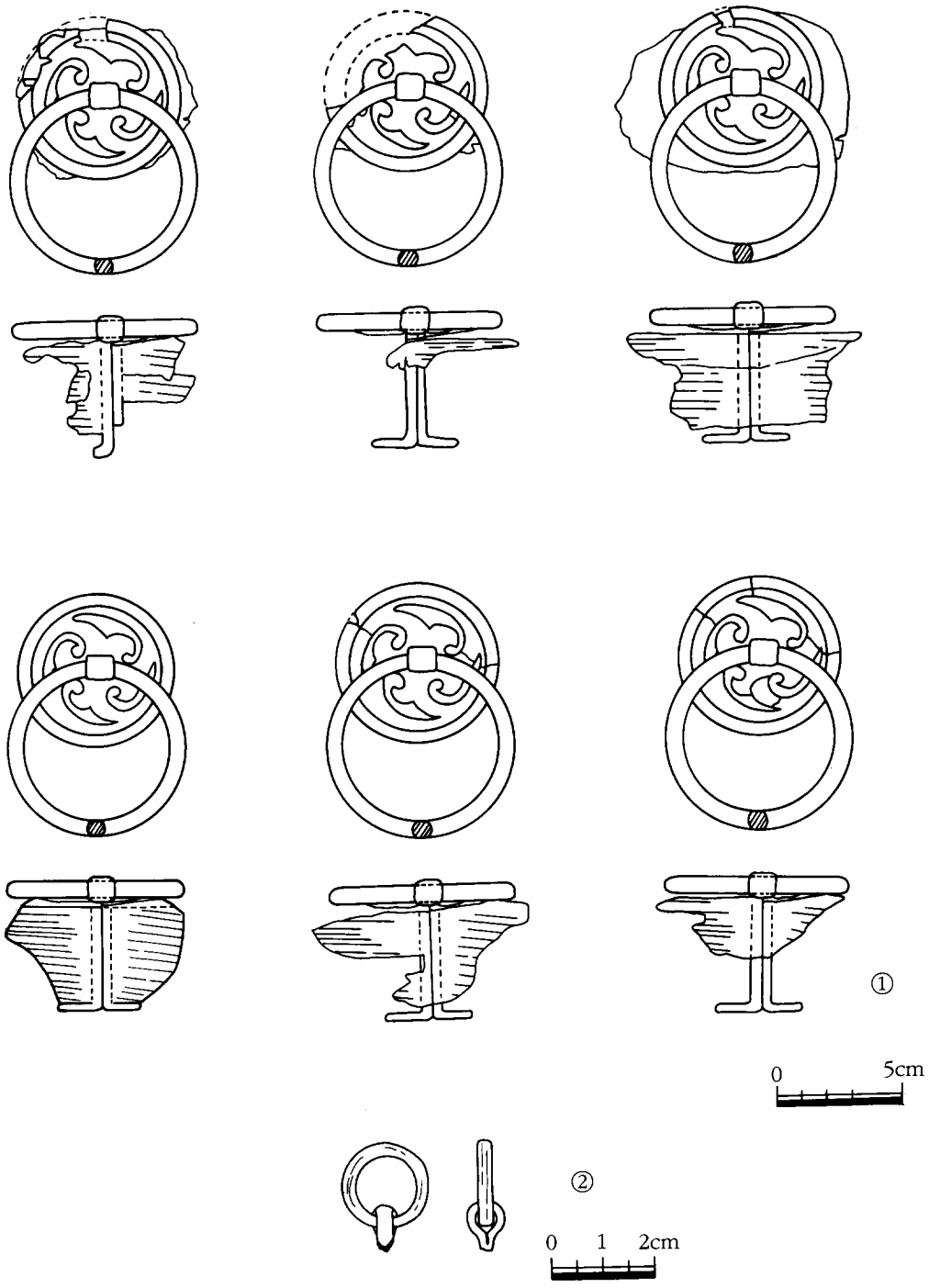
퇴적된 부식토를 약 5cm정도 제거하자 남편 석축에 인접해서 금동관고리 1점이 고리가 상면을 향한채로 노출되었고 바닥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바닥의 중앙에 위치하여 7개의 관고리가 노출되었다. 관고리의 직경은 약 7.4~7.6cm이고 고리 밑에 부착된 금동판에 4개의 인동무늬가 장식되었고 고리와 관을 연결하는 못은 고리를 감싸고 안으로 박혀서 빠지지 않도록 꺽어 놓았다. 관고리에 부착되어 남아 있는 목질로 보아 목관은 두께 약 2cm~1.5cm의 판자 3개를 결이 반대로 되게 하여 부착했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직경 7~7.5cm 고리두께 0.7cm 고리판 직경 6.6cm이다.

• **細 耳飾** (그림 45-③, 사진 58-③)

주검바닥의 북편 중앙에 위치하여 출토되었는데 고리만 남아 있고 장식은 부식되어 결실된 상태이다. 크기는 직경 1.8cm 고리두께 0.35cm이다.



〈그림 45〉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석실묘) 실측도



〈그림 46〉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석실묘) 출토유물

V. 考察

1. 住居址

포월리 유적은 양양군의 농공단지 조성부지로 책정되어 수목벌채작업 중 이미 지표가 상당부분 삭평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거지들이 다소 파괴되어 있었으며, 조사된 13기의 주거지 이외에도 더 많은 주거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1〉은 양양군 포월리에서 확인된 주거지 13기의 형태와 내부시설에 대한 집성표이다. 포월리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구릉의 능선을 따라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고 주거지를 마련하였고 바닥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점토를 깔아 다졌으며 일부 주거지에서는 벽채에 판자를 세웠던 흔적과 어깨 밑에 벽선을 따라 홈이 파여진 곳도 조사되었다.

포월리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대부분이고 말각장방형이 1기(3호). 방형이 2기(6호 · 9호)이다[27].

주거지의 방향은 동→서방향이 7基, 남→북방향이 3基, 남서→북동방향이 2基, 남동→북서방향이 1基로 노출되었고, 주거지의 배치는 약 400m의 간격을 두고 3~4기가 한 조를 이루고 있는 배치양상을 보이고 있다[28].

주거지 규모는 10평 이상이 3基(1호 · 4호 · 7호), 9평~5평 사이가 4基(, 5평 이하가 1基이고 나머지는 주거지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대부분 10평 이하의 소형주거지이고 10~15평 사이의 중형 주거지가 2기(1호, 4호)이고 대형주거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혈의 깊이는 70㎝정도로 깊은 곳도 있으나 벽이 결실된 부분은 주거지의 안쪽과 바깥쪽 바닥의 Level이 같은 곳도 있다. 벽이 결실된 곳도 기둥구멍 자리는 대부분 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의 윤곽은 잘 구분된다. 포월리 주거지도 구릉 정상부의 지형이 고르지 않은 풍화된 암반층을 파들어가 바닥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움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으며, 벽이 없는 것도 경사면인 땅을 파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난 본래부터의 모습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벽이 없는 쪽이 출입구로 활

27) 주거지 평면형태의 구분은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장단비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장단비 1:1.5 미만을 방형, 1: 2.5 미만을 장방형으로 구분하였다.

28) 주거지의 배치상태가 2~3기의 주거지가 一組로 배치된 규칙적인 양상을 보이는 배치양상은 속초 조양동 주거지, 강릉 방내리 주거지 등 강원 영동지역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확인된다.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속초 조양동 주거지》

〈표1〉포월리주거지집성표

번호	평면 형태	방향	크기	면적	수혈 깊이	바닥	화덕 자리	기둥 구멍	홈시설	저장공	비 고
1호	장방형	북서-동남 (북→서50)°	9.6m×4.3m	41㎡(약12평)	34cm	粘土다짐		18개	기둥구멍 사이를 연결한 홈		
2호	장방형	북서-남서	7.1m×4.3m	31㎡(약9평)	70cm	粘土다짐		9개	홈(기둥구멍 사이 이중홈)	2개	出入口 (남서쪽)
3호	말각 방형	남서-동북	3.8m×2m	8㎡(약2평)	66-22cm	粘土다짐					
4호	장방형	동-서 (동→남18)°	8m×5m	40㎡(약12평)	32cm	粘土다짐 (燒土)		11개		1개	
5호	장방형	남-북 (북→서20)°	6.9m×4.2m	29㎡(약9평)		粘土다짐 (燒土)		10개		2개	
6호	방형	동-서 (동→서10)°	5.3m×4m	21㎡(약6평)	40cm	粘土다짐 (燒土)	불맞은燒土層(바닥면보다 깊음)	북서중앙 선상에 角形 1개	남벽에 홈 기둥과 연결	2개	
7호	장방형	동-서 (동→북30)°	9m×3.7m	33.3㎡ (약10평)		粘土다짐		없음	북쪽벽 밑에 홈		벽체숯판자, 벽체와판자 사이에 점토
8호	장방형	동-서 (동→북18)°	12.6m×?	?	35cm	粘土다짐		5개	북쪽벽 밑에 홈	2개	남북벽삭평
9호	방형	남-북 (동→북70)°	5.3m×4.3m	22.8㎡ (약 6.9평)	50cm			7개	2단 홈 (동·북벽)	1개	
10호	?	동-서	?×4m	?	20cm			4개			동벽 모두 파괴됨
11호	장방형	남-북 (북→서15)°						4개			서·북벽 일부만잔존
12호	?	동-서						5개			
13호	장방형	동-서	10.2m×2.6m	?	60cm			7개			

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풍화된 암반층을 파 들어가 조성하였고 그 위에 점토를 얇게 깔고 다졌으며 4호, 5호, 6호에서는 바닥에서 소성도 보였으나 화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조성할 때 구운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기둥구멍은 주거지들의 4벽 바로 밑에서 확인되었으며 6호에서만 바닥의 중앙에 네모의 기둥자리가 1개 확인되었다. 화덕자리는 6호에서는 바닥면보다 한층 낮은 Level에서 불 맞은 소토가 나타났을 뿐 특별한 시설이 없는 무시설식(토광형)화덕자리가 확인되었다. 한편 5호와 9호에서는 불맞은 소토가 확인되어 화덕자리로 추정된다.

대부분 주거지에서 1~2개의 구덩이가 발견되었는데 모양과 크기는 다양하지만 저장용 토기[29]를 묻어 두는 저장용 구덩이로 추정된다.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주거지에서는 이러한 저장구덩

이가 보편적으로 확인된다[30].

홈(溝)은 1호, 2호, 6호, 7호, 8호, 9호에서는 벽과 병행하는 홈이 확인되는데, 2호와 6호에서는 홈이 기둥구멍 사이에 연결되어 있었고, 9호에서는 내외 2줄로 된 홈도 나타났는데 북벽 어깨 밑에 파여진 홈(溝)은 기둥구멍과 서로 연결되어 파여져 있는 반면 동벽은 기둥구멍이 벽채에서 약간 떨어져서 홈(溝) 안쪽으로 파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홈은 파여진 위치와 바닥의 레벨이 대체로 홈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점, 그리고 움의 벽이 흠실된 쪽에는 홈이 없는 점으로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붕이나 벽체를 통하여 스며드는 물기를 제거하는 제습용 홈[31]으로 여겨진다.

한편 벽과 판자 사이에는 바닥에서 보이는 고운 점토가 채워져 있었고 판자 안벽에도 고운 점토가 붙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벽에는 판자시설을 하였고 흙벽과 판자 사이의 공간에는 고운 점토를 채워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32]. 벽채 안쪽으로 서로 연결되어 파여져 있는 홈(溝)은 아마도 습기가 안쪽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습용 홈은 영동지역과 영남지역의 청동기시대 많은 주거지에서 확인되나, 강원 영서지역이나 한강유역의 강가 충적지상에 축조된 주거지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33].

2. 支石墓

포월리 지석묘는 석곽형 지석묘[34]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1, 2호무덤 모두 뚜껑돌이 결실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석곽의 형태는 長方形으로 1호 무덤은 고른 할석을 안쪽으로 향하여 석곽을 쌓았고, 2호 무덤은 남편은 1매의 판석을 가로 방향으로 세웠고 나머지 동, 서벽은 할석으로 촘촘히 쌓아

---

29)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완형으로 복원된 토기는 대부분 주거지의 저장공 내부나 저장공 주변에서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

30) 강릉 교동 유적에서 14개, 방내리 유적에서 12개, 조양동 유적에서 20개가 확인 되었다. 대부분의 유적에서 주거지당 1~2개가 확인되나 조양동 4호 주거지에서는 6개의 저장공이 확인되었다.

31) 이러한 제습용 홈은 周溝 , 壁溝로 보고되며, 주거지의 四壁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시설, 주거지내의 배수시설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영민, 2000,〈울산 연암유형 주거지의 검토〉《울산연구 2》 울산대학교 박물관.

32) 이러한 판자벽 뒤에 고운점토로 뒷 채움한 흔적은 강릉 교동 청동기시대 1호, 5호 주거지, 방내리 주거지등에서 확인되며, 철기시대의 강릉 교항리 유적, 강릉 병산동유적 등 철기시대 주거지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33) 주거지의 입지조건에 따라 축조방법과 공간이용이나 내부시설이 차이를 보인다.

34) 영동지역 지석묘 47기 중 墓室이 확인된 13基 중 石棺形이 7基, 石槨形이 6基로 구분된다. 석곽형은 할석이나 자연석을 2~3단 쌓아 축조한 형태로 석곽의 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다. 영동지방에서 석곽형에 해당하는 지석묘는 포월리 1.2호와 속초시 조양동 1.2호, 강릉시 장현동 1호, 동해시 미노리 1호 등이다.
고동순, 1995.〈강원영동지방의 지석묘에 관한 고찰〉《정현 백홍기 박사 화갑기념논총》한국상고사학회.

석곽을 마련하였으며 북벽은 2매의 판석을 세워서 마감하였으나 동벽이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다. 주검 바닥의 경우 1호무덤의 주검바닥은 생토층 바닥으로 처리한 반면 2호무덤은 할석과 납작한 냇돌로 주검바닥을 마련하였다.

3. 新羅時代 古墳

포월리에서 발굴조사에서 신라시대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 2개소, 方形의 돌방무덤 1개소 등 모두 3基가 노출되었으나 모두 도굴되었다.

1·2호 고분은 石槨墓로 평면형태는 長方形으로 2기 모두 주거지의 상면에서 확인되었는데 장축방향은 1호 고분이 북서-동남 방향, 2호 고분이 남-북 방향이다. 석곽은 주로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고, 석곽안의 주검 바닥의 경우 1호는 작은 냇돌을 박아 평편하게 마련하였고, 2호 고분은 비교적 큰 할석을 깔았다. 고분 안에서는 유물 출토가 없어 정확한 편년이나 성격 등을 밝혀 낼 수는 없었으나 신라시대 고분으로 추정된다.

한편 방형의 돌방고분인 3호 고분의 축조형식은 新羅時代고분으로 추정되나 고분안에서 신라시대 고분으로 단정지을 만한 유물 출토는 전혀없었고 단지 금동 관고리 7점이 출토되었으며 고리판에 장식된 문양으로 보아 高句麗系로 추정되나 좀더 자료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다.

4. 遺物

1) 住居址 出土遺物

(1) 土器類

포월리 주거지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기의 출토량이 적으나 2호에서 1점, 4호에서 2점의 완형토기가 출토되었다. 포월리의 주거지에서는 9호에서만 대부소호 굽조각편 1점 구연부편 1점의 적색토기가 출토되었을 뿐 그 밖에는 모두 무문토기만이 출토되었다.

무문토기의 바탕흙은 굵은 모래(또는 돌가루)가 섞인 거친 진흙(점토)이 사용되었으며, 색조는 갈색계통으로 적갈색, 흑갈색도 있으나 황갈색이 대부분이다.

2호에서 출토된 완형의 토기는 구연부가 현저히 좁아졌다가 외반하고 배가 둥근 호형 토기이고

〈표 2〉 포월리 주거지 출토 토기 집계표

종류별 / 호수별	민무늬토기 (無文土器)							赤色土器
	完形			口緣部 片		底部 片		
	深鉢形	壺形	其他	直立口緣部	外反口緣部	I (축약된 것)	II	
1호				4	3	9		
2호		1		3		2		
3호								
4호	2					3		
5호					1	3		
6호								
7호								
8호						1		
9호						2		굽조각1점, 구연1점
10호					1	1		
11호					1	2		
12호								
13호	(1)			1				
계	2(1)	1		8	6	26		2

※ ()안의 숫자는 도면복원 한 토기의 개체수임.

4호에서 출토된 2점의 完形의 토기는 모두 직립구연에 구멍무늬가 장식된 심발형 토기이다. 2호와 4호에서 출토된 이 두 유형의 토기는 각각 다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나 2호에서는 호형토기와 함께 구연부에 구멍무늬가 장식된 직립구연 토기편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두 유형의 토기는 같은 시기의 토기인 것으로 여겨진다. 포월리 주거지에서는 많지는 않으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연부편 16점, 저부편 26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든 구연부편과 저부편의 바탕흙과 색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대부분 토기편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기형을 알 수는 없으나, 구연부편은 직립구연편(14편중 8점)과 외반구연편(14편중 6점)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직립구연편은 모두 구연부에 구멍무늬가 장식된 것이다. 완형으로 복원된 토기를 포함한 포월리 주거지의 모든 직립구연토기는 공열문이 장식된 것인데 포월리의 공열문은 1~2예외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토기의 공열문은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된 것이다.

구멍무늬 중에는 관통된 구멍무늬도 있으나 이것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토기표면의 도드라진 부분이 파손되어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나타난 형태인 것이 분명하다. 저부편은 모두 접합부분이 일

단 축약되었다가 동체부로 연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밑이 들린바닥은 없고 모두 납작바닥뿐이다.

적색토기(대부소호)[35]는 겉면에 붉은 점토칠[36]을 하였으나 마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기벽은 3~5㎜ 정도로 얇은 편이며, 안쪽 면은 손질 또는 빗질 등에 의하여 잘 정면되었다. 바탕흙은 정선된 진흙에 미세한 운모가루와 석영이 섞여 있다.

(2) 石器類

포월리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기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토량이 많지는 않으나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강원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마제석기이다. 포월리 유적에서 보여지는 석기의 공반상은 석부 · 석촉 순으로 빈도양상을 보이며, 방추차는 확인되지 않는다[37].

(가) 石劍

돌칼(석검)은 2단병식과 1단병식의 두 종류가 있는데 9호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2단병식의 석검은 자루에 새겨진 홈이 자루의 몸통둘레에 돌려진 보통형식이 아니라 납작한 자루의 몸통 상 하단에만 홈을 새긴 것으로서 2단병식의 홈자루라기 보다는 1단병식 석검의 민자루 상 하단에만 조그만 홈을 새긴 것처럼 보이는 것이며 칼끝은 부러져서 다시 수정 마연한 것처럼 보인다. 양쪽날은 예리하게 마연되어 실용적으로 사용된 석검인 것처럼 보인다.

(나) 半月形石刀

반월형석도는 6점이 출토되었는데 5점은 파손된 상태이다. 모두 반달모양이지만 구멍이 뚫린 등쪽이 굽은 曲背彎刃 형태의 舟形이다.

---

35) 대부소호는 천안 청당동 1호, 천안 백석동 6호, 여주 흔암리, 충주 조동리, 하남 미사리 숭실대 A지구 주거지, 서울대 A-3 · A-9호, 고려대KK-158호, 평창군 후평리 · 계장리 지표채집, 제원 양평리 B지구, 부여 송국리 54-5호 주거지 등 대 체로 전기의 장방형 주거지에서부터 중기의 송국리유적까지 보이며,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도 지역에서 한정된 폭과 분포범의를 보인다.
김재홍, 1995,〈청당동 II〉《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27.

36) 이러한 덧칠현상은 1차적으로 토기를 제작한 다음 붉은 점토칠을 내 · 외면에 칠한 다음 재벌구이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몽룡 외, 1997.《남한강유역의 선사문화》 서울대학교 박물관.

37) 강원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석기의 공반상은 각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환경과 밀접한 환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포월리유적은 다른 청동기시대 유적보다는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은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다.

〈표 3〉 포월리 주거지 출토 석기 집계표

종류별 / 호수별	돌도끼	돌칼			돌대패	반달돌칼	돌창	갈돌		그물추		石鏃				지석	기타
		I 1단	II 1단	片				판	돌	석제	토제	三角形族	三角形彎入族	菱形族	有經族		
1호	3	1		2	3	(2)	(1)	5	5				3(1)		2	7	
2호	2						(1)	2	1				3			3	
3호							(1)				2					1	
4호	1					1(1)		2	1						1	3	
5호						(2)									1		
6호																	
7호																	
8호	1				1												
9호	1		1		1										1	2	
10호																	
11호	3								1								
12호													3				
13호																1	
계	11	1	1	2	5	1(5)	(3)	9	8		2		9(1)		5	17	

(다) 石鏃

화살촉은 14점이 출토되었는데 有莖鏃은 4점으로 一段有莖鏃이 1점, 二段有莖鏃이 3점이다. 슴베가 없고 뿌리부분이 만입한 三角灣入鏃은 10점이 출토되었다.

(라) 漁網錘

어망추는 2점 모두 土製로 대롱 모양의 형태로 중앙에는 0.7~1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마) 其他石器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창은 유경식 석창으로 일부만 남은 창신의 중앙에 능이 세워져 있으며 하단부에 양쪽으로 홈을 만들었고 미늘역자식으로 이단의 날개가 형성되었다. 단면은 렌즈형이고, 경부 단면은 장방형이다. 2호 출토 석창은 단면은 렌즈형이고 창신 중앙에는 능이 세워져 있으며 하단부에는 혈구가 새겨져 있다. 경부의 단면은 장방형으로 끝부분 일부가 결실되었다. 3호 출토 석창은 슴베가 결실되고 창신의 일부만 남아있는데 단면은 편마름모꼴이다.

석부는 대부분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는데, 모두 양쪽에서 날을 갈아 세운 조갯날이다. 한편 대부분 주거지에서는 지석과 연석, 석봉 등이 세트로 출토되었다.

5. 編年 및 周邊地域과의 關係

포월리 유적은 장방형의 수혈주거지로 바닥은 점토로 다졌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기둥구멍, 저장공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6호 주거지에서만 확인되었고, 출입구로 여겨지는 시설이 2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부에는 기둥과 수혈벽 하단에 배수시설을 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포월리 유적 역시 주거지의 규모 및 입지양상, 특성 등은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와 같다.

포월리 출토 무문토기를 보면 무문토기의 바탕흙(태토)과 색조는 조양동 및 방내리 토기와 유사하나 토기의 기형과 공반되는 토기의 조합상은 다른데 공열외반구연호형토기, 직립구연호형토기, 대부소호 순으로 출토된다. 석기는 삼각형만입석촉, 주형의 반월형석도, 석부, 일단병식 석검, 석창 등 마제석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열문이 장식된 직립구연의 심발형토기와 유경의 호형토기는 포월리 1호와 2호에서 공반 출토되었다. 이러한 토기 조합상은 조양동과 방내리토기의 기형이나 공반토기의 조합상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우선 기형을 보면 조양동 · 방내리토기는 직립하는 홑구연과 이중구연의 심발형토기가 있으나 포월리토기는 홑구연의 심발형토기와 유경의 호형토기가 공반된다. 그 다음으로 토기의 문양을 보면 조양동 · 방내리토기는 공열, 구순각목, 단사선문 등 다양한 장식적 문양이 있으나, 포월리토기는 심발형의 단순 공열문만이 장식되어 있고, 공열문도 방내리 단계보다 퇴화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석기면에서도 포월리 9호 주거지에서 나온 퇴화된 이단병식 석검과 1호 주거지의 일단병식 석검은 이단병식과 유혈구 석검[38]편이 공반되어 출토되는 조양동 유적과 이단병식 석검이 출토는 방내리 유적의 석검 보다는 시기가 늦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어형의 반월형석도를 주류로 하는 조양동 유적과 주형을 주류로 하는 방내리 유적과 포월리 유적간의 연대 차가 인정되는 것과 부합된다.

---

38) 조양동 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혈구 석검은 서북지역 유경식 석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연대를 B.C 10~9세기로 보는 견해(한영희, 1983.〈각형토기고〉《한국고고학보》14 · 15)와 여주 흔암리 12호 주거지 유혈구 석검을 B.C 10~7세기로 보는 견해(최몽룡, 1986.〈여주 흔암리 선사취락지의 성격〉《여주 흔암리 취락지》삼화사.)가 있다.

결국 공열토기와 호형토기가 공반 출토되는 포월리 유적은 장식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이중구연의 심발형토기를 주류로 하는 조양동 유적[39]과 공열문이 성행하던 방내리 유적[40]보다는 늦은 시기로 설정할 수 있겠고[41] B.C 8세기로 시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포월리 유적과 같이 공열토기와 유경의 호형토기가 같이 공반되어 출토되는 유적은 영동지역에서는 고성 초도리 주거지[42], 지표조사된 고성 용천리유적, 강릉 모산봉 유적, 동해 구호동 유적[43]이 여기에 속하며, 경기도 여주군 흔암리 9호, 12호,14호 주거지[44], 미사리 고려대 036호 주거지[45], 충남 서산군 휴암리 A호 주거지[46], 진주 대평리 어은2지구 2호주거지[47]에서 두 유형의 토기가 공반되고 있다.

---

39)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속초 조양동 주거지》

40)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6.《강릉 방내리 주거지》

41) 안재호는 단독문양은 복합문양의 토기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단계에 편년된다고 보고 영남지방의 전기무문토기에서 문양은 구순각목공열문 · 이중구연단사선문 · →공열단사선문→구순각목문→공열문→단사선문의 순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안재호, 1990. 〈남한 전기무문토기의 편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와는 달리 이현숙은 포월리 유적을 동북한요소와 서북한요소의 결합이전의 문화속성을 지닌 유적군으로 파악하고 조양동 유적이나 방내리 유적 보다 앞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현숙, 1998. 〈한국 중서부지방 전기무문토기 연구 - 천안 백석동 출토품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최숙경,1962.〈고성군현내면선사시대유적논총〉《한국문화연구원》pp.169-186.

43) 최희규, 1992.〈영동지역 출토 민무늬토기 연구〉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 임효재, 1977.〈흔암리 주거지 4〉《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8 ,pp.4-30.
흔암리 유적은 토기를 중심으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역삼동 유형인 공열과 구순각목만 보이는 단계인 4호와 6호 주거지
2단계는 조양동 유적과 유사한 이중구연 단사선과 구순각목 · 공열이 한토기에 결합하는 단계인 1 · 2 · 5 · 7 · 11호 주거지 3단계는 포월리 유적과 같은 심발형의 공열토기와 호형토기를 공반하는 9 · 12 · 14호 주거지로 나눌 수 있다.

45) 윤세영 · 이홍종, 1995.《미사리》 제5권.

46) 윤무병 외, 1990.〈휴암리〉《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22, pp.31-42.

47)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진주 대평리 어은2지구 선사유적 I》
어은2지구 2호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 단사선+공열에 구순각목이 시문된 토기와 흑갈색 호형토기가 공반출토되었다.

Ⅵ. 맺음말

포월리 유적은 발굴조사에 앞서 실시된 소나무 굴채작업으로 생긴 구덩이와 굴채된 소나무를 운송하기 위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도로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유적지의 상당부분이 파괴된 상태였다. 포월리 유적은 거의 전부가 원형을 상실한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그 중 상태가 양호한 1호 주거지도 남서벽이 구릉의 경사면으로 삭평되었고 남동쪽 모서리에 민묘의 안치로 상당부분이 파괴된 상태이고 이전 복원과 보존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고 이전 복원과 전시가 용이한 지석묘 하부구조 2호, 신라시대 3호 고분을 강릉시립박물관으로 이전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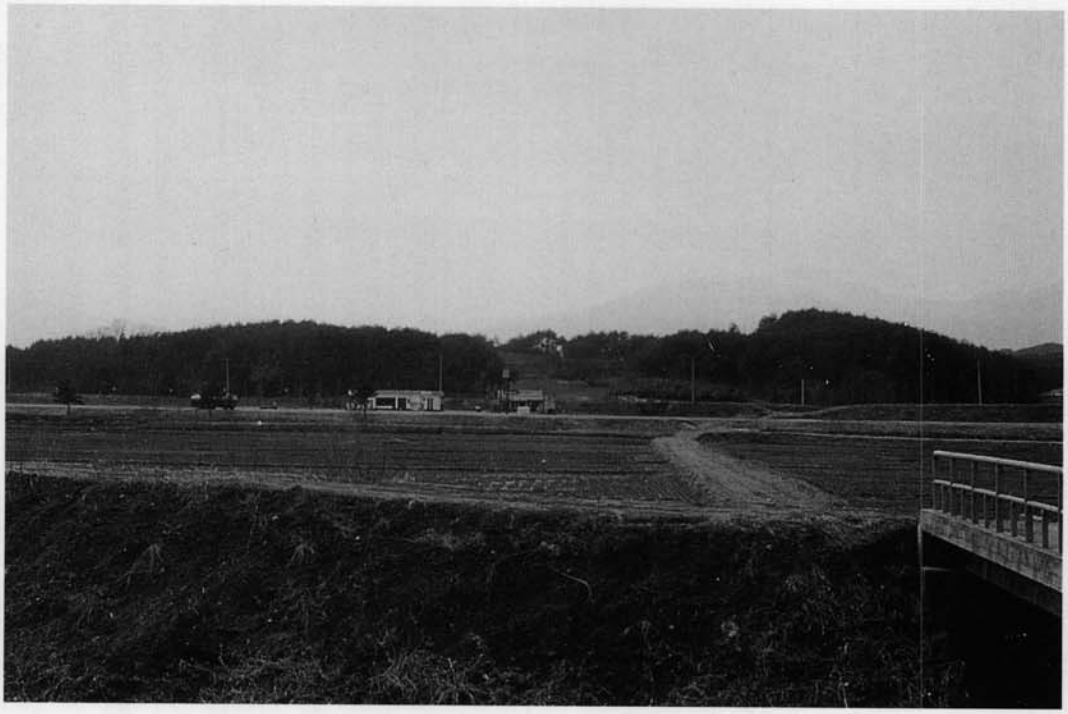
포월리 유적의 발굴조사결과 노출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3基, 지석묘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유구 2基, 新羅時代 고분으로 추정되는 유구 3基가 조사되었다.

포월리 주거지는 구릉의 능선을 따라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고 주거지를 마련하였고 바닥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점토를 깔아 다졌으며 일부 주거지에서는 벽채에 판자를 세웠던 흔적과 어깨 밑에 벽선을 따라 제습용 홈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이 장방형으로 주거지의 방향은 동→서 방향이 7基, 남→북 방향이 3基, 남서→북동 방향이 2基, 남동→북서 방향이 1基로 노출되었고 주거지 규모는 10평 이상이 3基, 9평 - 5평 사이가 4基, 5평 이하가 1基이고 나머지는 주거지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대부분 5평 이상의 주거지가 분포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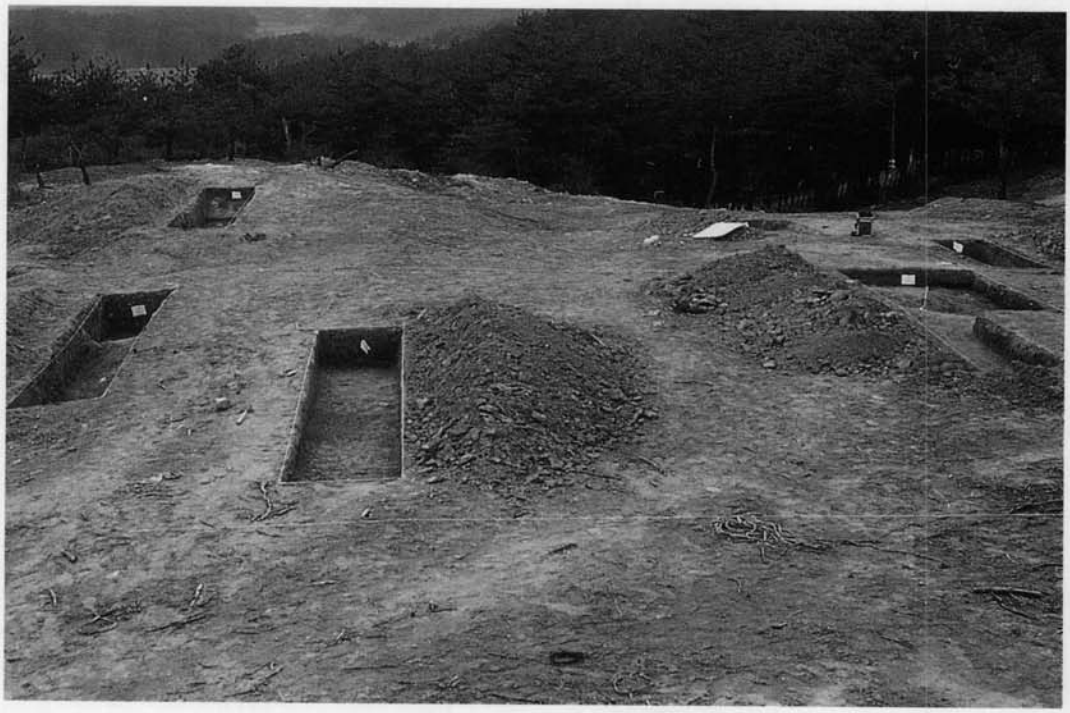
포월리 유적의 입지적 조건과 형태, 구조 및 내부시설은 구릉상에 위치하는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와 類似하다. 그러나 출토되는 토기와 석기의 비교를 통하여 볼 때 포월리 유적은 이미 조사 보고된 조양동 유적이나 방내리 유적 보다는 시기가 늦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공열토기와 호형토기가 공반 출토되는 포월리 유적은 장식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이중구연의 심발형토기를 주류로 하는 조양동 유적과 공열문이 성행하던 방내리 유적보다는 늦은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영동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전개 과정에서 공열토기와 호형토기가 공반된 청동기시대유적들은 대부분 포월리 유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포월리 단계의 유적이 다수를 점한다는 것은 이 시기에 와서 영동지역에서 무문토기문화가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사 진



①



②

〈사진 1〉 ①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 먼 모습
②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 탐색조사갱 넣은 모습



①



②

〈사진 2〉 ① 포월리 1호 주거지 윤곽 나온 모습
② 포월리 1호 주거지 조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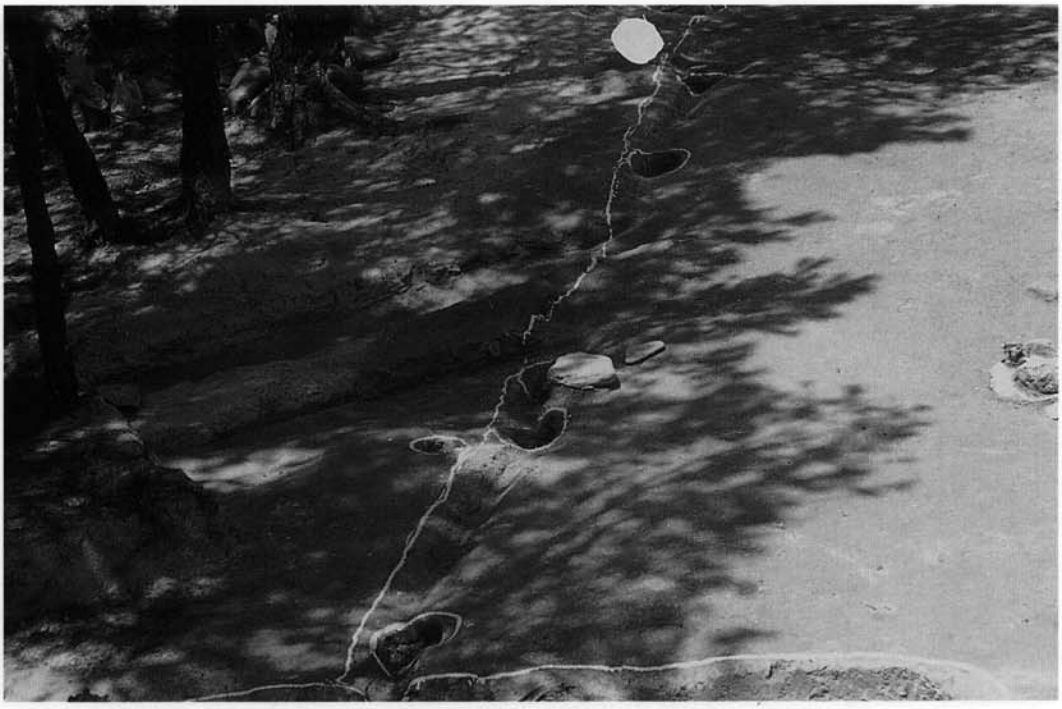


①



②

〈사진 3〉 ① 포월리 1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② 포월리 1호 주거지 북벽 홈 모습



①



②

〈사진 4〉 ① 포월리 1호 주거지 남벽 기둥구멍 모습
② 포월리 1호 주거지 저장 구덩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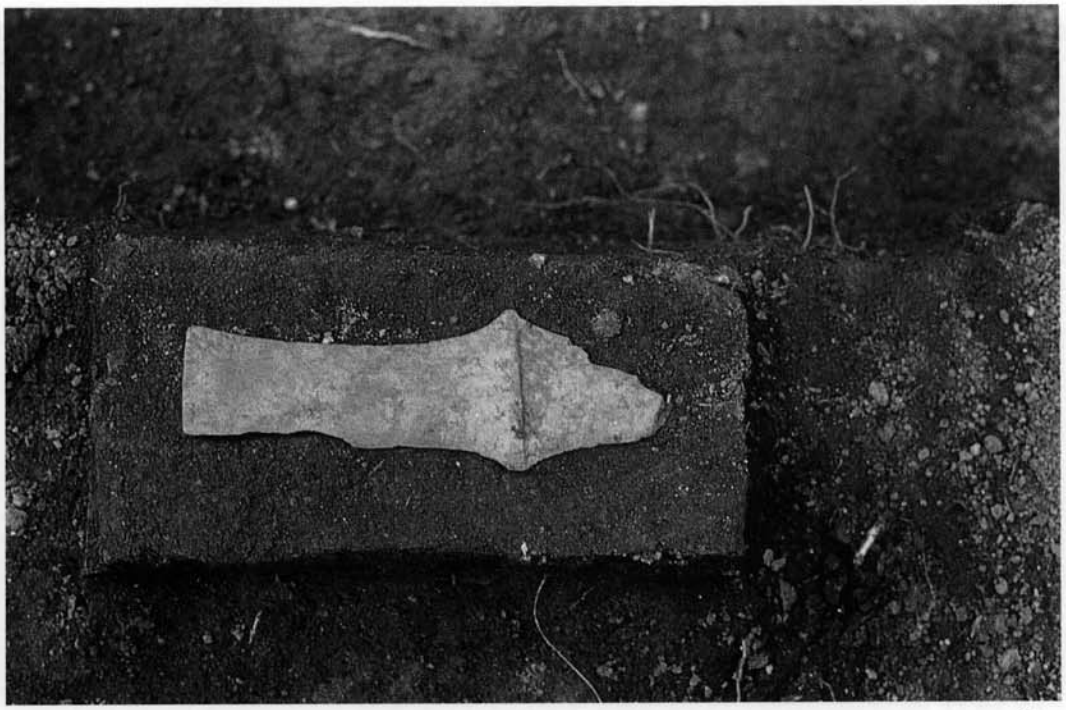


①



②

〈사진 5〉 포월리 1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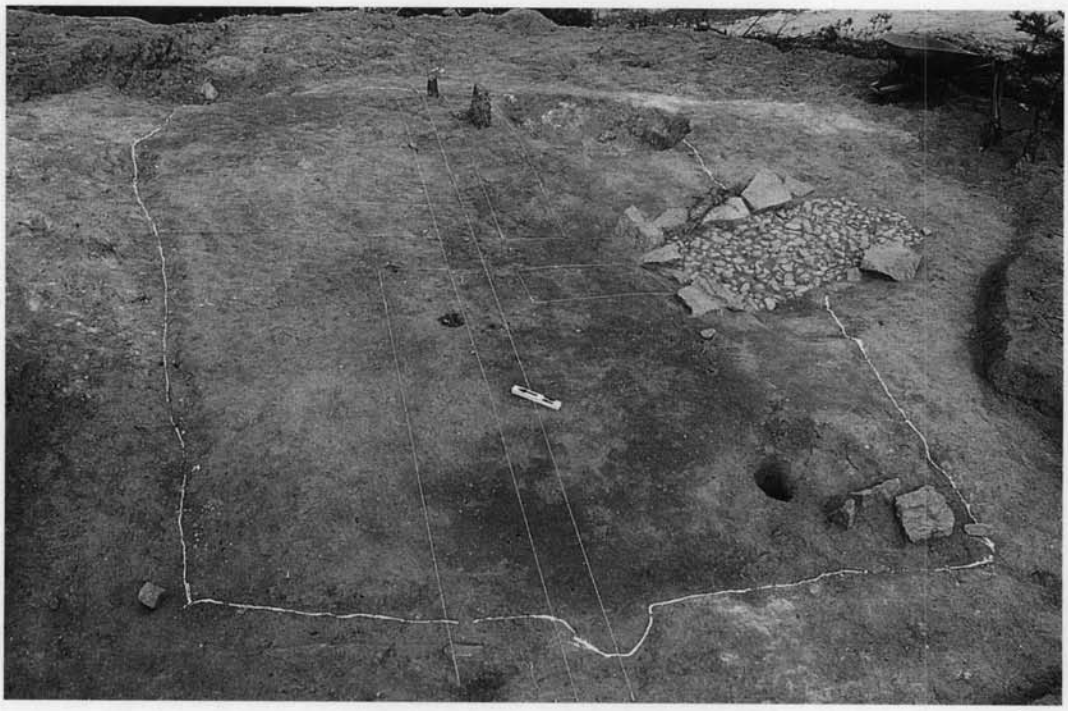


②

〈사진 6〉 포월리 1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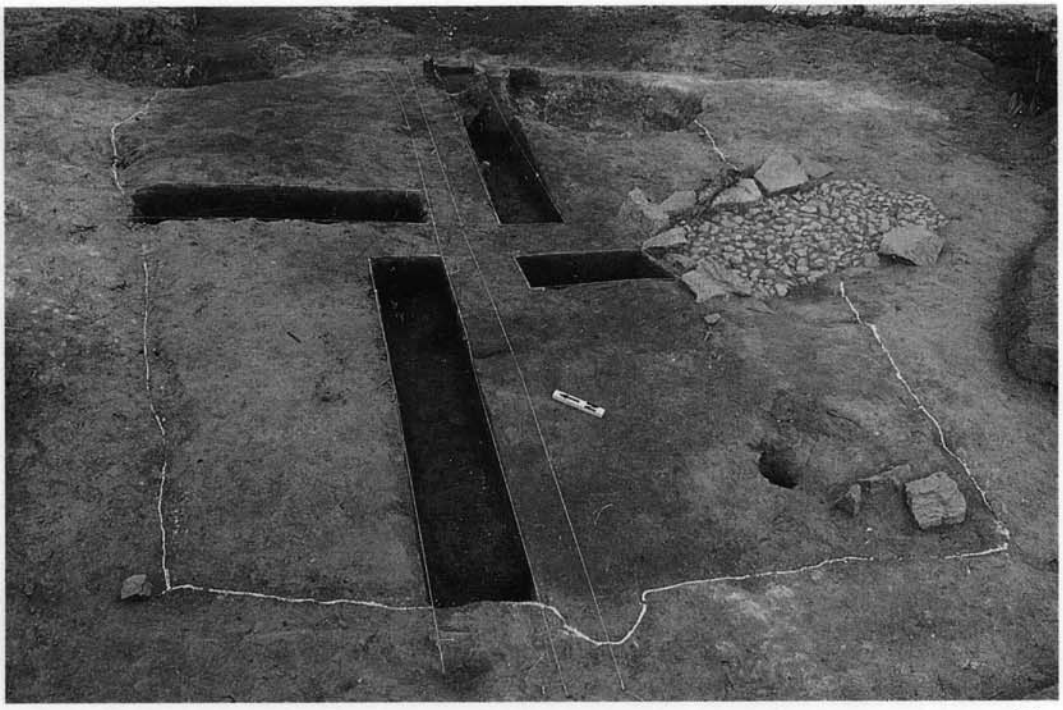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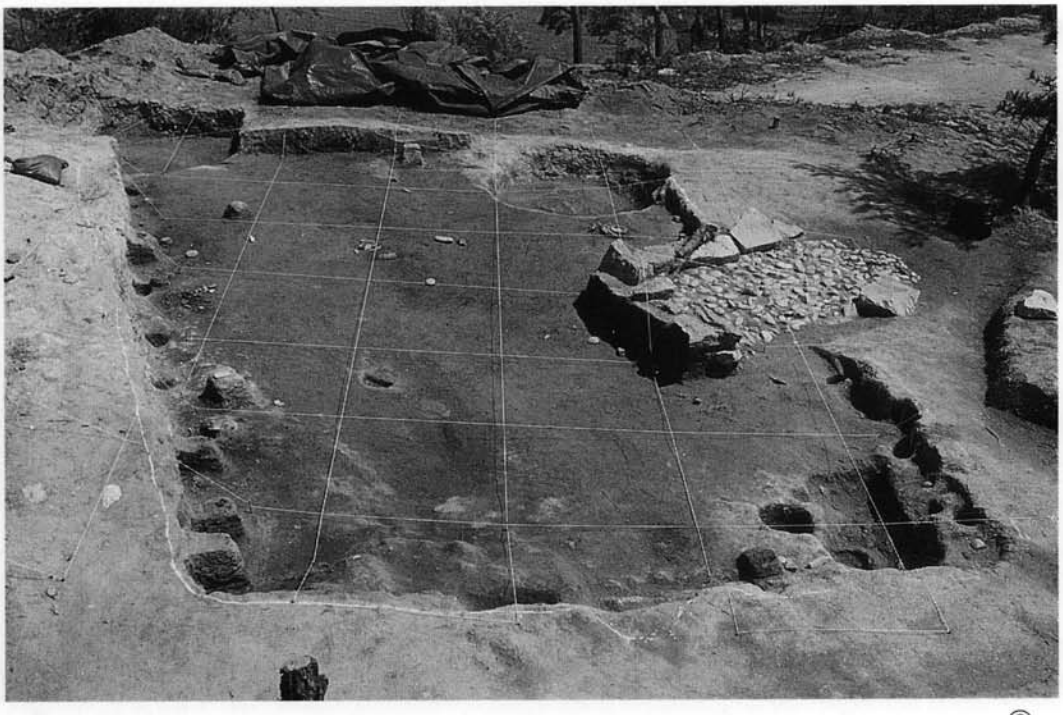


②

〈사진 7〉 ① 포월리 1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② 포월리 2호 주거지 윤곽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8〉 ① 포월리 2호 주거지 조사 모습
② 포월리 2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①



②

〈사진 9〉 ① 포월리 2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② 포월리 2호 주거지 남동벽 기둥구멍 및 저장 구덩이 모습



①



②

〈사진 10〉 ① 포월리 2호 주거지 북벽 기둥구멍 모습
② 포월리 2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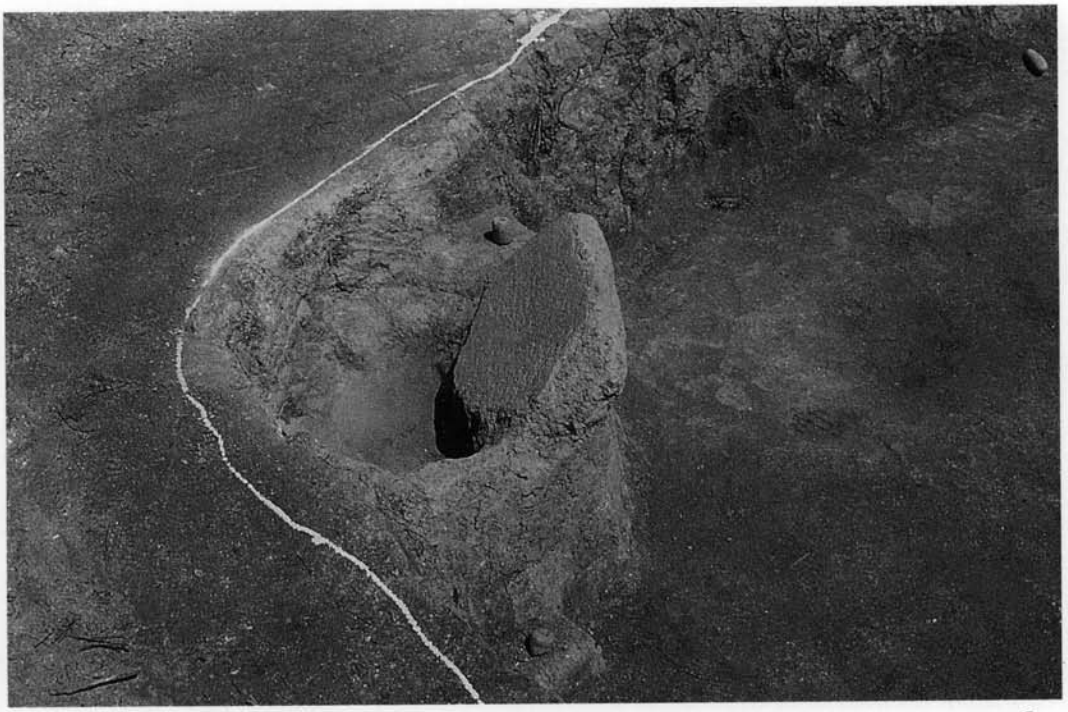


①



②

〈사진 11〉 ① 포월리 3호 주거지 윤곽 나온 모습
② 포월리 3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①



②

〈사진 12〉 ① 포월리 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② 포월리 4호 주거지 조사 모습



①



②

〈사진 13〉 포월리 4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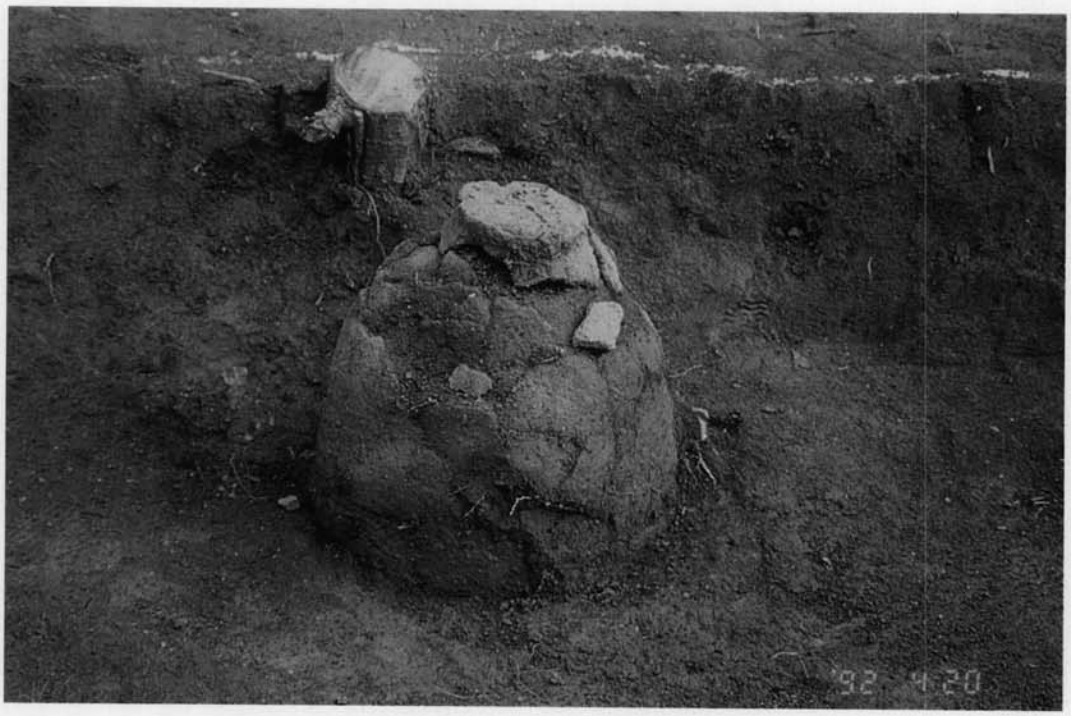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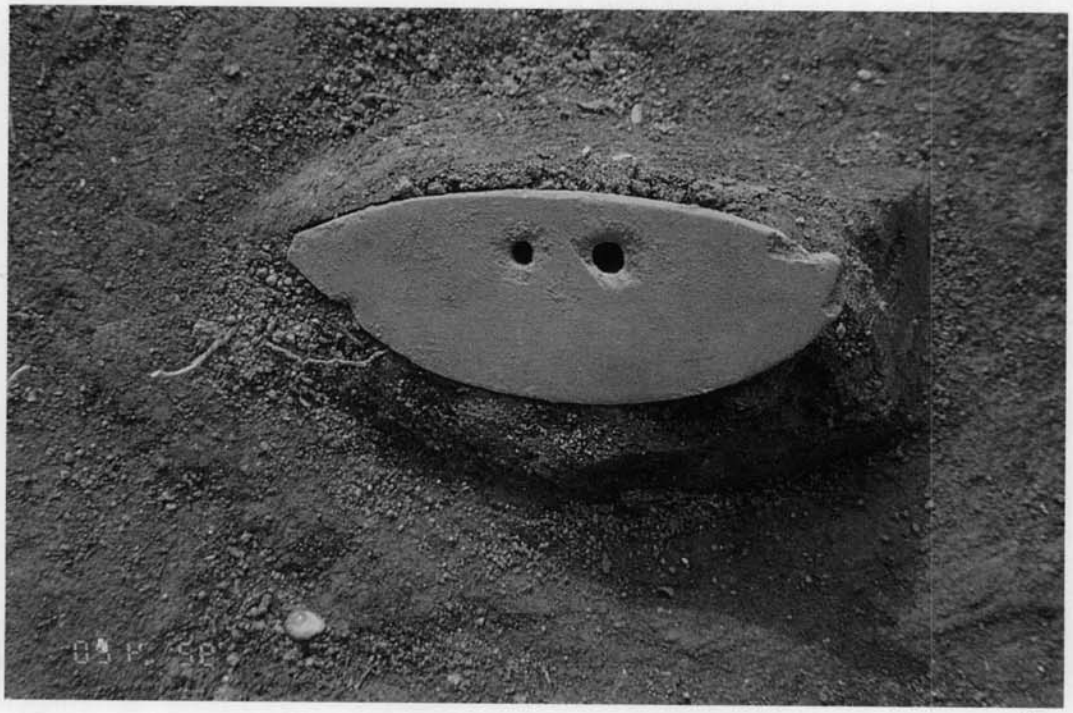


②

〈사진 14〉 포월리 4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15〉 포월리 4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16〉 ① 포월리 5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② 포월리 5호 주거지 서벽 기둥구멍 및 저장구덩이 모습



①



②

〈사진 17〉 ① 포월리 6호 주거지 조사 모습
② 포월리 6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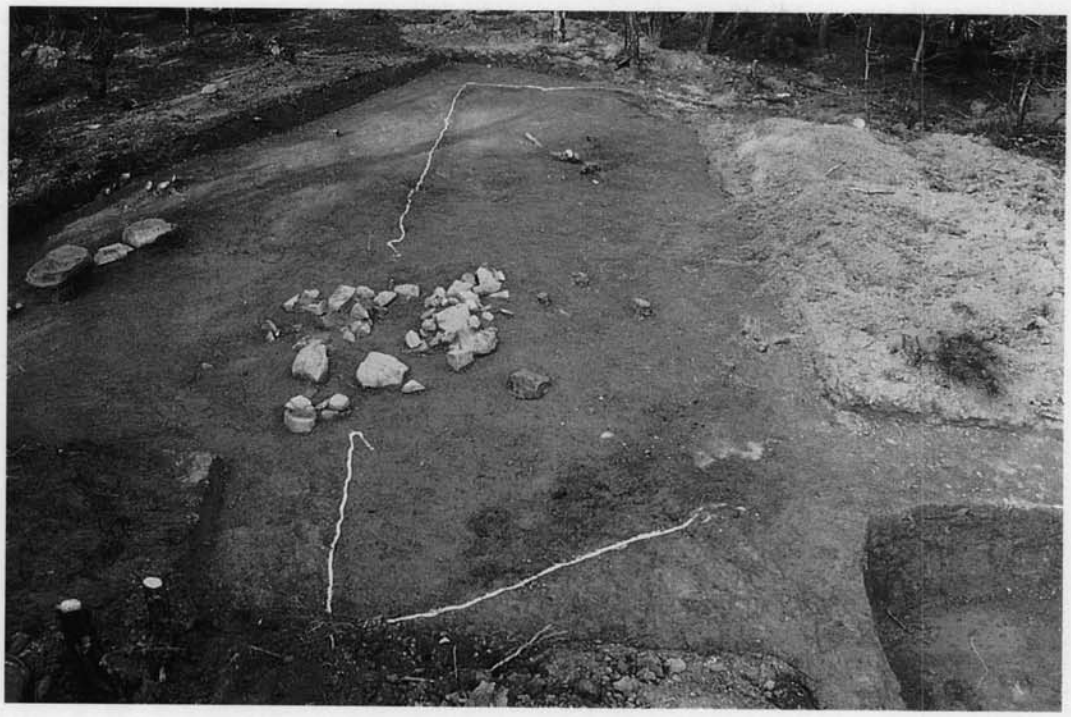


①



②

〈사진 18〉 ① 포월리 6호 주거지 남서벽 저장 구덩이 모습
② 포월리 6호 주거지 기둥구멍 모습



①



②

〈사진 19〉 ① 포월리 7호 주거지 윤곽 나온 모습
② 포월리 7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①



②

〈사진 20〉 ① 포월리 7호 · 3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② 포월리 8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①



②

〈사진 21〉 ① 포월리 8호 주거지 동벽 기둥구멍 및 저장 구덩이 모습
② 포월리 9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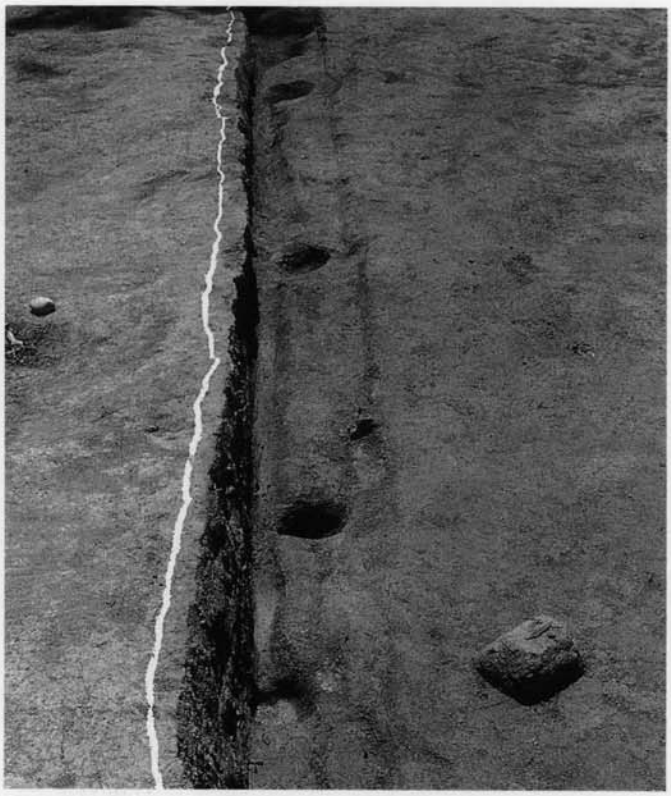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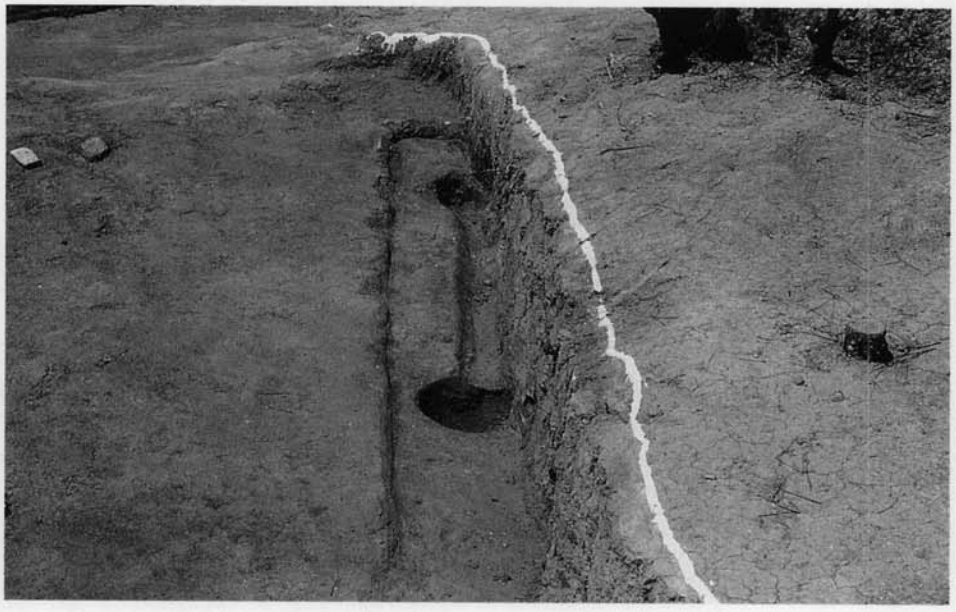


②

〈사진 22〉 ① 포월리 9호 주거지 추정 노지 모습
② 포월리 9호 주거지 홈 윤곽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23〉 ① 포월리 9호 주거지 동벽 이중 홈 나온 모습
② 포월리 9호 주거지 북벽 이중 홈 나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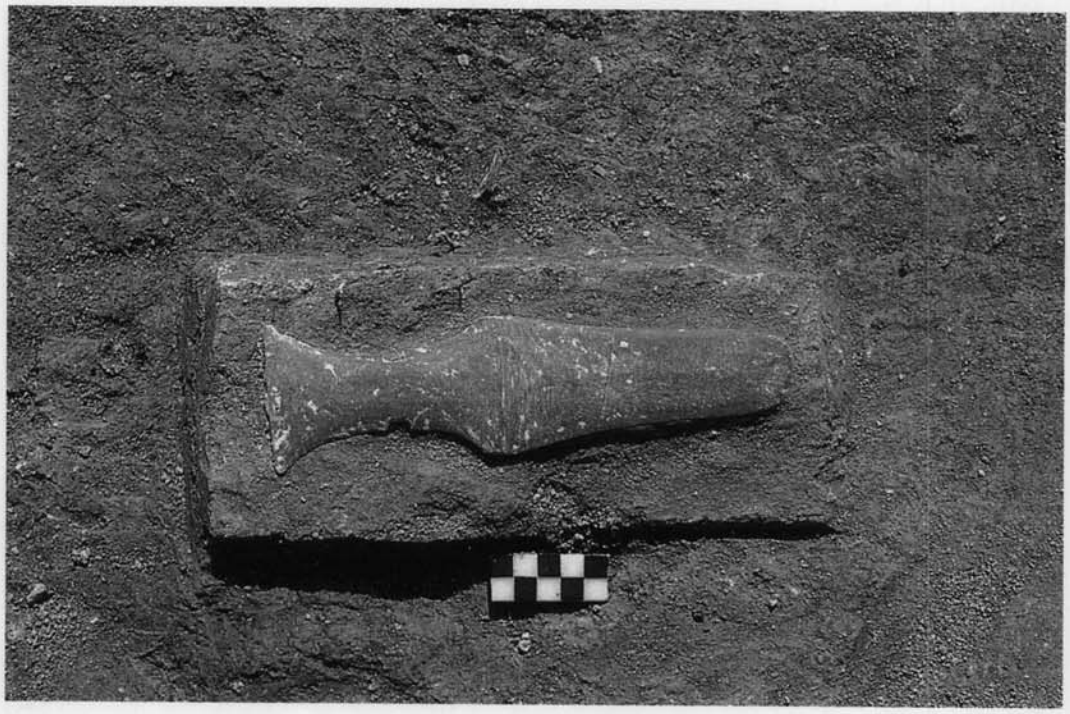


①



②

〈사진 24〉 포월리 9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25〉 ① 포월리 9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② 포월리 10호 · 11호 · 12호 주거지 조사 모습



①



②

〈사진 26〉 ① 포월리 10호 · 11호 · 12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② 포월리 11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27〉 ① 포월리 12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② 포월리 13호 주거지 조사 모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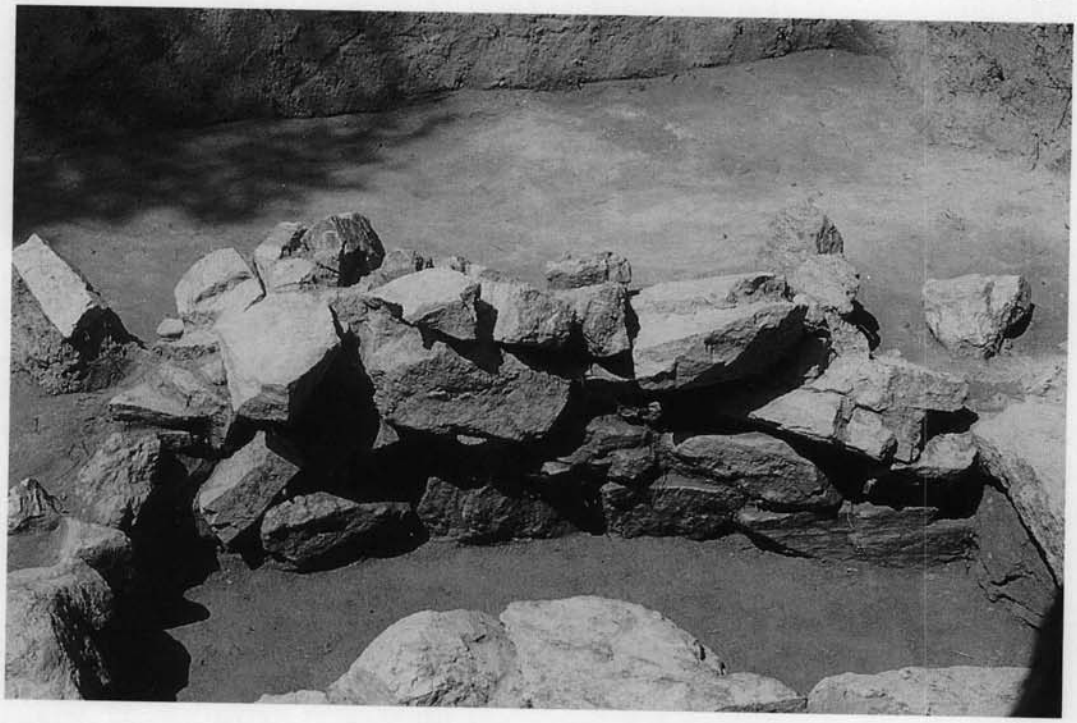


②

〈사진 28〉 ① 포월리 1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② 포월리 1호 지석묘 조사 전 모습



①



②

〈사진 29〉 ① 포월리 1호 지석묘 조사 후 모습
② 포월리 1호 지석묘 석곽 쌓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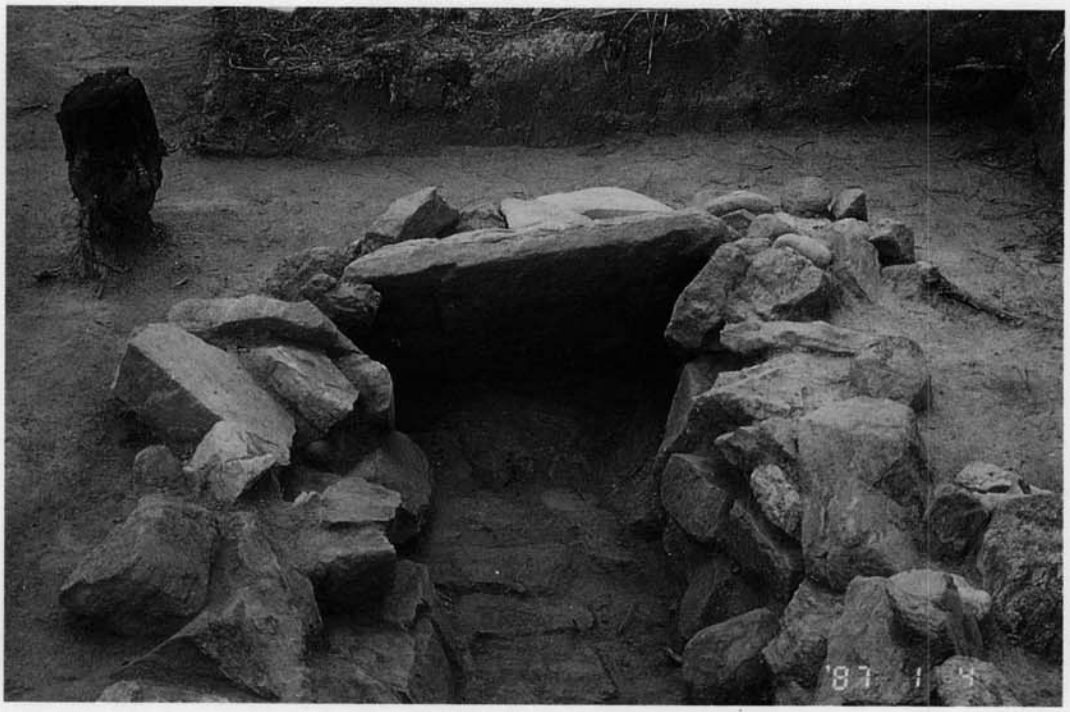


①



②

〈사진 30〉 ① 포월리 1호 지석묘 장벽(서벽) 석곽 쌓은 모습
② 포월리 2호 지석묘 모습



①



②

〈사진 31〉 ① 포월리 2호 지석묘 단벽(남벽) 석곽 쌓은 모습
② 포월리 2호 지석묘 주검 바닥 시상돌 모습



①



②

〈사진 32〉 ① 포월리 신라시대 1호 고분 모습
② 포월리 신라시대 2호 고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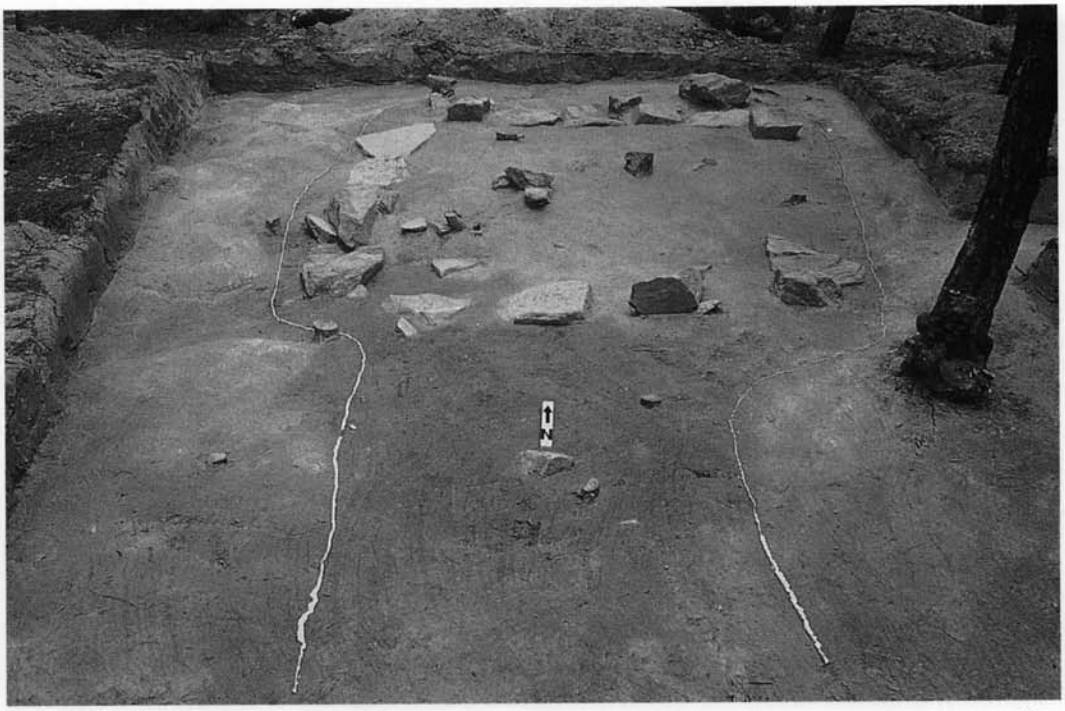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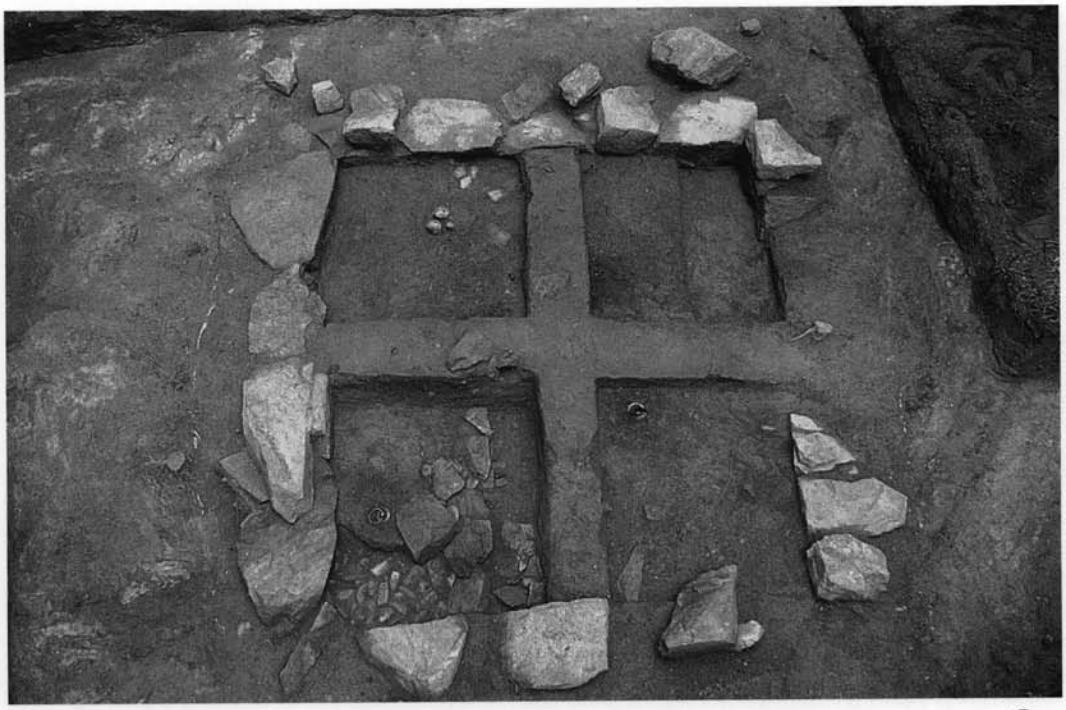


②

〈사진 33〉 ① 포월리 신라시대 2호 고분 모습
②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석실묘) 윤곽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34〉 ①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 윤곽 나온 모습
②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 조사 모습



①



②

〈사진 35〉 ①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 조사 후 모습
②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유물 나온 모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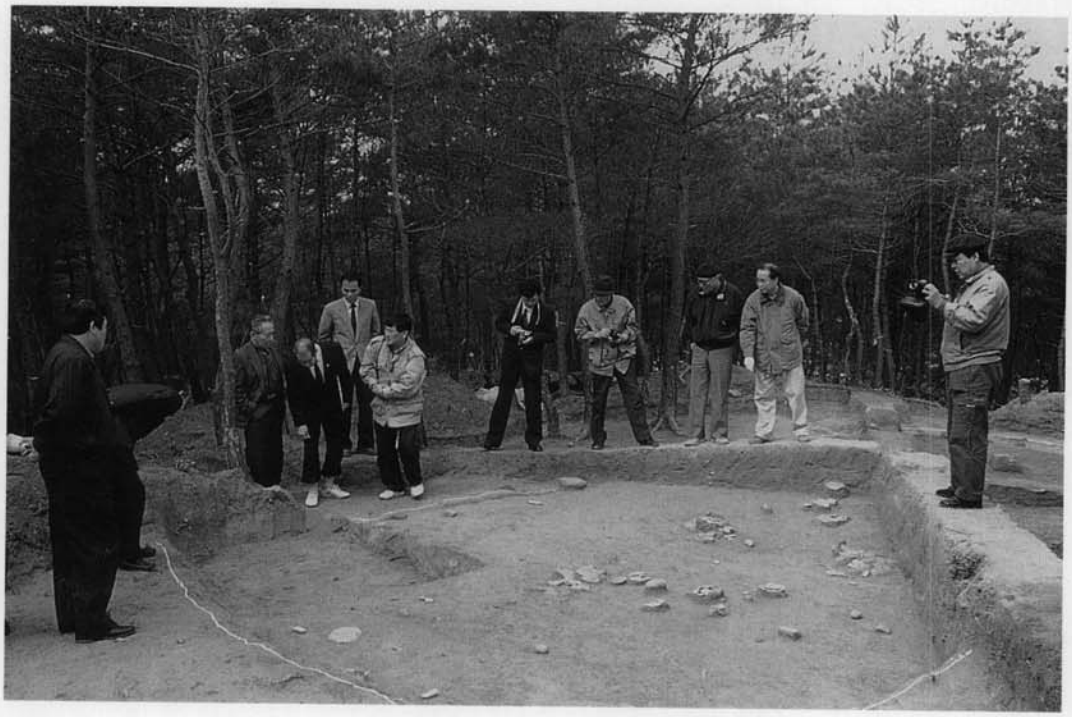


②

〈사진 36〉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 유물 나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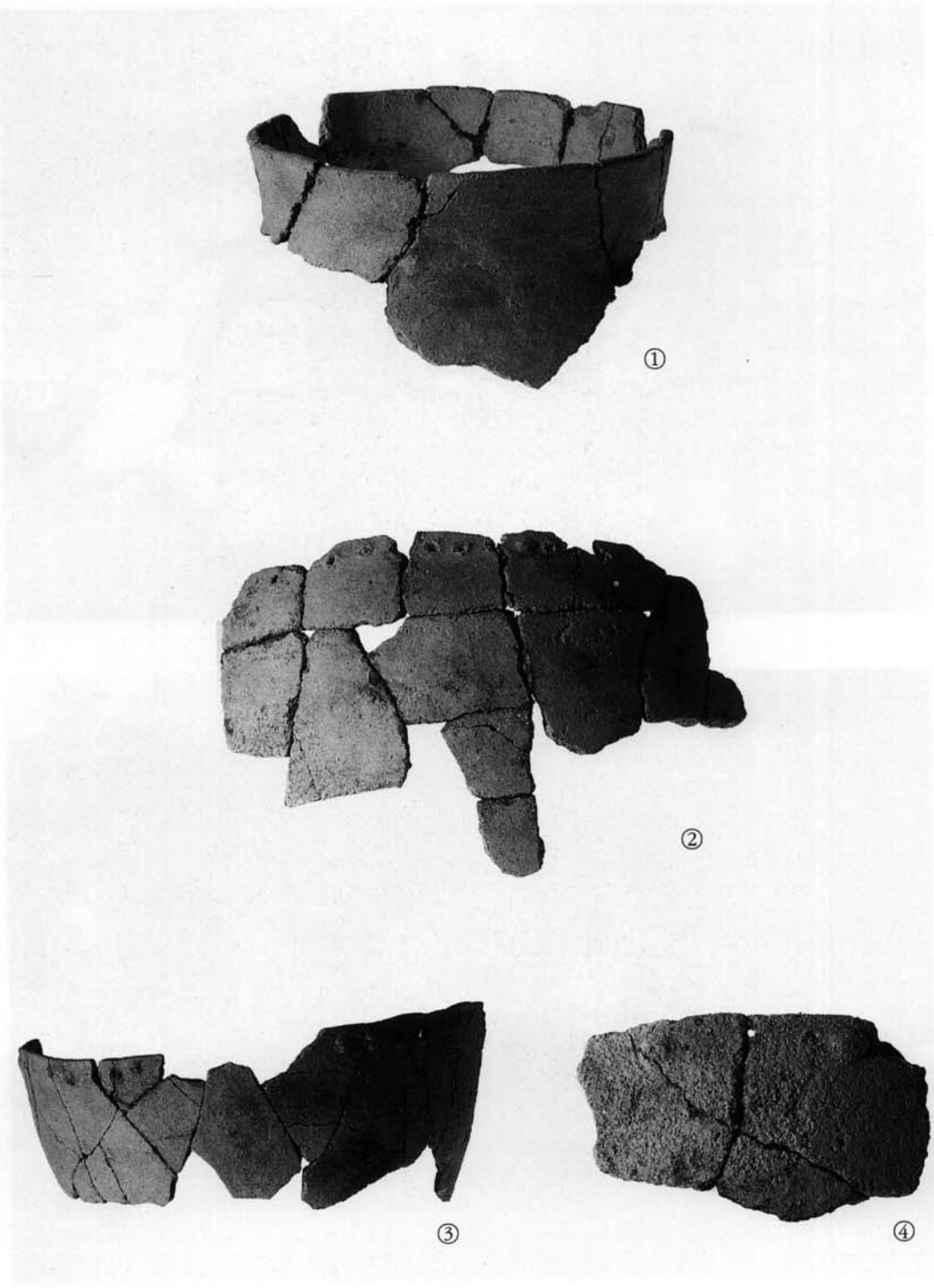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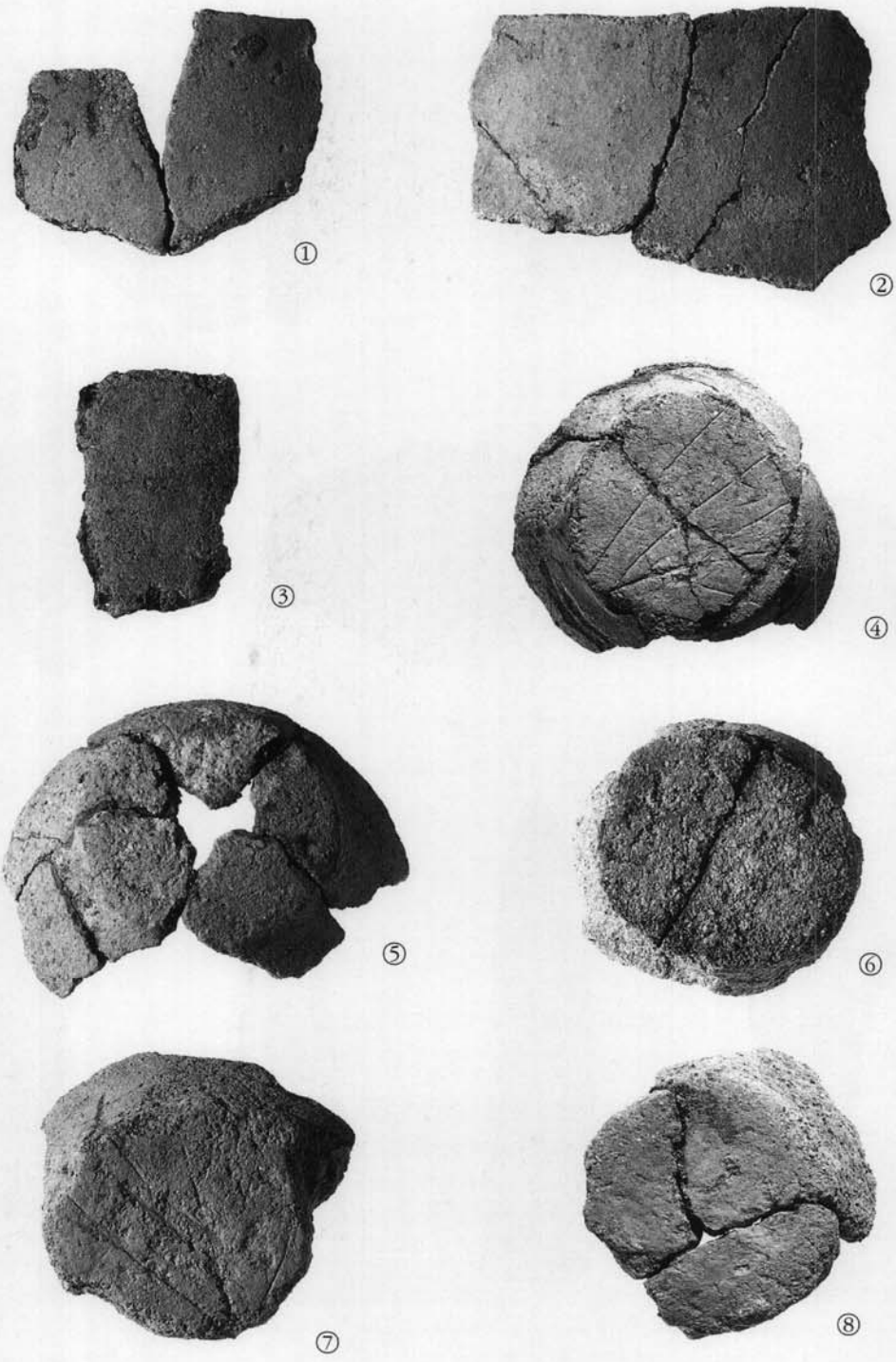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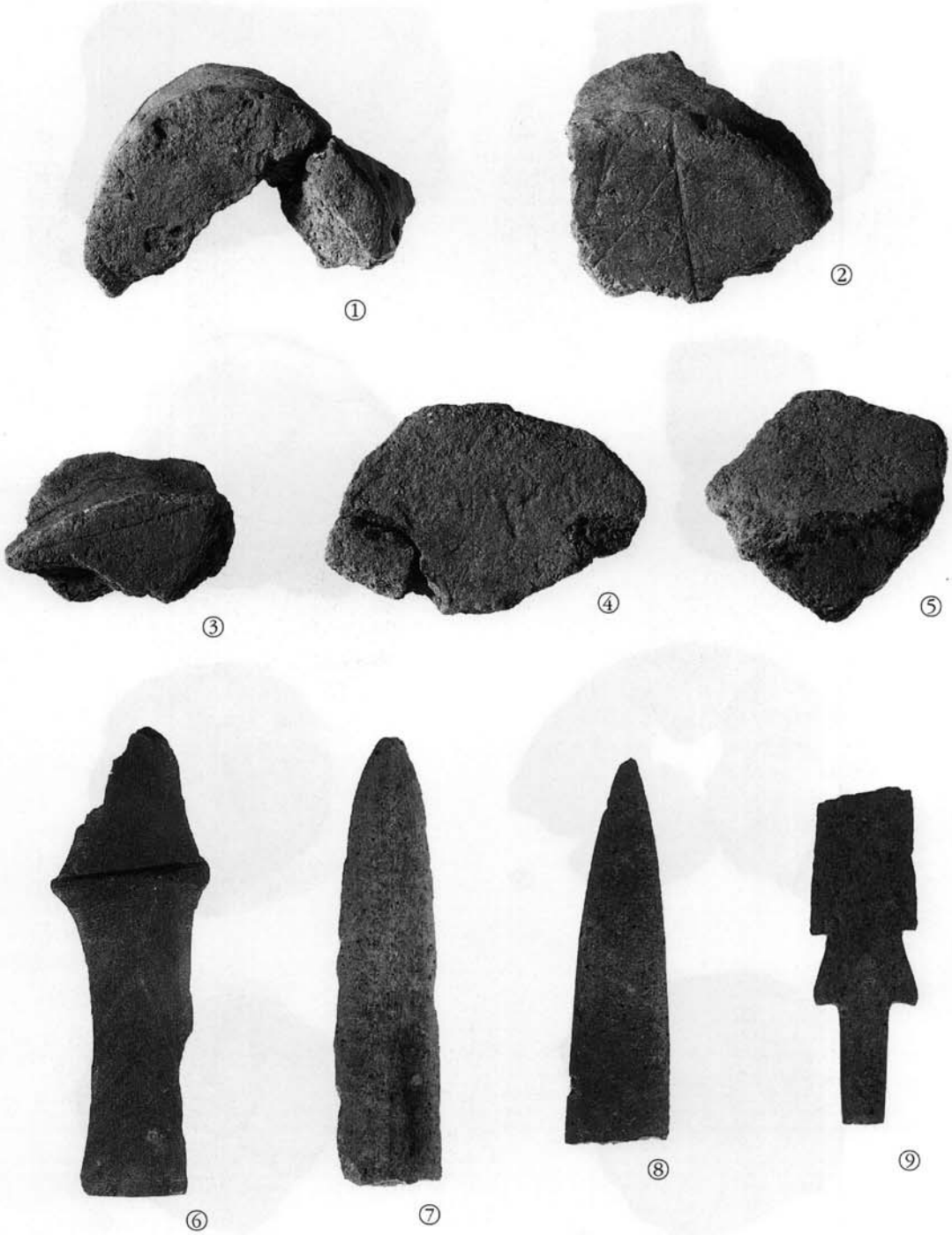
〈사진 37〉 ① 포월리 신라시대 3호 고분 유물 수거 후 모습
② 포월리 유적 지도위원회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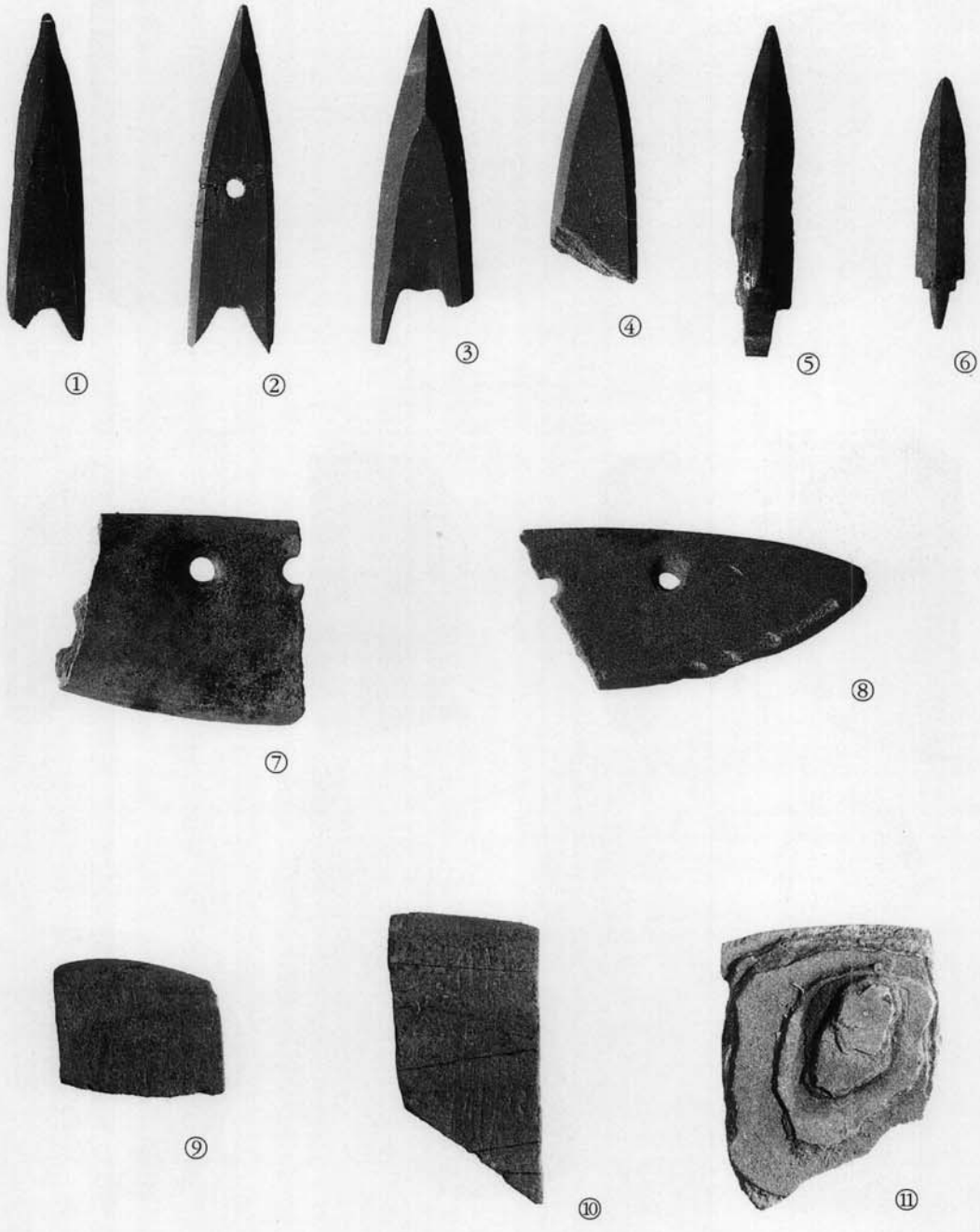
〈사진 38〉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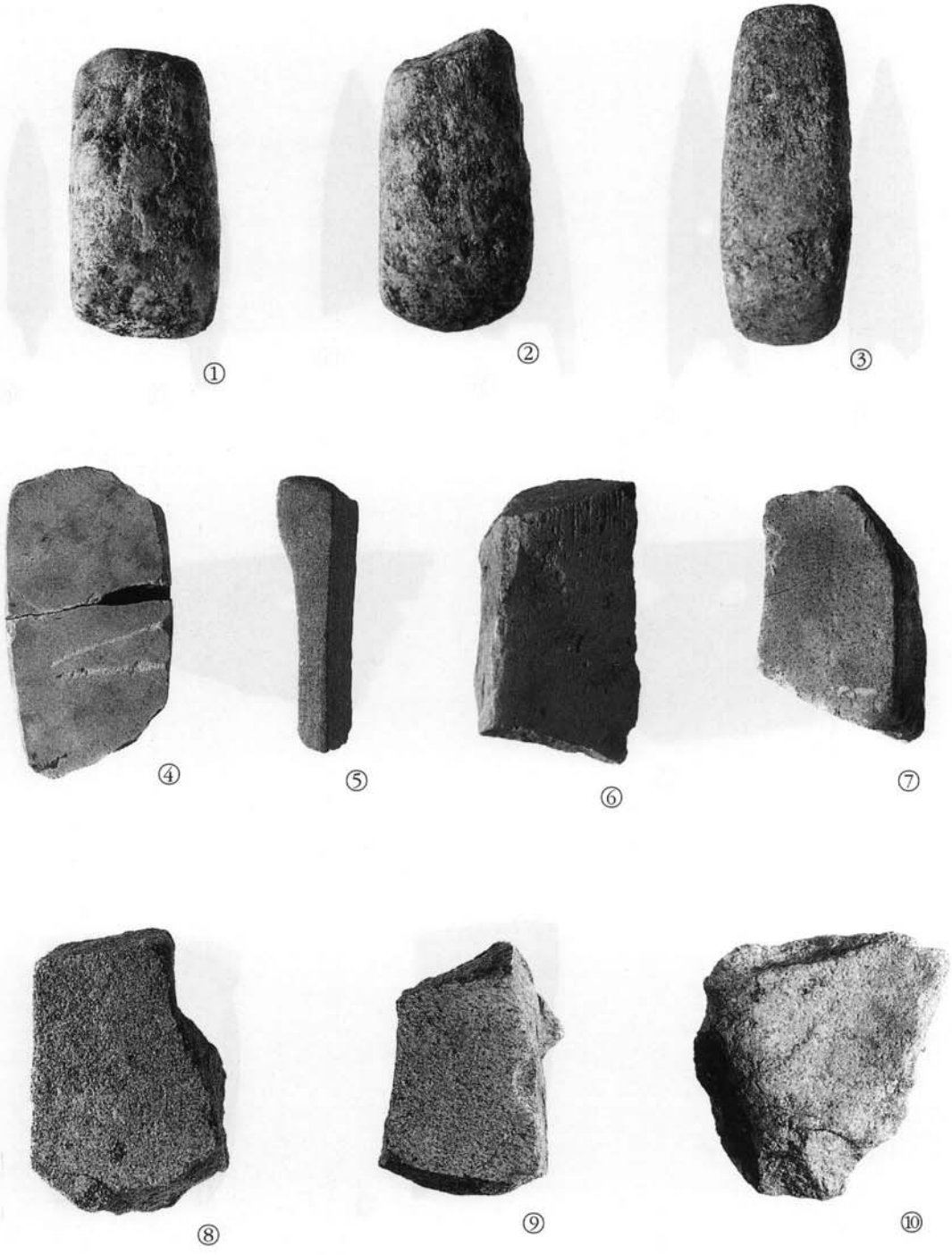
〈사진 39〉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40〉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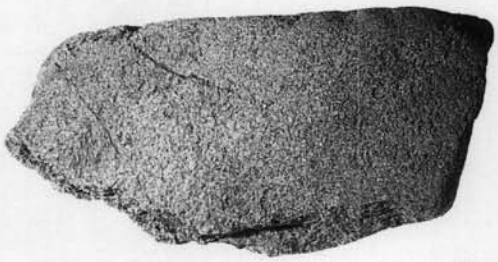
〈사진 41〉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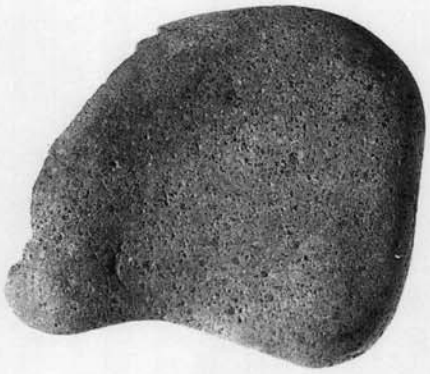
〈사진 42〉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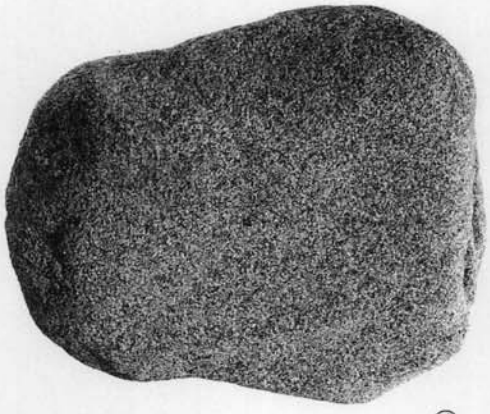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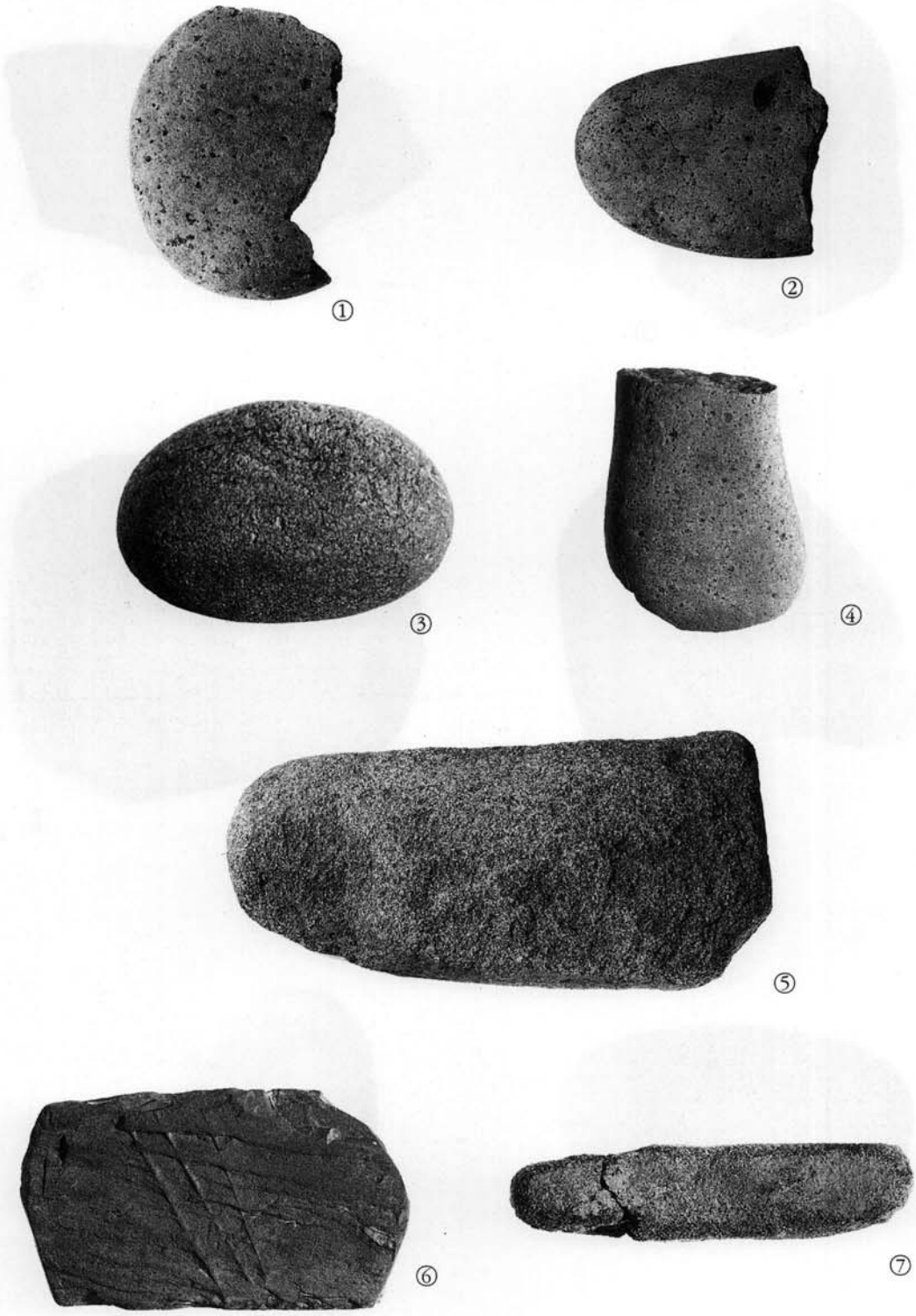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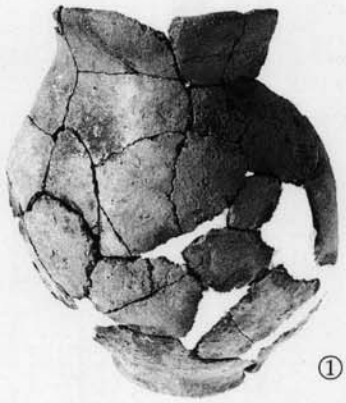


⑥

〈사진 43〉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44〉 포월리 1호 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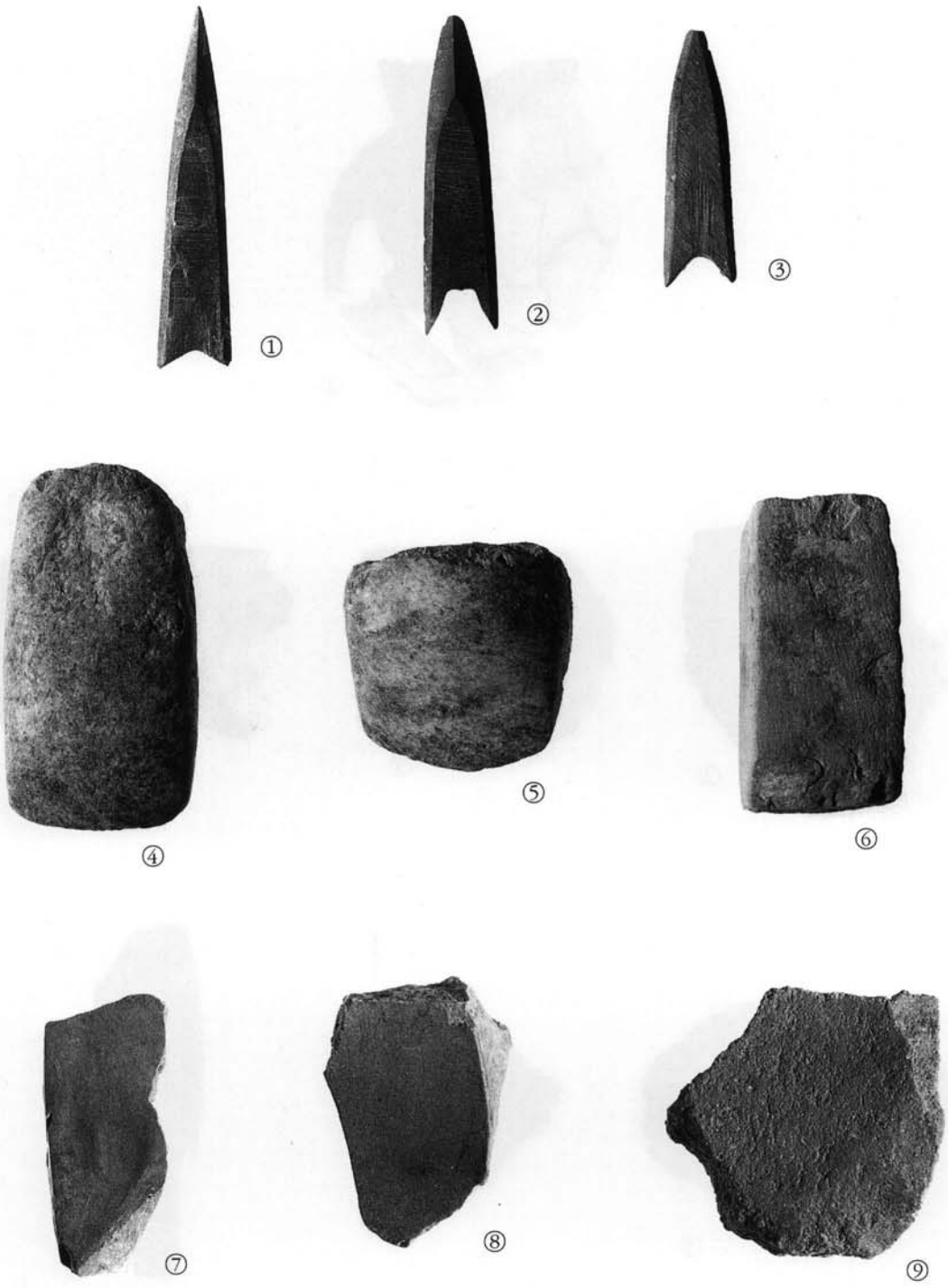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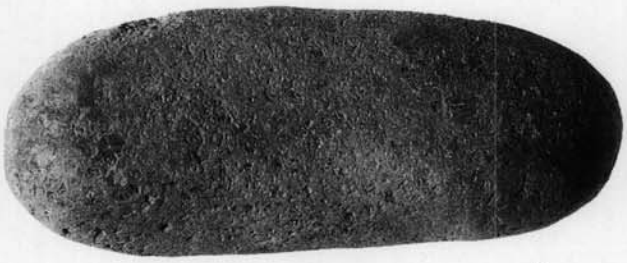
〈사진 45〉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46〉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③



④



⑤



⑥

〈사진 47〉 ①~② 포월리 2호 주거지 출토유물
③~⑥ 포월리 3호 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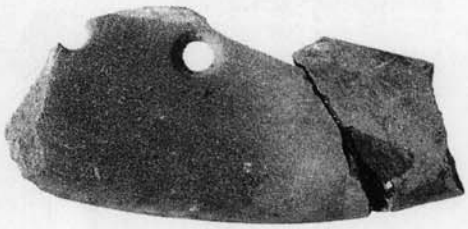


⑤



⑥

〈사진 48〉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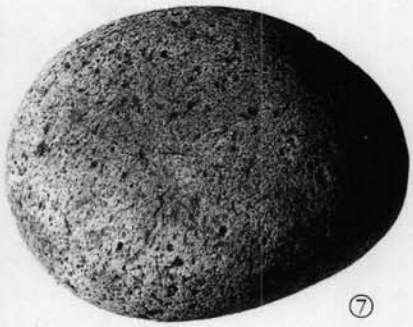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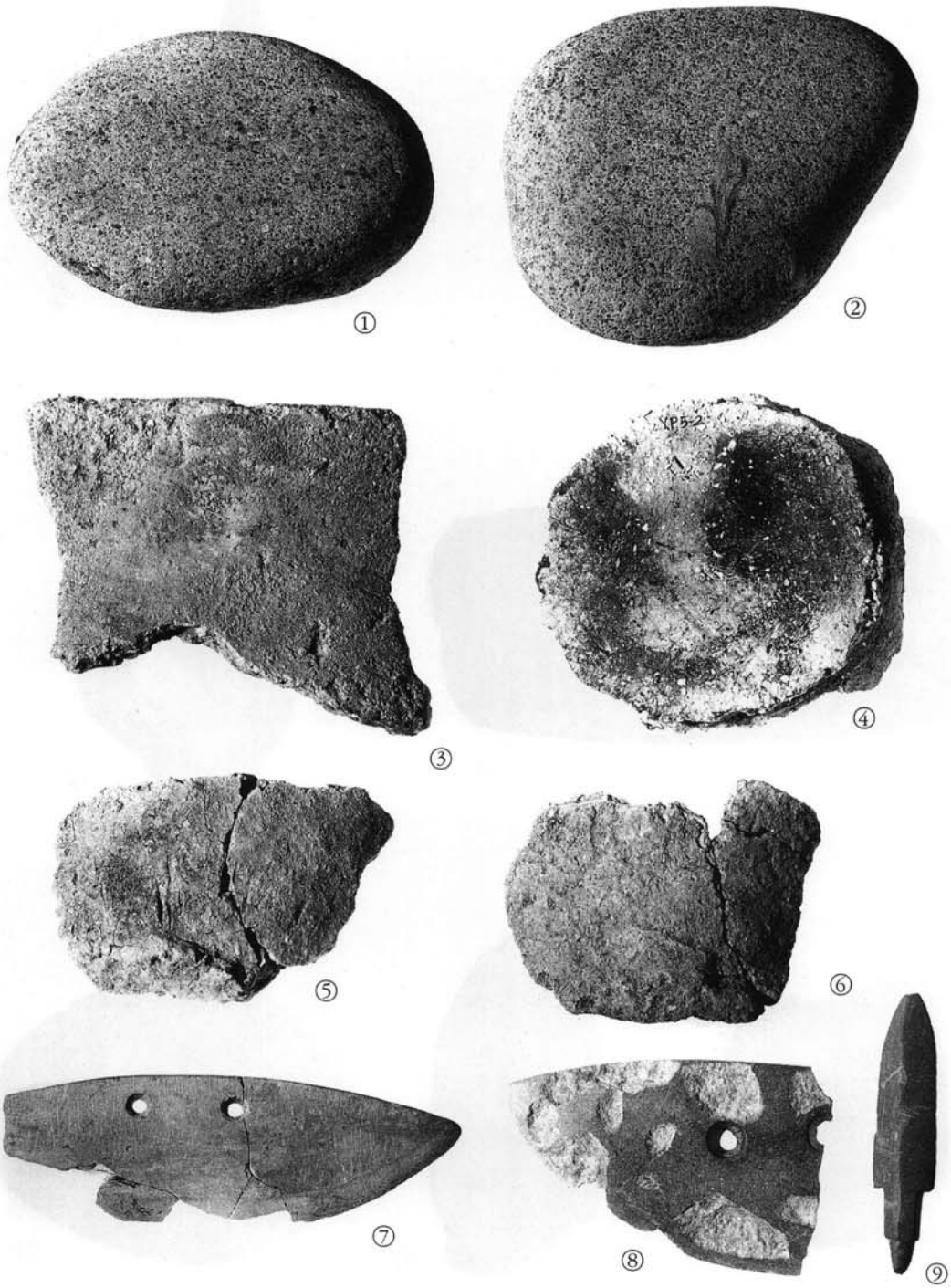


⑥



⑦

〈사진 49〉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0〉 ①~② 포월리 4호 주거지 출토유물
③~⑨ 포월리 5호 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③


④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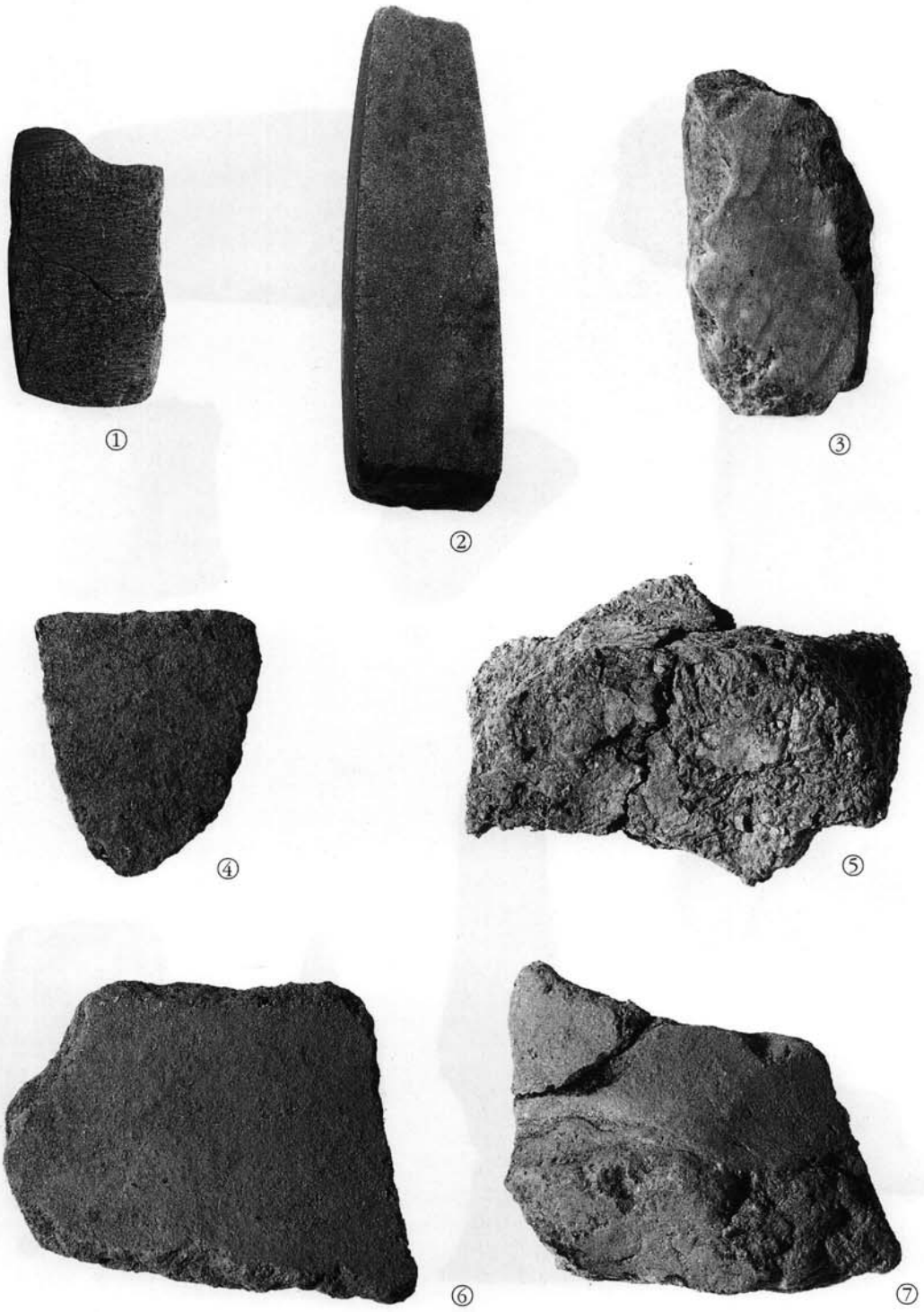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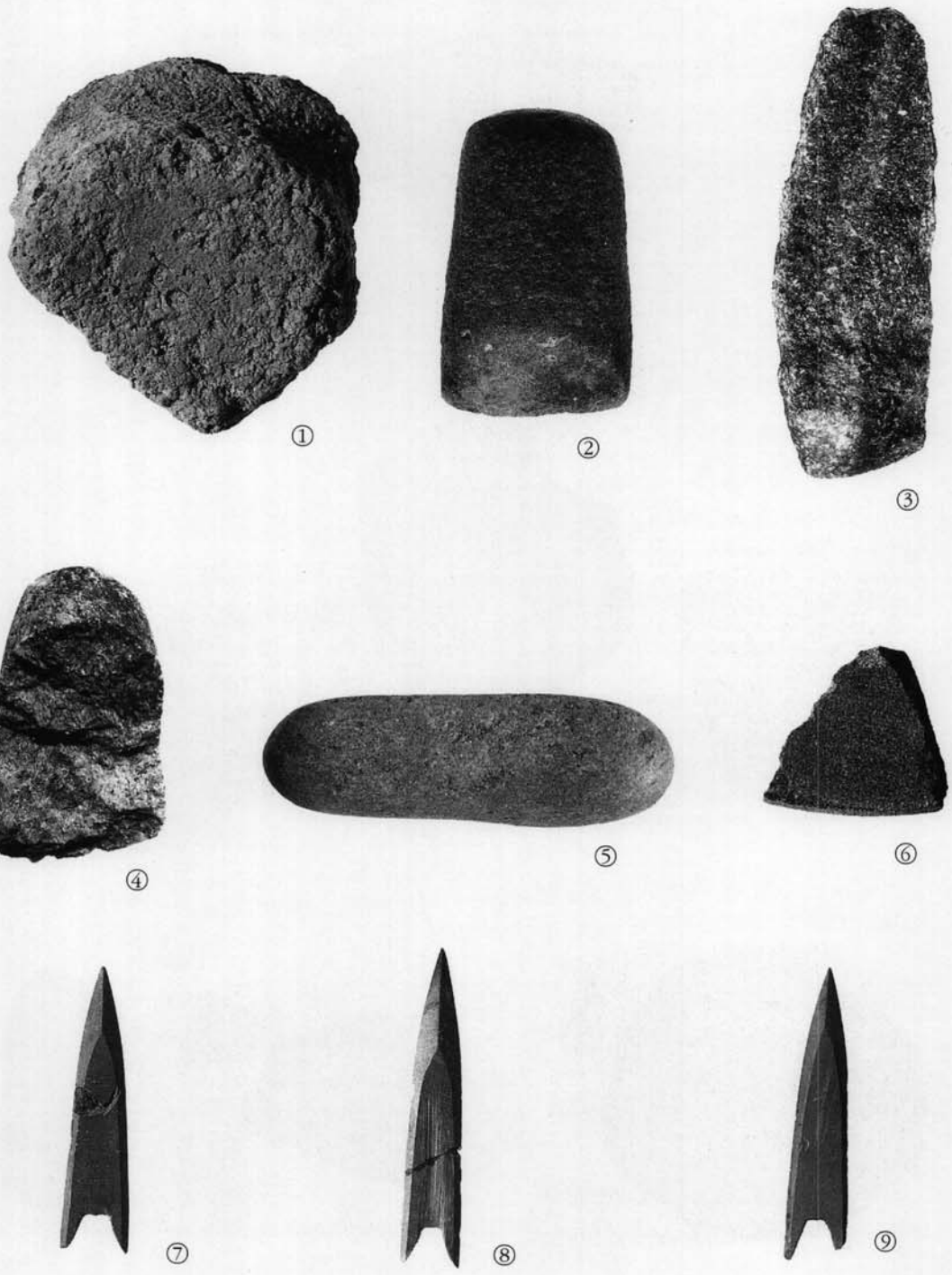

⑨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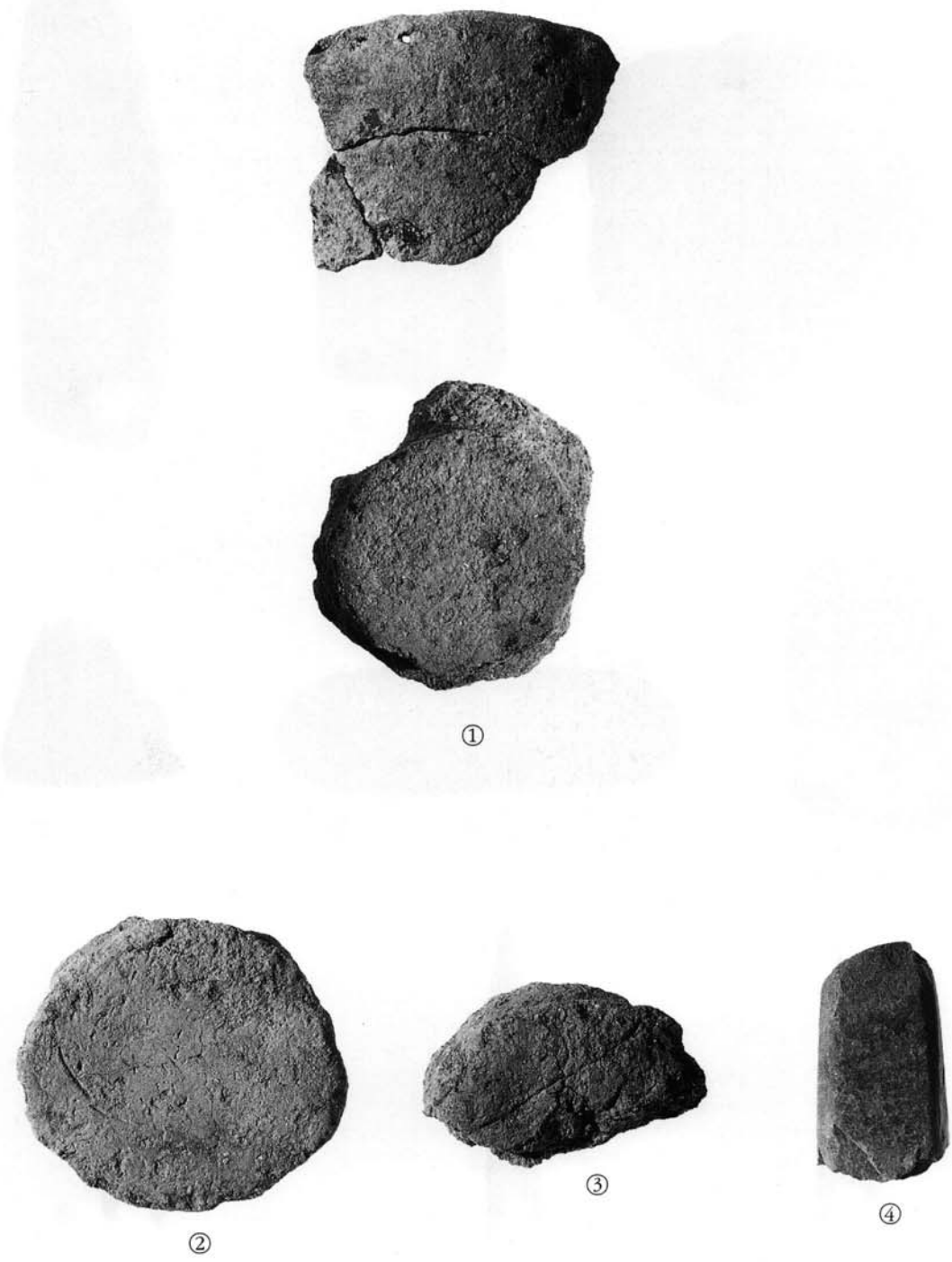
〈사진 51〉 ①~③ 포월리 8호 주거지 출토유물
④~⑩ 포월리 9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2〉 ①~③ 포월리 9호 주거지 출토유물
④~⑤ 포월리 10호 주거지 출토유물
⑥~⑦ 포월리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3〉 ①~⑥ 포월리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⑦~⑨ 포월리 12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4〉 포월리 13호 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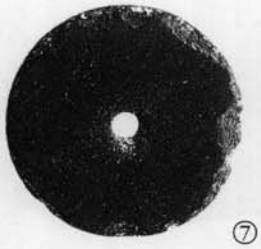
④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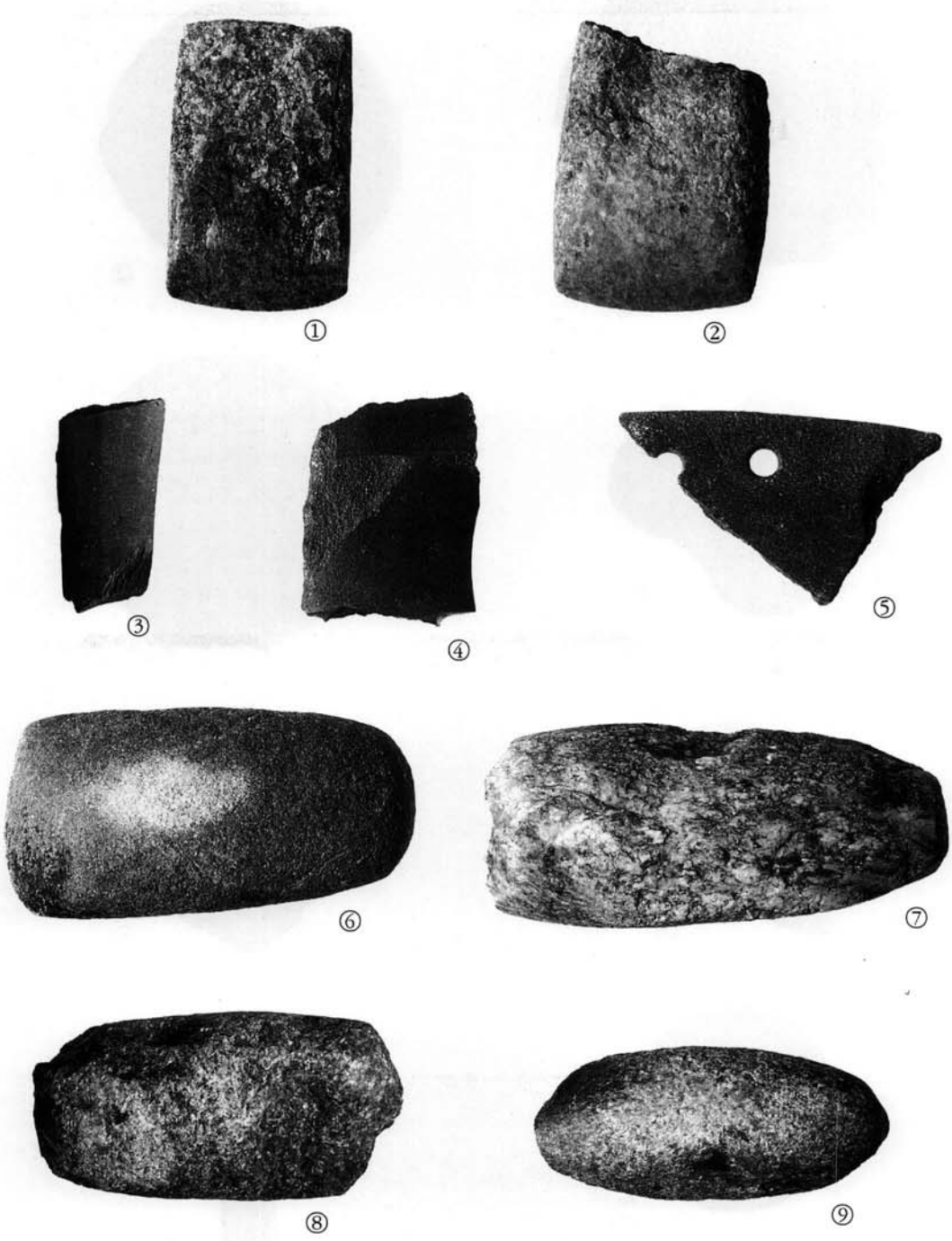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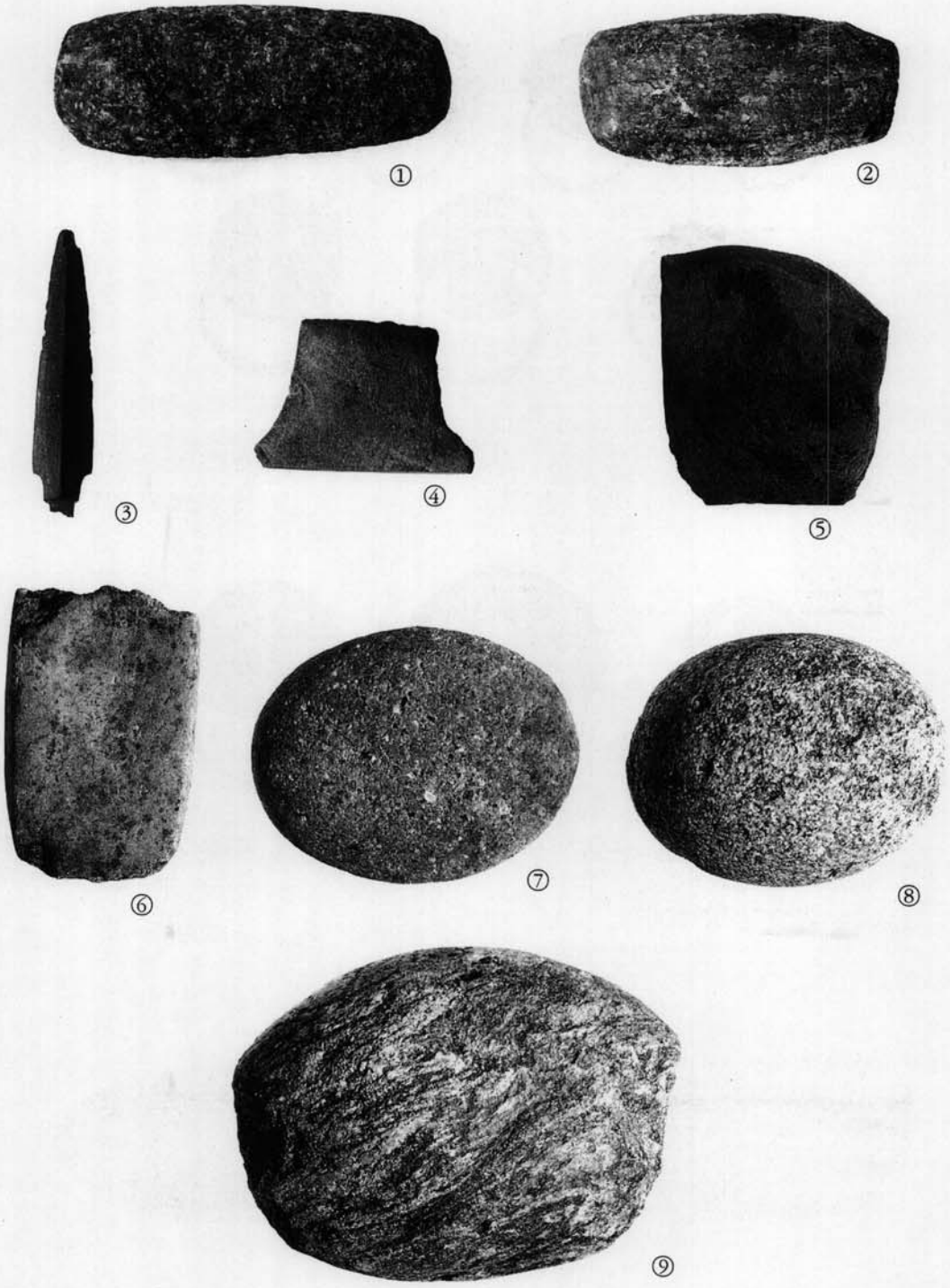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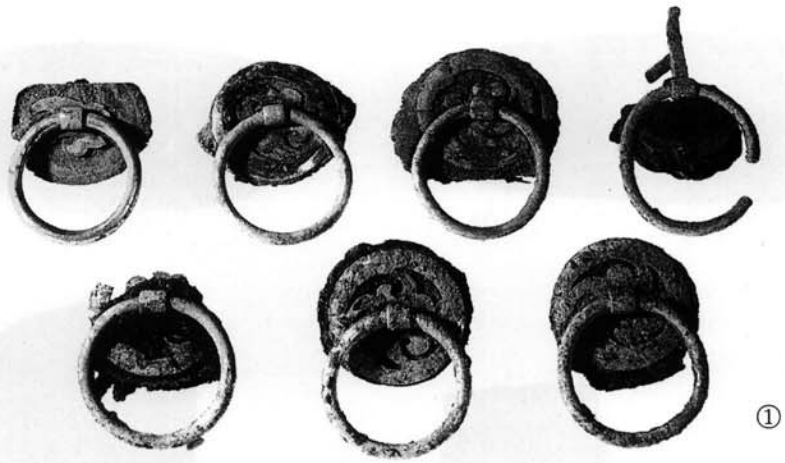
〈사진 55〉 포월리 유적 지표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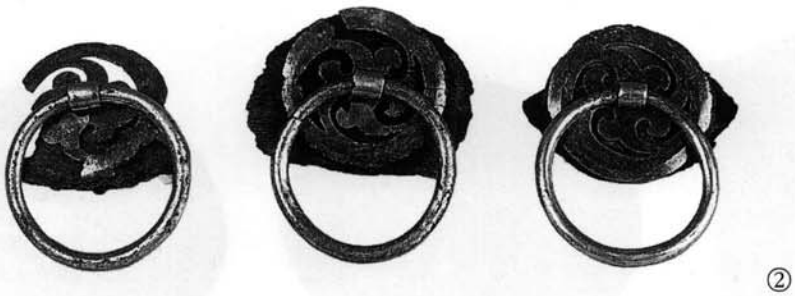


〈사진 56〉 포월리 유적 지표채집유물



〈사진 57〉 포월리 유적 지표채집유물







〈사진 58〉 ① 포월리 신라시대 3호 무덤(석실묘) 출토유물 (금동 관고리 - 보존처리 전)
② 포월리 신라시대 3호 무덤(석실묘) 출토유물 (금동 관고리 - 보존처리 후)
③ 포월리 신라시대 3호 무덤(석실묘) 출토유물

江陵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34冊

襄陽 浦月里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襄陽 浦月里 住居址		發刊日	2002년 6월
發刊機關	名 稱	江陵大學校 博物館		
	住 所	(210-702) 江原道 江陵市 池邊洞 123番地		
	TEL	(033) 640-2596	FAX	033) 640-2593
執筆·編輯者	지현병 · 박영구 · 최영희			
調査緣由	양양 농공단지 건설에 앞선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發掘調査者	백홍기 · 지현병 · 고동순 · 홍순욱 · 권미숙 · 김원국			
遺蹟所在地番	강원도 양양군 · 읍 포월리 산 59번지 일대			
調査面積	70,000㎡(약22,000 평)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청동기시대	장방형 13기	공열토기, 호형토기, 대부소호,석검,석부, 석창,석촉,	
지석묘	청동기시대	2 기		하부구조
고분	신라시대	석곽묘 2기		
		석실묘 1기	금동 관고리 (추정고구려계)	